



교회진흥회보

NEWS OF THE CHURCH GROWTH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2329
전화 63-0071~4



한 경 직 목사

창간사

교회의 사명과 책임
성장
발전
진흥. . . .

금번 본 한국 교회 진흥원에서 「교회진흥」 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뉴스지를 발간하게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한 마디로 말하면 일선에서 목회에 수고하시는 여러 교역자들에게 계속하여 피차에 돕는 길을 열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지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목회의 경험을 나누며 설교의 구상, 자료, 일화 등을 제공하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운동에 올바른 참여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나눌수 있고 피차에 도울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물론 여러가지 모양으로 곧 문서전도, 방송전도, 집회전도, 개인전도등 여러가지 길이 있으나 다만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은 부족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이 준비된 우리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안드레와 같이 교회로 인도하여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삼아서 같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것은 온 교회의 사명이요 특별히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며 발전되고 진흥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계속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울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4. 10. 1

원장 한 경 직



나 일 선 목사

인사말씀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 : 35)

교회 진흥 회보의 첫권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여러해동안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도에 대한 헌신과 열의에 대해들음께 다른나라에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나라에서 복음전도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 합니다. "눈을들어 받을 보라 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 4 : 35) 저는 이 회보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이되는 교회성장의 원리를 서로 배울수 있을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5,000만 한국민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 아니라 손길이 닿지않은 전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한국인선교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바입니다.

협동원장

나 일 선 목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딤후 1 : 1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딤후 2 : 3)

서론 :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면을 생각하여 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오늘 아침 읽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가지 방면으로 가르쳤다. 2~3절에는 군인의 생활로, 5절에는 운동선수의 생활로 곧 경기하는 자의 생활로,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의 생활로 가르쳤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좋은 군인처럼 살라고 하였다. 둘째는 운동선수 특별히 경주자처럼 살라고 하였다. 셋째는 농부처럼 매일 살라고 하였다. 이제 이제가지 방면을 간단 간단히 생각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란다.



I. 군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좋은군사 곧 정병이 되라고 하였다.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되면 누구나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게 된다. 한번 군복을입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곧 나라의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수 없다. 그의 전시간, 생애 때로는 그 생명까지 나라에 바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례를 통하여 십자군에 입대하면 온전히 그몸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십자군의 군복은 입어야한다. 또한 군인은 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군복을 입고 복음의 무장을 하고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였다.

또 군인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로 순복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라고 하였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인은 용감해야한다. 대적을 만나면 용감히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종종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은 우리 안에도 있고 또한 밖에도 많다. 우리 속에 욕을 근거로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정욕과 물욕과 온갖 불순한 욕심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고 하였다. 이것은 싸움을 의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군인이 되어 우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원수를 쳐서 이겨야 한다. 그뿐 아니라 악의 세력은 우리가 사는 이 외부세상에 더욱 큰 것이다. 악한사상, 온갖 세속주의, 퇴폐풍조, 부정, 불의, 부패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적대한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용감히 이런 세력과 간단없이 투쟁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나와함께 고난을 견디라고 하였다. 먼저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며 담대한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

II. 그리고 둘째는 좋은 경기자 특별히 좋은 경주자. 알아 듣기 쉽게 말하면 마. 톤 선수와 같이 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하기 위하여 마라톤 경주장에 나선 사람들과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경주는 산보가 아니다. 산책이 아니다. 달음질하는 사람은 몸에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 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경주하는 이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다.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린다. 그러므로 예수를 향하여 달음박질하는 이들은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주사는 앞을 향하여 곧 목표를 향하여 달음질한다. 이와같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음질 하라고 가르친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두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첫째는 내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장성하기 위하여 달음질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달음질하는 것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바울은 언제나 이 두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음질 한다고 기록하였다.

빌립보서 3 :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좃아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그 뜻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상 달음질 함을 의미한다. 곧 그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높은 수준에까지 그도 도달하기 위하여 잔단없이 노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둘째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 : 24절에 기록한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여기는 그의 받은 사명 곧 복음전파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항상 달음질 하였다. 우리도 다시 목표를 향하여 달음질해야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둘째는 내가 어디서든지 어떤 직장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항상 달음질 하는 것 처럼 노력해야 한다.

Ⅲ. 그리고 세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 하는 농부와 같이 살라고 하였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나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진리의 씨, 온갖 선과 아름다움과 덕행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선한 농부는 때를 잃지 아니한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다. 씨를 뿌리다 할 때에 꼭 씨를 뿌리다 김을 매야 할 때에 꼭 김을 매고 거두어야 할 때

에 꼭 거둔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온갖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해야 한다.

또 농사는 하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곡식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삭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익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농부는 시간이 걸려도 참을 줄 안다. 기다릴 줄 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 처럼 어떤 제나라 사람처럼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순을 뽑아 놓지 않는다. 선한 농부는 기다릴 줄 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 무슨 일이 빨리되지 아니 한다고 낙심하지 아니해야 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로는 비록 더디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전도와 봉사를 계속하자.

그리고 농부의 생활은 분주하다 언제나 할일이 많다. 그러므로 선한 농부는 부지런 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 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주님께 대한 책임도하고 부지런해야 내 살림도 바로하고 부지런해야 내 사업도 바로한다. 선한 농부와 같이 예수를 믿자.

결론 :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얼마전 최후로 기록한 글에 다음과 같이 자기의 생활을 회고 하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는 군인의 의식으로서 일생을 살았다. 다음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곧 일생을 달음질하는 경기자로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곧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안일한 생활도 아니다. 군인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용감한 군인에게만 최후 승리의 기쁨이 온다.

경주자의 생활로 그렇다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힘써 달음질하는 자에게만 최후 월계관의 기쁨이 있다.

농부의 생활도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농부에게만 추수의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면할 때에 그의 신령한 눈 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이 나타 나셨고 그 손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것을 바라 보았다. 또 이 의의 면류관은 싸움만 위하여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사도바울과 같이 십자군의 생활, 경주자의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 승리의 경주자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향군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①》

당 원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향군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으로 부터 향군 교육 참고자료 지위를 여러차례 요청받아 오던중, 마침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국토통일원에 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이 찬구(李讚九)선생의 협조를 얻게되어 격월(隔月)로 향군 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연재키로 하였습니다.

① 방위대상문제, ② 북한권력구조, ③ 대남전략구조, ④ 사회정화문제, ⑤ 공산진영현황, ⑥ 분단국가현황, 순(順)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회는 그 1회인 '방위 대상문제 편(編)입니다.

敍의 立場에서 향군을 지도하심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編輯者白)

◎ 방위대상(防衛對象)문제

〈국토통일원 연구위원 이 찬구〉

흔히는, '향군의 방위대상이 무엇이나' 할 때 '공산주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향군의 방위대상은 첫째 휴전선 이북의 공산주의, 둘째 주변 강대국의 대국주의(大國主義), 셋째 휴전선이남의 퇴폐주의, 라는 사실을 중시해야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대국주의와 휴전선이남의 퇴폐주의 팽창까지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휴전선이북의 공산주의 침투마저도 막아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국주의 세력은 셋입니다. 중공의 中華思想에 바탕을 둔 大國主義, 소련의 帝國主義 그리고 일본의 軍國主義입니다.

중공의 國境概念은 二重構造로 되어 있습니다. 內境과 外境이라는 두개의 국경개념입니다.

內境은 960만km에 달하는 현재의 국경선이요, 外境은 중국문화권 안에서 중국문화에 영향을 입어온 한반도, 일본, 월맹, 크메르,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기를 포괄하는 지역 전역입니다. 중·소분쟁을 해결 본 다음에는 필요하면 이들 外境안의 모든 국가들을 할 수만 있다면 接受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인 것입니다.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전당 대회("九全大會")를 마친후 중공수상 주은래가 "우리 중공에는 1億의 예비군이 있다. 필요하다면 千萬은 태국에 보내고 千萬은 한국에 보내어 쓸어버린 다음에 남은것은 일본에 보내어 일본까지 뭉개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사실이 저들의 이 속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二重的 국경개념을 교육받고 있는 8억 중공인민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는 대국주의 생리야말로 경계해야할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군여러분이 이를 두려워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나하면 만일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재래식 전쟁밖

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래식 전쟁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됩니다.

전쟁의 勝因은 셋입니다. 天時와 地利와 人和가 그것입니다.

이 셋중에 둘을 갖춘쪽은 언제나 이긴다고, 그들 중공인민이 잘 아는 병법의 대가인 손자가 말했읍니다.

天時不如地利요 地利不如人和라 했습니다. 天時보다는 지리적 잇점 즉 地利가 낫고 地利보다는 人和 즉 국민총화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地利를 잘 아는 내 나라 내땅에서의 싸움이므로 우리는 地利를 쥐고 있는 것이며, 외세의 침략을 당할땐 언제나 거족적 단결을 해온 우리이므로 人和도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千萬의 大軍이 밀려 오더라도 250만 향군과 4:1 밖에 안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6일전쟁을 통하여 당시 260만 이스라엘 국민수의 40배가 되는 1억 1천만 아랍세력과의 싸움에서 단 6일 동안에 2만 1千km²의 이스라엘 국토를 그 배가 넘는 8만 9千km²로 확장하여 이겼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聖戰意識에 바탕을 둔 국민총화(人和)의 힘,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大勝을 거뒀던 것입니다.

美軍을 철수시킨 월맹군 사령부가 "한국군과 조우하면 후퇴하라"는 지령을 월남내 월맹군 정규사단에 하달했던 월남전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 先祖들이 살수에서 패수에서 수나라 당나라 대군을 전멸시켰던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단결만하면 이 지상의 어떤 호전적인 강대국가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1973년(작년) 4월 17일자 일본의 저명한 주간지인 世界週報에 실린, 미국 씨 파우워(Sea Power)紙 편집국장 프랭크·울리크(Frank Uhlig)씨의 글을 보면 이런말이 있습니다. '중·소분쟁이 격화되면 소련은 중공의 배후를 공격하여 중공군 주력부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먼저 자기들 영향권에 넣어 중공포위망을 구축코져 할 것이요, 중공은 소련의 이같은 포위망구축을 막기 위해 먼저 한반도를 자기들 영향권속에 넣고저할 것이며, 일본은 이들 中·蘇의 일본 위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한반도를 자기들 영향권 속에 넣고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프랭크·울리크氏의 이 지적은 그후 곧 소위 「나카소네 宣言」에 의해 적중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난날 일본의 방위청장관을 지낸바 있고 지금은 다나카 내각의 자타가 공인하는 제2인자인 현 통산상「나카소네」는 지난해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서 1,000km 이내의 모든 지역과 水域은, 일본의 自衛를 위한 作戰圈內에 포함된다"는 宣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아시아 三強의 三極體



인간은 누구나 항상 추구하는 사실이 있다.
어떻게하면 좀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와같이 인간 저마다가 추구하는 행복된 삶과 보람있는 삶이 원하는대로 충족된다고하면 이에서 더 바랄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간절한 바램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데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다.

보람있게 살아 보려고하니 안일가지 못하고 고생과 수고로움 뿐이요 그렇타고 즐거움과 안일을 쫓아 헤매다 보니 허탈과 좌절이 있을뿐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확실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람있는 삶을 성실히 추구해가는 곳에 삶의 참 길이 열리는 것이다.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그러면 보람찬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 자각하는 마음이다.

다시말하면 주체의식의 정립이다. 다른 사람이 아

닌 곧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는데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 의존적이며 피동적인 삶의 자세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인생은 자력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주체적이며 책임있는 삶의 태도를 취할때만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철인 커에르케고르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영원자와 마주설때 비로서 참된 자기를 발견한 다고 했다.

둘째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어떻게하면 조화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조화있는 삶하면 요즘 흔히 시중에 나도는 Human Relation 즉 인간 관계라는 말을 연상하게 된다. 이는 흔히 자기욕망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이것을 출세의 비결로 오해하고 조화를 파괴하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보람있는 삶은 무엇인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성실한 노력과 충성심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젊은 정열을 유감없이 쏟아 헌신봉사할 때 비로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制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입장에 있는가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오늘날 세계최고 권위의 시사 평론가인 월터·리프먼이 73년 4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특별기고를 통하여 “한반도는 세계 긴장의 초점”이라고 갈파한 것도 이들 중공·소련·일본 세나라간의 한반도를 중심한 역학관계를 의식하고서 한 말이었다고 봅니다.

한미 방위조약이 전재하는 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떠한 군사대결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250만향군의 자세와 결심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허약한 민족이 당하는 것이지 實하고 강한 민족은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충돌의 생리는 한마디로 以實擊虛입니다. 實으로써 虛를 치는 것입니다.

以實擊實은 불가능합니다. 두쇠가 다 부러지기 때문에 자기자신도 부러질 것을 각오하고 남을 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強해야 합니다.

그러나 強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道德의으로 強해야만 強해질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썩은 社會가 實力을 발휘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돈”이면 다라는 식의 排金主義와 黃金萬能思想이 우리사회를 病들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현상의 一部라 할지라도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병균은 작은 상처를 통해들어가서 몸 전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靑少年들 일부까지도 排金主義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흉폭한 범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도와 살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희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排金主義를 몰아냅니다.

黃金萬能思想을 몰아 냅시다.

돈도 중요하나 그만 큼은 혼돈도 중요하며, 순서를 따진다면 혼이 훨씬 앞선다는 가치관을 우리사회에 심어 나가십시오. 그리하며 따뜻하고 밝은, 명랑하고 힘찬 사회로 개조하십시오.

향군 여러분은, 그러므로, 道德으로 武裝된 “義의 兵士”로서 이 사회에 만연되는 퇴폐주의를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十字架의 軍兵”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防衛對象을 주변 강대국의 大國主義와 휴전선 이북의 共產主義, 우리사회안의 頹廢主義등의 셋으로 구분한 이유도 여기 있는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北의 敵과 주변의 敵과 안의 敵을 다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道德의 무장부터 해야 합니다. 道德의 源泉은 宗教입니다. 信仰입니다.

사랑입니다.

헌신과 희생이며, 뜨거운 눈물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수 있는 눈으로 민족의 현실을 볼때에만 우리가 오늘날 하고자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수 있습니다. 민족을 쓸어안고 울수 있는 슬기롭고 힘찬 향군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위에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결(結)합니다.



'74회계년도 사업보고

73년 10월 1일 ~ 74년 9월 30일

- 1) 매스컴 전도 2) 목회연구회 3) 영화전도
4) 전도대회 5) 출판업무

1. 매스컴 전도

기간 : 1973년 10월 1일 ~ 74년 9월 30일까지
세목 : 오천만의 시간

(주일) 기독교 방송 49회
(월요일) 기독교 방송 49회
(주일) 극동방송 23회

오천만의 신앙상담 (주일) 기독교 방송 39회
(토요일) 기독교 방송 39회

2. 목회 연구회

① 국내 목회 연구회

- 제 1 차 73년 5월
제 2 차 73년 7월
제 3 차 73년 9월
제 4 차 73년 10월 29일 ~ 11월 10일 30명
제 5 차 74년 4월 29일 ~ 5월 10일 32명

② 국제 목회 연구회 74년 8월 19일 ~ 9월 30일

교육 2수 실습 4주
참가인원 외국교역자 12명
태국 2 자유중국 5 (남3, 여2)
홍콩 2 일본 2 제일교포 1

초빙교수 : 맥카부런박사(미국) 미 풀러신학교 교수
바이엘하우스박사(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
찬드레이 박사(인도) 동남아전도협회장
티케트 박사(호주) 미 풀러신학교 교수

신습교회 : 영락교회 (박조준목사)
노량신교회 (임인식목사)
후암교회 (조동진목사)
청수우암교회 (엄기만목사)
연희교회 (우문선목사)
문래동감리교회 (김진영목사)
강원황지교회 (오창학목사)
부산영학교회 (고현봉목사)
홍능교회 (나병주목사)
해바교회 (박치순목사)

3. 영화전도

년월일	회 수	참석자수	결신자수
73. 10	23	7,866	280
11	30	6,563	291
12	29	8,178	390
74. 1	42	15,754	612
2	28	10,210	453
3	23	8,409	363
4	37	12,992	619
5	32	15,865	382
6	35	17,093	332
7	29	9,391	208
8	15	6,458	143
합 계	323	118,779	4,073

4. 국내전도대회

기간 : 1974. 5. 29 ~ 6. 2.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공설운동장
명칭 : 충북연합 전도대회
연접회수 : 29회 연접회인원 : 20만명
전결신자수 : 8000명

5. 출판업무

- ① 나일선 목사 저 "교회 성장원리"가 출판 되었습니다. (4×6판) 정가 600원
② 본원에서 발행한 책자 및 전도지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경직 목사 저) 1 권 20원
하나님과 화목하는길 1 권 10원
전도용카렌다 (명함판) 1 매 2 원 50점
신약성서 읽기 1 매 2 원
안드레식 전도카드 1 매 2 원
참 삶의길 (한경직 목사저) 1 매 2 원

75년도 세미나 계획

- 제 6 차 목회연구회 74. 10. 7 ~ 10. 12.
제 7 차 " " 74. 11. 25 ~ 12. 6.
제 8 차 " " 75. 1. 13 ~ 1. 17.
제 9 차 " " 75. 1. 20 ~ 1. 24.
특별향목세미나 대구지구 75. 5. 26 ~ 5. 30.
서울지구 75. 6. 2 ~ 6. 6.
광주지구 75. 6. 15 ~ 6. 26.
제 10 차 경목 향목 세미나 75. 9. 15 ~ 9. 20.

※ 본원의 목회 연구회에 참석키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7가지 요인을 극복하려면”



교회가 전혀 혹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각 교역자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7가지 어려움을 기록한 것이다.

멜번 허시지



제 3 세계의 선교 사회

에드워드·펜티코스트

1.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지나친 불신앙으로 인해 부사와 신도들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중단한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지리라” (마태 24 : 12) - 교회 성장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예언들이 성행할 때 교행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예언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이 한 없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건들은 같이 일어난 것이며 아마 서로 병행하여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용기와 믿음은 교회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2. 기동력을 상실할 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의 활동을 못한다. 이들은 가두집회, 임원 환자 방문, 혹은 친척이나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교회 건물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길가나 학교나 집이나 어느곳에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교회 건물이 사회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도록 방치해 두고 있다.

3.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셋째 요인은 “가족 일문(一門)자세이다.

일부 작은교회는 전 교인이 서너 가족의 식구들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 가족들의 모든식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통제되고 있는 안전성이 파괴될까봐 다른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는 늘 새로운 교인들을 필요로 한다. 부흥은 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열감이 없으면 잘 타지 못한다. 우리가 고립에서 벗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4.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넷째 원인은 목사가 혼자서 모든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목사의 임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베소서 4 : 11, 12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1800년 이래 제 3 세계권 내의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 서구 세계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72년 봄부터 세계 선교 학교와 홀러신학대학의 조사단에서는 제 3 세계 국가들에 의한 선교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697명에게 편지와 질문서가 우송된 결과 약 40%만 응답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 나타났다.

지역	파견국가수	기관	선교사수
아시아, 오세아니아	15	102	975
라틴 아메리카	13	59	655
아프리카	6	18	917
	34	179	2,547

아프리카 선교회는 대부분이 아프리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4개의 선교 기관에서 8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 선교 양상은 대부분의 경우 전 가족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새로운 연고 관계를 설립한후 교회가 설립되면 그 가족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본집으로 돌아간다.

아시아의 선교 양상은 이민(移民) 노선을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 선교사가 흔히 자기 민족이 이민간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국인들이 브라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다.

인도의 선교사들은 케냐에서 사는 인도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케냐로 간다. 제 3 세계의 선교사들은 대개 본국 교회에서 보조 받고 있다. 때때로 한 교회가 개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어떤 교파에서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를 보내기도 한다. 인도나 필리핀 선교사들 중에는 서양 선교회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초청한 교회에서 보조를 받기도 한다.

제 3 세계 선교회의 선교사 파송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지역에서 사는 자기 동포들에게 선교하려 하며 이때 그들은 새로운 언어 배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외국으로 선교하려 하지만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지않고 자기민족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 3 세계의 선교사회에서는 서양선교사들의 필요성을 감소 시키고 있는가? 제 3 세계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필리핀 사람은 이런 글을 썼다. “만일 10만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내일 우리에게 더 온다해도 우리는 우리자신에게 주어진 큰 사명에 더욱더 순종 해야 한다. 그는 두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곳을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 거대하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전(全) 몸이 복음을 진파할수 있도록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창 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이 상 근
 총 무 김 윤 식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
 감 독 윤 창 덕
 총무국장 김 창 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인 광 식
 총 무 이 영 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 회 장 황 경 찬
 총 무 이 봉 성

구세군 대한본영
 사 령 관 : 전 용 섭
 서기장관 이 인 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
 선교연구회장 말콤 E. 파수리

한국 나사렛총원
 원 장 폴 E. 스테브스

기독교 중앙 방송국
 부산기독교방송국 대구기독교방송국
 이리기독교방송국 광주기독교방송국



◆ 공지사항 ◆

- ① 본인 목회연구원 회원들의 각별한 유대와 친교를 위하여 한달에 회비를 100원씩 작정하였사오니 소액한으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보를 통하여 회원들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합니다.
- ② 영화전도반의 협조를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인근 교회와 협의하여 10개처 이상을 한 단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교회진흥원 배지 제작
 본인의 배지를 새로히 제작하였습니다. 1개당 100원입니다.
- ④ 본보 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년 6회로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 3회까지는 무료입니다. 그후부터는 꼭 등록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진체구와 번호는 서울2329입니다.

◆ 원고모집 ◆

교회진흥회보를 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꾸미기 위하여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원고내용 : ① 목회상 보람 있어 널리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일.
 ② 목회상 어려웠던 일을 극복 하였던 경험.
 ③ 목회상 널리 권장하고 싶은 새로운 일
 ④ 특별히 은혜받은 일.
 ⑤ 기타, 설교, 수필, 신앙간증, 시



200자원고지 3매내외
 수시로 접수함
 연락처 : 우편번호 120
 서울 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한국교회진흥원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4
인쇄 성립인쇄사



깊은 밤에

기쁜소식

눅 2 : 8 - 14

서론 : 팔레스틴의 밤은 깊었다. 적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었다. 돌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졸고 있었다. 그 때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I. 깊은 밤, 어두운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취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캄캄한 세계이다. 무지의 흑암이 아직도 세계를 덮고 있다. 과학이 발전되어 달 세계를 내왕하나 아직도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 땅을 덮었다.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하러 왔는지 모른다.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리고 최악의 검은 구름이 아직도 온 땅을 덮었다. 음란과 방탕, 시기와 횡령, 절도와 강도, 살인과 방화, 비행기 납치 등 최악의 검은 구름은 아직도 세계를 덮고 있다. 이렇게 흑암으로 덮인 깊은 밤에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오늘날 다윗성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셨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성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II. 그리고 이 흑암의 세계는 또한 슬픔의 세계이다. 눈물과 탄식과 슬픔의 깊은 밤이다. 무지는 슬픔을 가져오고 최악은 애통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일제 압박 36년 간의 자유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껴 보았고, 1945년 해방 후에는 모순된 말 같으나 해방의 슬픔도 체험하여 보았다. 곧 38선의 슬픔, 6. 25의 슬픔, 혁명의 슬픔, 선거의 슬픔, 온갖 슬픔을 맛 보았다. 수 없는 고아의 슬픔, 미망인의 슬픔은 말하여 무엇하랴.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슬픔의 세계에 위로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모든 슬픈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는 오셨다”

III. 그리고 이 어두움과 슬픔의 세계는 또한 절망의 깊은 밤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20세기의 상징은 “버섯구름”이라고 하였다. 무슨 뜻인가? 원자탄이 폭발되면 공중에 그 불과 연기가 버섯모양으로 퍼졌다가 땅위에 쏟아져 내려온다. 원자탄은 과학문명의 자랑도 되지만 또한 현대문명의 절망의 상징도 된다. 이 버섯같은 검은 구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만 진다.

전세계 인류는 안타깝게도 평화를 갈망하나 이 지상의 전쟁의 긴장은 더 커지지만 한다. 전세계의 인류가 그렇게도 자유를 갈망하나 이 세계에는 아직도 도처에 억압, 폭력, 구속, 독재는 계속된다. 이 세계는 절망의 깊은 밤이다. 이 절망의 밤 하늘에 크리스마스 별은 빛난다. 소망의 별은 비취인다. 이 절망의 세계에 그리스도는 오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밝게 비추어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류의 갈망하는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진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5천만이 갈망하는 자유를 중심한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IV. 그리고 이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세계는 또한 사망의 깊은 밤이다. “사람의 사후길, 노소 없이 되로다”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이다.

“낙양성동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누구 누구랴”는 옛 노래의 일절과 같이 영웅호걸이면 무엇하고 절대가인이면 무엇하는가, 다 무덤으로 간다.

“네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라지는 안개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갑자기 끊어진다.

이것이 인생인가, 인생이 이것뿐인가, 이 사망의 깊은 밤에 생명의주는 임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주님이 오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이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

결론: 여러분, 이 깊은 밤에 가장 기쁜 소식을 듣는가? 이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사망의 깊은 밤에 기쁜 소식을 듣는가?

빛 되신 주, 기쁨의 주, 소망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났는가. 이런 구주가 오셨는데 아직도 이 어둠에 헤메이는 이가 있는가. 아직도 슬픔에 잠기운 이가 있는가? 아직도 절망에 빠진이가 있는가? 아직도 사망에 얽매인 이가 있는가.

오! 사랑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새벽에 생명의주를 만나라./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 같이 주를 영접하자.



Merry



Christmas

“5천만 한국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마치하시기 바랍니다.

※ 회보철 안내

옆의 세구멍은 바인다에 맞도록 해야오니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시어 한권으로 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진흥원

협동원장 나 일 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7가지 요인을 극복하려면”

멜빈 허지스

전호의 계속



멜빈 허지스 목사는 중
양아메리카에서 선교사
로 일했으며 현재는 북
음교회 총회의 외국 선
교부에서 행정비서로 일
하고 있다.

5. 교회가 자기중심적이 될때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밖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계로 인도할때나 이미 교회내의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때나 늘 긴장감을 갖게 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르침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경의 주제는 복음전도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6. 영적 자극이 약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욕망을 잃어 버리고 부흥이나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여러가지 활동으로만 바쁘게 된다. 우리가 성경말씀, 기도, 믿음, 그리고 순종을 소홀히 할때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7. 어떤 교회들은 전통이나 종교적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성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교회의 예배는 부활하셔서 살아가신 구세주와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보다는 어떤 규칙이나 예식을 지킴으로써 “자기의”(自己義)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비존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하자.

제 3 세계의 선교 사회

에드워드·펜티코스트

전호의 계속



에드워드 펜티코스트 목사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했으며 필라델피아 성서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선명회의 일원으로써 MA RC(선교 연구 통신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복음전도를 위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제 3세계의 선교사회는 서양선교사들에게는 굳게 닫혀져 있는 여러나라에서 일할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나갈랜드 지방은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화 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지방인구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있다. 한국교회는 현재 48명의 선교사를 17개국에 파송하고 있다.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 5개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그 지역의 한국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타일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보루베이, 파키스탄, 월남, 사라와크, 괌도, 알젠틴, 볼리비아, 싱가포르, 서독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나라의 국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큰 사명이 여러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고 있다. 구원의 소식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로 부터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인식한다.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 새로이 설립된 교회들이 속히 그 지역을 복음화 할뿐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것을 기대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향군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②》

당 원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향목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으로부터 향군교육 참고자료 지원을 여러차례 요청받아 오던중, 마침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 계신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 이찬구(李讚九) 교수의 협조를 얻게 되어 격월(隔月)로 향군 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연재키로 했습니다.

①방위대상문제, ②북한권력구조, ③대남전략전술, ④사회정화문제, ⑤공산진영자유화현황, ⑥분단국가 일반현황, 순(順)으로 연재합니다. 이번은 그 2회인 북한권력구조문제” 편(編)입니다.

목자(牧者)의 입장에서 향군을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編輯者 註)



◎ 北韓權力構造問題

◇공산사회의 권력은, 본질에 있어, 당(黨)에 집중되기 마련이며, 그 다음이 군(軍)이고, 그 다음이 정부(內閣)이다. 이것은 자체로서 공산사회 건설과정의 조직순서이기도 하다.

북한공산집단의 경우도 그러하다.

오늘날의 소위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分局)에서 시작되었고, 인민군은 그 이듬해인 46년 7월에 설치된 보안간부 훈련소가 그 발원(發源)이며, 내각(행정부에 해당하는 기구)은 다시 그 이듬해인 47년 2월에 구성된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의 집중은 내각→군대→당(黨)으로 올라가며, 조직의 순서는 당(黨)→군대→내각으로 내려간다는 이 사실이 북한의 권력구조의 형식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결국 북한 권력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는 북한권력 집중의 정상(頂上)내지 중핵(中核)으로 되는 조선노동당의 구조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북한의 권력구조를 문제삼는 취지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데에 어떻게 기능했는가 하는 측면을 고찰하므로써 그 구조의 변질가능성과 관련하여 남북대화의 재개(再開) 전망을 투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권력담당자의 체질과 성향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권력구조의 인적(人的)인 요소와 성향 분석 내지는 인적구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国土統一院 統一研究所 教授 李讚九〉

◇일반적으로 공산사회의 지도층은, 그 성장과정 및 성향에 따른 정치행태적·속성의 측면에서, 혁명 엘리트와 관리자층으로 구분하여 인식되고 있다.

전자(前者)는 대체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지산, 데려 등의 직업폭력혁명투쟁에 투신해 온 계층이고, 후자(後者)는 폭력혁명전선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혁명이후에 성장하면서 비교적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계층이다.

그 결과 체질의 유형(類型)은 혁명 엘리트가 모험주의노선에 비해 관리자층은 대체로 합리주의노선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다. 살인, 방화, 약탈, 겁탈등 잔악행위의 경험의 유무(有無)가 결과시키는 정치행태상의 생리적 체질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자유화와 대외개방화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현 내지 추진되고 있는 동(東)구라과 공산국가들의 경우, 그 자유화 및 개방화의 폭(幅)은 그 사회 권력 체계의 상층구조에서 혁명엘리트가 퇴진하고 관리자층이 득세하면서 부터 점차 그에 맞춰 정비되어 넓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 동구자유화 배경에 관한 인적 요소의 분석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정치 권력이 집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의 구성분포는 그러면 이 틀에 맞추어 볼 때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0년 11월 제 5차 조선노동당 대회(이 대회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김 일성의 연설이 있었음)를 기준으로 중앙위원 173명중 그 72%인 126명이 관리자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45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오늘의 조선 노동당의 전신:전술내용 참조)창설 당시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혁명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인적 구성요소의 중요한 변화로 볼 것이다.

조선노동당 내부에 등장하는 이들 관리자층들의 존재는, 그들이 대체로 동구권에서 보여 주는바 처럼 합리주의적 생리를 지닌다고 가정할 경우, 조선노동당 권력체제의 저변구조가 모험주의노선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내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위유지문제로 김 일성 노선에 정면 도전은 기피하면서도 4대 군사노선 등으로 표현되는 김 일성의 호전적 침략노선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정(想定)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귀순자 및 자수잔첩들의 증언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바와같이, 김 일성이 최근 북한주민의 사상교육관리과정에서 「북중의 무조건성」

내지 「복종의 절대성」등을 강조하면서 족벌정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하여 과언이 아닐 줄로 안다. 왜냐하면, 복종의 무조건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복종이 조건전제적이거나 상대적인 경우 즉 불복 가능성이 보편화된 풍토에서 요청되는 조치일 것이며, 족벌정치를 강화하여 주요 직책을 친족으로 충원하는 것은 김 일성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동료와 후배를 믿을 수 없게 되는 풍토에서 필요하게 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로 볼 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정치위원이 17명이 있는데 이들중 후보위원 6명은 모두가 관리자층이고 정위원 11명중의 1인도 관리자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정위원 10명은 모두가 혁명엘리트인데 이들 북한권력의 최고정상그룹을 형성하는 10명의 혁명엘리트들의 평균연령은 김 일성의 현재 (74년) 연령과 같은 63세로서 이중에는 74세 고령인 최 용진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최 용진의 퇴진설이 있으나 아직은 미확인 정보임).

이들 모험주의적 생리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명의 혁명엘리트들의 정치적 수명을 향후 10년간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10년후 관리자층으로 완전 교체될 것이라는 필연성은 없으나 그러한 개연성 내지 가능성은 부정하기 곤란하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0년후의 남북관계 또는 80년대의 남북 대화는 오늘과는 그 양상을 크게 달리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합리주의노선을 추구하는 관리자층의 등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물론 금물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자인 동안은 공산주의자인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같은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이들 관리자층이 집권세력의 참모진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처内外政策 수립에 비교적 科學主義를 도입하여 合理性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므로써 가상적국과의 관계에서 흡수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外的으로는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처內的으로는 주민의 의식구조 통제의 완화, 소비욕구 심리의 점진적 충족 등의 조치를 취하는 성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 ※ ※

성경통신 강좌 안내

1. 신학통신강좌 (Advanced Course)

◎ 본 신학(神學) 강좌의 내용 범위

가. 구약신학(창세기~말라기)

나. 신약신학(마태복음~요한계시록)

다. 교 회 사(초대교회사~한국교회사)

라. 교 리(창조론~말세론)

● 입 학 금 : 1,000원. 교재(전 5권): 무료

북한의 경우에도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기준으로 남북관계의 장래를 전망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점 때문인 것이다.

확실히 동구라파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새 세대의 등장이 보편화되면서부터 공산주의의 제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내지 개방화가 미약하게나마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구 8개 공산국가의 경우 그 지역주민 총 수의 65%가 종교인이며 이 중에서 이슬람교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알바니아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기독교를 大宗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 敎理에 충돌되는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당하고 있는 종교생활이기는 하나, 신(神)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唯物) 철학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현실치고는 그 지역의 공산주의가 변질기 내지 파도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 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거센 자유화의 물결이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북한공산사회에까지 파도쳐 들어 간다면 북한공산주의의 체질도 일부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성서(聖書)적 입장에서든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곧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과 관련시켜 볼 때, 북한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된 다음에 재림의 날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념에 젖어 들게 된다.

북한동포 구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후 10년 동안 여·야를 초월하는 국가적 차원 내지 국민의 입장에서 말은 바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김 일성은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간접침략 등의 방법으로 처南赤化를 추진코자 발악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그의 이 불순하고, 악의에 찬 기도(企圖)를 패배시키고 북한동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 ● ●

2. 성경강좌 (Bible Study Course)

3. 주제별 암송

(Scripture Memory Course)

● 입학금 : 300원 (군인, 200원)

● 교재대 : 무료 송료 : 본교 부담

연 락 처

서울·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3호
우편번호·120 전화 (63) 0071-3 교57
대체 519198

한국교회진흥원

나일선성경통신학교

“나사렛 교회의 현저한 성장”의 이유와 계획

나사렛 교회 연구

다음의 두가지 도표에 나타난 1971년 이후 나사렛 교회의 현저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복주셨음을 말해준다. 1954년에 단지 11개교회에 2명의 목사로 시작된 나사렛 교회는 이제 125 교회가 되었다. 1965년에 1,784명 되던 정회원(세례교인)수는 1974년에 8,659명으로 증가되었다. 정회원과 준회원(학습교인)의 총수는 3,820명에서 16,532명으로 증가되었다.(도표 참조) 이 증가의 반수 이상이 최근 3년간에 일어났다. 즉 1971년을 기준으로 하면 123% 증가되었으며 정회원수는 133% 증가되었다. 1974년에는 정회원수는 4,595명에서 8,659명으로 증가되었으며(88.4%) 준회원의 수는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 빠른 성장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복주심은 진실로 모든 교회 성장의 원인이다.

바울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고린도전서 3:7)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신다. 군대전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엑스포로 '74 그리고 그 밖의 전도집회들은 모두 나사렛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게 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이유들도 또한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이 원리들은 보다 작은 교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격려가 될 것이다.

2. 1972년에 목사들과 교회가 재 연합 되었다.

교회수는 1966년부터 1972년까지 같은수로 머물러 있었다. 성장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교회간의 알력이었다. 1970년 나사렛 교회는 분열되었으나 1972년 목사들과 교회들이 재 연합되었다. 1972년 봄, 이 교단은 2개의 행정구역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강원도, 경기도, 서울지방에는 77개의 교회들이 있으며 약 총의 회원수를 갖고 있다. 남부지방(강원도, 경기도, 서울 제외)은 보다 작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35개의 새 교회가 세워지는 중 24개 교회가 이곳 남부지방에 설립되었다.

이 두 구역의 구역장들은 교회성장과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들 두구역

사이에는 서로 선의(善義)의 경쟁이 있는 것 같다.

3. 나사렛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다.

교회내의 화해, 영적 부흥, 새롭고 역량있는 지도력 그리고 행정면에 있어서의 변화는 성장을 방해했던 좌절감, 부정론, 작은 교회의 소극주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새로운 낙관주의 정신은 1980년까지 300여개의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어떤 나사렛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사렛 교회의 성장 가능성이 모든 나사렛 신학교 학생들과 목사님들의 90%가 1973년에 열렸던 빌리그레함 전도 학교에 참석한후 증가되었다고 생각한다. 1974년 봄 한국교회 진흥원의 강사들은 나사렛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연례회의 때 교회성장에 관한 연수회를 열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전도의 중요성과 기회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5. 교회 성장을 후원하기 위해 외국 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나사렛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적은 교파들에게 있어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지방 교회의 반수 이상은 자립한 교회들이며 곧 이들 교회들이 그들의 지역에 있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도울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선교 기금은 전도와 교회 설립에만 사용 될수 있다.

도시와 교외의 땅값이 올라 작은 교회들은 도움없이 새 교회들을 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나사렛 교회가 땅을 산후 나사렛 교단은 교회 건립비용의 50%을 제공 했으며 또 제공 할것이다. 이 기금은 나사렛 교회 지구 본부를 통해 운영된다. 이 원조로 몇몇 도시 교회들은 2~3년 동안에 자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도시와 농촌의 교회들은 10년 내로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까지 적어도 300여 교회를 세우는 목표는 가능하다. 1971년 이후의 성장율이 지속된다면 1980년 까지는 31,726명의 정회원(세례교인)과 함께 432개의 나사렛 교회가 생기게 된다.

주님께서 나사렛 교회의 성장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따라서 다른 작은 교파의 교회들도 보다 더 큰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교회란 ?

—폴·스터브스 목사—

많은 사람들은 장노교회, 감리교회, 성결 교회와 침례교회 등은 잘 알고 있지만 나사렛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사렛 교회는 1900년경 미국에서 시작 되었고 지금은 50여개국에 1,200,0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의 교회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나사렛 교회의 독특한 가르침은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를 통한 또 하나의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과 봉사를 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나사렛 교회에서는 물 세례와 성찬 예식을 지킵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과 관련하여 나사렛 교회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사랑의 열매이지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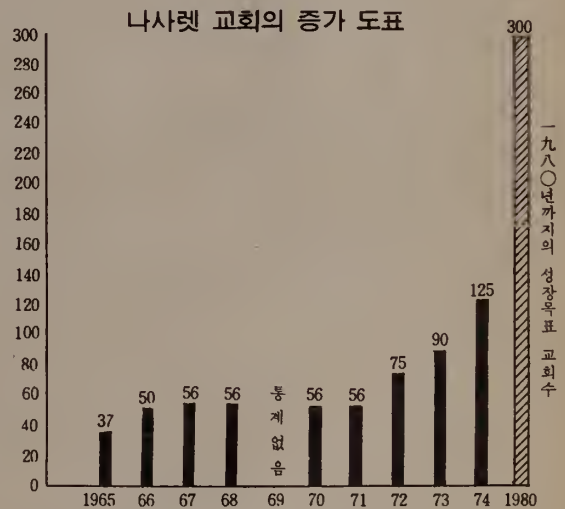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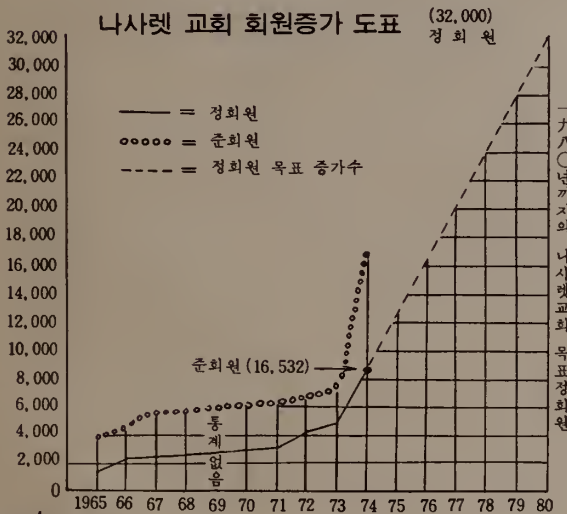
이 방언 문제로 성결 단체에서 오순절과가 갈라졌읍니다.

나사렛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는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와 다른 전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나사렛 교회의 최근의 성장과 새로운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군 폴·나의도 참령—

1973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홀러 신학대학 세계선교 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음.



◆ 진흥원소식 ◆

- 11월 26~12월 6일까지 제 7차 목회연구회 실시 수료자 40명 (7개 교파에서)
1975. 1. 20~1. 24 (1주간)까지 교목 세미나 실시
- 영화전도부 김재광목사님은 미국과 캐나다지방에 여행중입니다. 따라서 영화전도활동은 신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교회진흥원 배지 제작
목회연구회 회원을 위하여 배지를 새로이 제작하였습니다. 1개당 100원입니다.
- 본보 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년 6회 발행 100원입니다.
송금은 서울 대계구좌 523290 (75. 1. 1일부터 시행) 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모집 ◆

교회진흥회보를 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꾸미기 위하여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원고내용 : ① 목회상 보람 있어 널리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일.

② 목회상 어려웠던 일을 극복 하였던 경험.

③ 목회상 널리 권장하고 싶은 새로운 일

④ 특별히 은혜받은 일.

⑤ 기타, 설교, 수필, 신앙간증, 시

200자원고지 3매내의

수시로 접수함

연락처 : 우편번호 120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한국교회진흥원



基督教牧會學

웨인 오트 홀 국판 양장
김 득 용 訳 162면 670원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 사서함 680호 진체서울 509570
전화 74 - 6555

본 서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원서를 다량구비하고 있습니다.

— 주석 (COMMENTARY) —

Pulpit (全23권).....	72, 000원
Lenski (全12권)	39, 000원
Wesleyan	27, 000원
Keil & Delitzsch.....	34, 000원
Calvins (全42권)	116, 000원
New Homiletic (全31권)	104, 000원
Barclay	10, 200원

— 성경 (BIBLE) —

King James	(비닐표지) 1, 275원
.....	(보통표지) 830원
N. E. B	2, 000원
R. S. B	5, 080원
Chain Refrence	10, 000원
N. A. S. B	8, 955원
Jerusalem	4, 230원

복음적인

성문서적

광화문 사서함 680호 진체서울 957
전화 75 - 0902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설립인쇄사



주님의 부활이 선포하는 삼대진리

(눅 24 : 1 ~ 12)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 5 ~ 6)

Int. 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 이른아침에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린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주신 천사의 말씀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음성은 세기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 심령의 귀에 은은히 들려온다.

주님은 과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오늘 아침 우리는 자연히 약 이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첫 부활의 아침을 추억하게 된다.

우리의생각은 옛 골고다 산 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던 그 다락방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갯세마베 동산 그런 위기에도 출고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 반역자 유다의 키스. 간악한 대제사장의 뜰과 그 공회. 무책임한 빌라도의 법정등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걸으시는 주님의모습, 그리고 골고다의 세 십자가, 최후에 그 무덤 큰 돌로 막은 무덤이 연상된다.

정의(正義)의 최후승리.

I.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등 모든 악한 무리는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가진 허위나 모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리고 그시체를 내려 깊은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덮은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개가를 불렀던 것이다. 의고는 무덤에 장사되고 불의는 승전고를 울렸던 것이다. 진리는 깊이 땅에 묻히고, 거짓은 大路에 활개를 치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한 이런 일이 오래 계속될수 있겠는가.

부활절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닫혔던 무덤은 열렸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절은 온갖 불의에 대한 의의 온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 선과악, 자유사상과 노예화사상, 광명과 암흑의 세력의 간단없는 투쟁의 마당이다. 때로는 허위가 진리를 악이 선을 이기는듯 하다.

우리 북한동포들은 아직도 유물론 무신론등 거짓사상과 제도 아래에서 신음하고있다.

불의나 암흑의 온갖 죄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느때나 계속될수는 없다. 한 조각 검은구름이 때로는 밝은해를 가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인간의 불의가 의를 일시 이길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의는 반드시 영구한 승리를 얻는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이 가져오는 첫 멧세지이다. 이것이 부활절이 선포하는 첫째의 영원한 진리이다.

II. 生命의 최후승리.

그리고 둘째는 이 부활절은 인간은 죽음이 최후가 아니고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며 또한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다.

나는 일찌기 북한에 있었을때에 어떤 부인의 장례식 주례를 한적이 있다.

그 부인의 아들이 만주에 가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유가족들과 조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하여 결국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아들이 장례식을 마치고자마자 그 집에 돌아왔다.그

리고는 그 어머니 관 위에 엎드려 그 관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어머니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세요” 크게 부르짖었다.

그 애절한 음성이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하다.

“인생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겠느냐” 하는 의문은 읊기이래 인간의 끊임없는 문제이다.

지금은 바로 꽃이피고 새싹이 굳은 땅을 깨치고 솟아나는 계절이다. 옛 글에 “春草는 年年綠, 王孫敝不敝”란 말이 있다. 인간의 최후는 결국은 영원한 암흑인가! 절망인가!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실로 죽음은 人生의 가장 큰 의문이요, 최대의 원수이다. 그러나 한편 인간 심령의 깊은 속에는 영원에 대한 동경이 있다.

英國의 시인 테니슨의 유명한 시구와 같이 “人間은 그가 아주 죽으려고 지음을 받은줄로 생각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옛날 중국의 한무제는 승로반 찬 이슬을 받아 먹었고 일세의영웅 진시왕도 불로초를 구하려 동남동녀 오백인을 삼신산에 보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준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 부활절은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나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부활은 주님을 말씀 하신다.

“내가 살므로 너희도 또한 살리라.”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또한 살리라” 성령은 선언한다.

이 부활절이야 말로 사망과 무덤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이 부활절이야 말로 인간은 다만 혈육뿐이라는 유물론적 견해에 대하여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웅변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Ⅲ. 천국의 승리.

그리고 세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권세를 받으신 전능하신 주님이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王이시다.

이러하신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그 부탁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며 그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 부탁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 우리 민족 오천만 동포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온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걸기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부탁과 같이 엄숙한 약속을 하셨다.

곧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믿는자와 항상 함께 계신다. 평안할때나 괴로울때나 기쁠때나 슬플때나 강할때나 약할때나 아니 살때나 죽을때 항상 같이 계신다.

특별한 복음을 전파할때에 함께 하신다.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탁과 약속을 다시한번 분명히 들을수 있기를 바란다.

이 부탁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사명이요, 이 약속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용기를 더하시며 5천만 복음화운동에 압장서시는 것이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천국의 확포와 그 완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이 선포하는 셋째의 영원한 진리이다. 이렇게 부활절은 정의의 최후승리 생명의 최후승리, 천국의 최후승리를 선포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교회와 또한 온 인류위에 임하셔서 이 땅 위에 정의의 승리. 생명의 승리 천국의 승리가 속히 실현 되기를 기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 : 25]

제 4 세계의 목표

피터와그너 박사

어떤 선교사 단체는 그들의 목표가 제 3 세계 나라들 안에 토착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가치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사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원래의 선교 비전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으로 부터 돌아설때 그리스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제 3 세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 4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살던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고로 제 4 세계에 이르는 것이 전도의 제일 목적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토착교회의 설립이 아닙니다. 토착교회는 제 4 세계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때로는 전도에 대한 원래의 비전을 잃게 됩니다. 선교사 기관의 올바른 목적은 단순히 교회 설립이 아니라 제 4 세계에 접근해 들어가는 선교사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전도기관이 새교회에 그들 자신의 선교비전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기관은 가장 높은 부르심을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간(임시의 혹은 제 2의) 목적들과 궁극적인(제 1의 혹은 최종적) 목적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2 목적은 나쁘거나 혹은 불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뱀스로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과 대구를 경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구에서 뱀스로부터 내렸다면 당신은 최종 도착지인 부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제 2 목적들은 성서번역, 교회직원 봉급, 목사님들을 위한 훈련,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울건이나 피아노 매입, 그리고 아픈자와 가난한자를 위해 심방과 위로하는것 등등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최종적) 목표인 제자를 삼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것들은 다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차이가 뚜렷하다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각 교회가 새신자를 위한 훈련과 전도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새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교회가 제 4 세계로 접근해 들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하(이것은 믿지 않는자로 구성된 제 4 세계입니다)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자소개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목사님은 16년간 볼리비아(Bolivia)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8 권의 책을 저술했고 3 개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파세디나(California, Pasadena)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세계 전도학교의 부교수이며 남 캘리포니아 대학(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주간”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날이나 주간에 일상생활의 어떤 면을 특별히 잘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인줄로 압니다. 때때로 운전수들에게는 “차선을 지키자”라든가 “안전교통 강조주간”등을 실시하며 일반국민들에게는 “불조심 강조주간”“주말을 가족과 함께” 또는 “취잡기날” 등 특별히 강조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특별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1975년 3월 23일~30일까지, 즉 고난주간(부활절전주) 동안 특별 전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 1서 2:2) 그러나 1974년 문화공보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47.4%가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으로 새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책임이며 특권입니까? (고린도후서 5:17)

환경적 박사께서는 “안드레식 전도방법카드”를 만드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 카드를 프린트 하여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는 각 교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도록 권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고난주간에 각 교인이 그들의 친구나 친척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주간을 설정하도록 제창합니다. 평신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설명함으로써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들 모두가 친구나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 주일날에는 자기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도록 권고 합

니다. 따라서 이웃의 가족들도 교회에 초대하여 함께 참석할 것을 권 하십시오.

복음전도를 위한 특별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롭고도 놀라운 관계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를 버려두지 않으며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초신자들에게 단순히 교회참석만을 권하지 말고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서 사랑하고 가르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초신자들이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각 교인이 부활절날에 한사람씩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100% 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강조주간을 통해서 적어도 10%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수가 500명이라면 50명의 새신자를 얻기 위해 기도 하십시오. 만일 교인수가 모두 100명이라면 고난주간동안 특별 전도의 결과로서 10명의 새 신자가 생길 것을 위해서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 하기에 이끄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9)

안드레식 전도카드를 6P면 참조바람

인구폭발(증가)이란 ?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약 40억(1975년현재)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줄로 선다고 상상하면 그 길이가 125만 마일이 넘을 것이다. 이 길이는 실제로 지구에서 달에 두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지구 적도를 50바퀴 돌수 있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다.

대체로 보아 인구증가는

1분에 약 130명

하루에 약 20만명

1년에 약 7,000만명 이상이 증가되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서기 2,000년에 이르르면 70억으로 확대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인구의 증가는

예수 당시 2억 5천만

1650년..... 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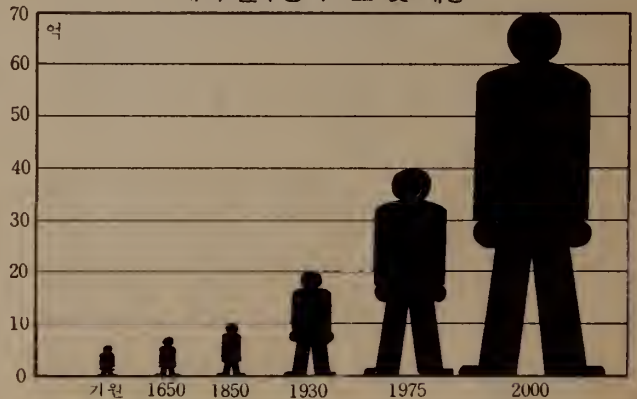
1850년.....10억

1930년.....2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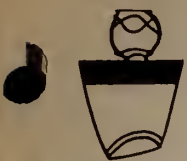
1975년.....40억 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보면,

세계 인구증가도표 및 예상



이러한 증가 현상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생전에 뚜렷히 볼 수 있는 일이며 바로 우리 세대의 현상이다. 이와같은 20세기의 인구위기는 핵무기 보다도 무서운 것이며 이러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급증가를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결교회에 대한 보고서



나 일 선 목사

한국 성결 교회는 1907년 5월 5일 찰스 카우먼 (Rev. and Mrs. Charles E. Cowman) 목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어네스트 길보른 (Rev. Ernest A. Kilbourne) 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세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났고 동양선교회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을 부탁 받았다. 이들 한국인중 한명이 이 명치씨는 1914년에 목사임명을 받았으며 탁월한 성결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1912년 동양 선교회는 서울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1920년에는 서울, 대전, 경북, 경남 지역에 4개 교구가 설립되었다. 1921년에는 교파명이 "복음전도관"에서 "성결교회"로 변경 되었으며 1939년에는 토착화 되었다.

가장 급속도의 성장을 보인곳은 이복, 신의주의 성결교회로서 1,000여명의 교인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성결 교회는 신사참배에 가장 강력한 반대를 취했으며 그 결과로 1943년 12월 29일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교회가 폐쇄 되었고 성결 교파도 해체되었다. 성결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었으며 1945년 해방이후에도 일부는 성결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 동란중 이복에 있는 교회 기록들은 분실되었으나 성결 교회 교인들이 월남하게 됨에 따라 새 교회를 많이 설립하게 되었다. 성결교회 수는 1950년에는 155개였는데 1952년에는 265개, 1955년에는 353개로 1973년에는 740개로 늘어났다. (도표 A 참조) 일반 교인수도 1950년에는 37,000명에서 1952년 (도표 B 참조)에는 65,000명, 1955년에는 85,000명으로 1973년에는 182,000명으로 급속히 증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렵다. 어떤 기록들은 전쟁중 분실되었고 이사간 사람들의 경우, 두번이나 통계속에 넣어 계산하게 되고 교회를 나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명단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사가 체온계를 가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목사님도 교회 성장표와 통계를 통해 교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로 ; 여러 교파간의 통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어떤 교파는 단지 세례교인과 학습교인만을 보고 한다. 그러나 한국 성결 교회와 다른 교파는 새신자(구도인)와 유년주일학교 학생까

지도 포함해서 보고 한다. 1973년 12월 31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국 성결 교회의 일반 교인 182,864명중 44,420명이 초신자였다. (도표 C 참조)

이것은 복음 전도에 전력을 기울인 것을 나타낸다. 1953년은 성결 교회가 요한 웨슬리 (John Wesley) 의 출생 250주년을 맞아 복음 전도에 힘을 기울인 특별한 한해였다. 1963년에는 남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남전도회가 조직 되었다. 1974년 4월 12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날, 즉 고난일)에는 모든 교인이 그해 1월부터 기도해 오던 5명 정도의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했다. 약 1,000,000부의 전도지와 복음서가 배포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금년에는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에 반드시 모든 교인들은 한사람이 약 10명에게 전도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데 있을까? 그렇지 않다. 목표는 그들이 세례교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새신자가 세례를 받게 될때까지 인도하고 가르칠 필요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59,982명의 학습 교인과 새신자중 80%가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교인수는 두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 이것은 아주 놀라운 목표이지만 목사님은 물론 평신도도 충실히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성결 교회가 최근 훌륭한 주일학교 교재를 출간한데 대해 축하를 드린다. 이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큰 도움을 줄것이다. 74,469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결 교회의 장래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며 세례교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 전도와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 할것을 믿는다. 성결교 총회의 목표는 1976년까지 교회수를 1,000개로 1981년까지는 교회수를 1,500개로 늘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1976년까지 성결교회수가 1,000개로 된다면 반수 가량의 세례교인들을 포함한 교인 총수는 230,000여명이 될수 있는 것이다. 한국 성결교회는 일본과 브라질에 선교사를 몇명 파송해서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1969년에는 월남에도 선교사를 한명 파송했다. 주님께서 한국 그

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친구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여러나라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다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대한 비존도 아울러 주실것을 기도한다.

(다음호에는 장로교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소개

저자는 미국 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세계 기독교 선명회의 한국지부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는 학국 교회 진흥원 협동원장으로 수고하시며,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강의 하신다.

저 서 : 교회성장의 원리

도표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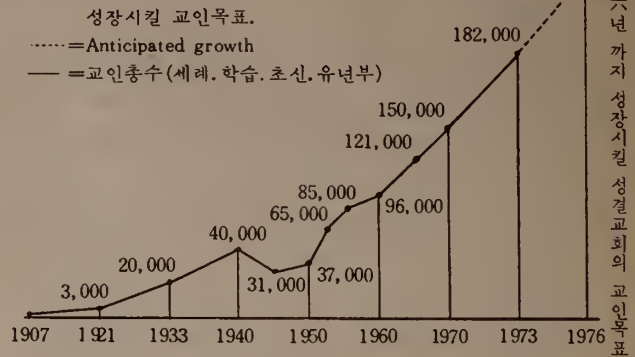


도표 A

성결교회 성장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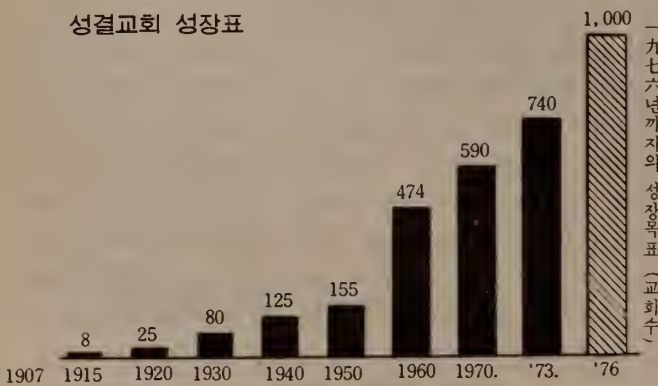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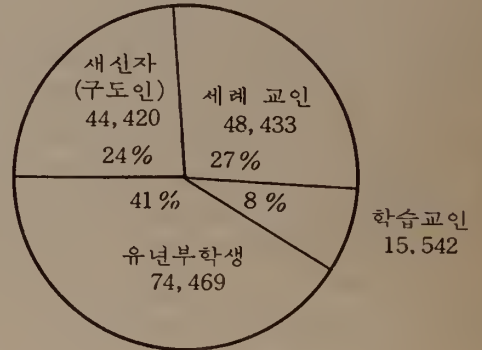


도표 C

교인 비율표

182,864명



소식

- ① 제 8 차 목회연구회 실시 (교목)
기 일 : 1975. 1. 20~24. 52명 참가
- ② 본원, 원장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선명회 창설 제 25주년 기념식에 참석코 현재 미국에 체류중임.
- ③ 홍연호 목사(제 1 차 목회 연구회원)는 거 74. 11. 27일 부터 명지대학교교회로 부임 시무중임.
- ④ 본보를 위해 금 1 봉을 보내주신 손종세 씨(선명회 종교교육부장)께 감사 드립니다.
- ⑤ 본보 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년 6 회 발행에 100원이며 송금은 서울 대체구좌 52329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복음화 운동과 안드레식 전도 방법

우리의 목표는 5천만이나 그 실행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안드레식 전도 방법)

1. 믿을만한 분 1~5 명을 선택하고 위하여 기도할것.
2. 그들과 가까운 친교를 맺을 것.
3. 기회를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할것.
4.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도록 격려할 것.
5. 세례를 받으며 간증하는 신자가 될 때까지 지도할 것.

● 전도대상자 이름 적는 곳

- 1.
- 2.
- 3.
- 4.
- 5.



김찬빈여사

별세

본원 원장 한경직 목사님의 부인 김 찬빈 여사는 오랜 숙환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내와 근면으로 대 영락교회의 창설 내조와 기도와 봉사로 한경직 목사님의 반례로 사랑과 눈물로 고아의 어머니 였던 큰 믿음의 생을 마치신 한 밀알, 우러러 배우며 기리 기립니다.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동태

내일의 한국 사회나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주인인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아닐수 없다.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부녀자나 노약자화 하고 있다는 세론이 강세인듯 싶은 인상이다. 가장 방대한 젊음의 집단체인 군대에서는 전군신자화 운동이 기치를 높이 들고 전도한 보람이 있어 기독교 신자가 50%(1974. 12.)의 강세로 나타나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학원전도 산업전도 청년운동 등 청년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를 결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급한 감이 없지 않으나 과연 한국 교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은 어떠한가를 고찰하고 그 대책을 마련함도 성장하는 교회가 시급히 해야 될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간단한 통계를 제시 하는 바이다.

지난 1974. 11. 25-12. 6. 까지 2주간 실시한 제 7차 목회 연구회중 참석자 40명(도시 17명 농촌 23명)에게 제시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간추려 보면;

1문 : 한국의 신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며 불신자 청년들은 교회와 교회 출석에 왜 관심이 없나?

답 : 1) 지도자의 자질 및 영력부족 33
2)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27

- 3) 자유로운 사교를 원해서 (도락, 운동, 음주, 불신교우) 20
4) 직장관계 (승급, 불신고용주, 리향, 해외진출) 18
5) 먼저 믿는 이들의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위선과 본이 안됨) 13
2문 :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나?

- 답 : 1) 생명력있는 설교와 지도 (영력, 비존, 덕망있는 지도자) 29
2) 청년과의 대화와 이해 (청년특별집회, 상담) 28
3) 다양한(시사성있는) 프로그램 (봉사, 전도, 찬교기타) 27
4)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직장 또는 가정방문, 서신) 18
5) 모든 교회활동에 같이 참여 시켜야 (봉사자, 전도, 집회, 기타) 13

이상과 같은 답을 얻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질문 1에 대한 답의 1과 질문 2에 대한 답의 1의 숫자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의 답은 현직 목회자의 답임을 강조함)

왜 떠나느냐? 지도자의 자질 및 영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력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그외에도 1의 답 5가지와 2의 답 5가지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애하는 목회자 여러분이 단순하고도 자그마한 설문과 답이 1975년도 목회 방향에 좋은 자료와 방향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군 택 목사 보고

❖ 원 고 모 집 ❖

교회진흥회보를 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꾸미기 위하여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원고내용 : ① 목회상 보람 있어 널리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일.
② 목회상 어려웠던 일을 극복 하였던 경험.
③ 목회상 널리 권장하고 싶은 새로운 일
④ 특별히 은혜받은 일.
⑤ 기타, 설교, 수필, 신앙간증, 시



200자원고지 3 매내의 수시로 접수함

연락처 : 우편번호 120 번호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한국교회진흥원

하나님 演技者들

얼 제이비 著
권 혁 봉 訳
46 판
246 면
470 원

본서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본위에서 떠나
십자가 밑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모시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 주고 있다.

創世記의 時空間性

프란시스 웨퍼 著
권 혁 봉 訳
46 판
186 면
420 원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배경을
時空上 창조된 사실에 두고 있는
본서는 그 사실을 성서적으로
절저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불신앙
요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담력을 줄 것이다.

時代点檢과 決断

지 . 비 . 하디 著
46 판
125 면
340 원

본서는 자기도취와 목적없이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決断의 때가 왔다고
외치고 있다.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주의

크리스토퍼 네스 著
강 귀 봉 訳
46 판
132 면
320 원

칼빈주의자인 저자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를
성서적으로 비판한 저서이다.



생명의 말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번지
광화문 사서함 680호 · 진체서울 509570
전화 74-6555 75-0902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구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 성림인쇄사



한 경 직 목사

이사야의 삼관 (三觀)

이사야 6 : 1 - 8

“웃시아 왕의 죽던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하였으니”(이사야 6 : 1)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약 3개월 후 다시 고국에 돌아와 여러 교우들을 반가히 만나게 되니 실로 감사하다. 지난 수개월 간은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다사다난한 기간이었다. 따라서 몸은 외국에 있으나 마음은 고국을 떠날 수 없었으며 언제나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금번 도미하여 처음 1개월 쯤은 좀 쉬고 그후에는 여러 도시에 있는 교포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교회와 교우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지금 미국에는 교포수가 약 20만명이 되며 교포로서 조직된 교회수가 약 200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포의 수가 약 1,000명 내외만 되면 한국 교회가 또한 조직되어 있다.

이번 여행에 감사한 일은 그저 어느곳을 가든지 우리 영락 교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라성에는 라성 영락교회의 여러분들이 모두 고국에 돌아가면 자기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문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미안한 것은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 일일이 다 문안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계신 우리 교우들은 모두 평안히 잘 계시니 안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6 : 1절을 다시 읽는다. “웃시아 왕의 죽던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하여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다.

그가 젊었을때의 어떤 해 곧 웃시아 왕의 죽던해에 그는 보았다고 기록 하였다. 여기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보다도 신령한 눈으로 보았다는 뜻일 것이다. 환상 혹은 영어로 vision을 보았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신령한 눈으로 본것이 셋이 있다.

첫째는—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죄로 더러워진 자기 자신.

셋째는—자기의 할일, 곧 사명·이상 세가지를 보았다. 이시간 이사야의 본 이 세가지 vision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I. “웃시아 왕의 죽던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하였으니”

그는 먼저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과 영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청년 이사야는 그의 신령한 눈으로 우주의 대주제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지자 하박국은 일찌기 선포 하였다.

이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은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신다. 우주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의 바퀴도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 물론 제한된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

로마서 11 : 33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사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3~36)

캄보디아의 참상, 요사이 월남의 사태를 볼때에 우리는 옛날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 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궤환한 자들을 방관 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 하시나이까”(하1:13) 부르짖고도 싶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일시적인 사건 한 둘을 보고 천지의 공의를 잊으면 아니된다.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과같이

“하나님의 멧돌이 비록 천천히 돌아가나 매우 부드럽게 갈아내는 것이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죄악과 비극까지도 초월 통치하여 그의 궁극적인 큰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한 채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채적이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쓴 후에는 꺾어버린다.

이 20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공산세력을 한 채적으로 쓰는 것만은 사실 인듯하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이 세력을 온전히 꺾어 버릴때가 불원간 올것이다. 그리하여 계11: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계19:6절의 말씀과 같이 “할렐루야 주 우리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이 이룰때는 반드시 온다. 신령한 눈을 열어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발하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시62편:5~7절)

II. 청년 이사야는 둘째로 자기자신을 보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 그 자신을 직시하였다. 그리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부르짖었다.

불꽃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자신을 살필때에 그는 그가 얼마나 더러운 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앞에 감히 설 수없는 죄인임을 자복하였다.

거룩하시나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나 그 죄를 회개하고 솔직히 고백할 때에는 사죄의 길을 열어 주신다. 그리하여 그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시어 만민의 죄를 대신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죄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이사야도 회개와 고백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언자가 되기전에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자.

인간은 누구나 남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흔히 남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한다. 남의 생활 주변에서 부정부패는 지적하면서도 내 생활주변의 부정부패는 보지못할 때가 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잘 안되면 흔히 남을 원망한다.

그리고 남더러 그 허물을 고치라고 한다. 어떤때는 성명서도 피차에 낸다. 그리하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그냥 남아있고 사회는 더욱 소란만 하여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각각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불꽃같은 눈 아래에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각각 먼저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이사야와 같이 원통히 회개하여 자기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우선 죄인 하나는 감하여 질 것이다.

우리국민이 누구나 이 우선 죄인 하나를 없이 하는 운동을 펴서 그 자신이 우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사회의 모든 이 부조리의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하나가 우선 내 자신을 바로보고 고칠바를 고치자.

그리고 성경은 거울과 같다.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자신을 바로 볼 수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자기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도록 힘을 써야

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외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이 점에 대하여 먼저 솔선수범 하기로 결심하자.

Ⅲ.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을 바로보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된 청년 이사야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는 이 음성을 통하여 자기의 할 일 곧 사명을 분명히 보았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고저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생의 할 일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바로살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일생의 할 일 그 사명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 이 천부의 사명을 바로 보는이가 성공하고 또 가장 행복스럽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고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찾아야 한다. 특별히 청년과 학생들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목적을 위하여 각기 재능을 주신다. 그 재능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 일생의 할 일을 바로 택하여야 한다. 나의 할 일을 바로 보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바로 보며 기회를 바로 찾아 일할 줄 알아야 한다.

일생의 할 일을 바로 찾은 후에는 그 일에 충성을 다 해야한다. 내 역량의 50%, 60%만 하지 말고 요새말로 100% 바쳐서 일 하여야 한다.

옛 성현은 일찌기 말하였다.

나라가 잘 되려면 君君, 臣臣, 父父子子라고 하였다. 임금은 임금노릇 잘하고, 신하는 신하노릇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노릇 잘하고, 아들은 아들노릇 잘 하라고 하였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 각자가 자기 책임을 잘 하는데 있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인, 각계각층 공무원, 경찰, 군인…… 하나하나가…… 반성과 충성해야 하며 교회가 잘 되려면 제직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기반성 책임을 분명히 보고 잘 하는데 있다. 물론 중한 책임자리에 있는이 일수록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고칠 것을 고치고 자기 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비상시혹 위기에는 사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동단결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각각 나의 할

일을 바로 보고 충성을 다 해야한다.

성경은 경고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마땅히 깰 때라” 누구나 지금은 깰 때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때야 말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때이다. 마귀는 언제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종교적인 형태, 곧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또 하나는 사회적 정치적 세력, 현대에는 악한 공산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느때 보다도 근신해야 한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왜?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말하나 우리 원수는 이것을 역 이용하여 자기들의 무기를 삼는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원수의 각방면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침투도…… 우리는 더욱 이럴때 일수록 믿음을 굳게하고 대동단결하여 원수를 대적하여야 한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하는 기도가 시편에 있다. 우리는 이 때야 말로 이사야와 같이 신령한 눈이 열려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내자신을 바로 살펴 고칠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보아 어디서나 충성을 다하자.

대만에서의 효과적

복음전도의 새로운 방법

알렌·스완슨 목사

대만교회진흥원직원

대만에서의 효과적 복음 전도의 새로운 방법

이 교회는 독립적인 회중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아무런 전도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서 대만의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으며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최근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중의 일부는 문맹자이며 대부분은 일반 노동자들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사회 내의 사람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그들 고유의 종교를 도시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핵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가장에게 잘 순종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목사는 1967년 부터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당시에 아무와도 접촉을 갖지 못했

입니다. 세계의 다른 큰 교회들도 이곳에서의 전도를 시도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침투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적, 방법론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이 목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병이난 가정을 찾는다.
2. 그 가정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3. 가장 미신적인 사람들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는 좋은 암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되기전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차지도 덤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청년들을 위한 전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는 커녕 그들의 믿게 됨으로 부모님들로 부터 핍박을 당하며 집을 쫓겨 나오는 경우도 생겨 장차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
5. 어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만일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자격

이 없다고 느낄때는 자녀들을 교회 목사님께로 데려오도록 권한다.

6.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정을 가족 전체가 하도록 한다. 다수의 희망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7.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그가 비록 글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예배중 공중기도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8.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아무리 가난 하더라도 할지라도 성경적인 십일조의 원칙을 즉시 시도하도록 가르친다.
9. 어떤 가족이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집에 있는 모든 우상과 부적을 없애 버리기 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10. 누구든지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봉사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각 교인의 유익을 위하여 '7' 위원회를 둔다.

1967년 중반의 첫 개심자를 선두로 첫 4년간의 이 교회의 성장은 다음의 통계로 알 수 있다.

교회 사역의 시작년도	1967년
총 성인 세례자수	48명
현재까지의 총 유아세례자수	36명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 수	60~120명
가족 수	34명
전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가정수	30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할까요?

나일선 목사

1907년, 한국 장로교회가 토착화 되었을때 장로회는 이 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의 제 1회 졸업생 7명중 한명이었습니다. 이 목사를 선교사로 선정한 이유중 하나는 마펫(Moffett) 선교사가 평양에 왔을 때 들을 던졌던 자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때 전도를 위한 특별 감사헌금이 주어졌습니다. 제주도에 파송된 이 목사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5개의 다른 교파에 속한 8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내에 많은 한국 선교사가 아시아의 여러나라에 가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선교사선정 문제, 선교사의 재정 지원문제, 어떤 기관에서 그들을 파견해야 하는가, 어느나라에서 그들이 일해야 하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종류, 누가 그들의 사역을 감독할까, 그들이 그 나라에 얼마동안 머물러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제안을 편지를 통해 저에게(진홍원 협동원장) 주실것을 이 기회를 통해 부탁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만이 아니고 아시아와 세계 여러나라의 교회 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제안들은 세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

—에이·알렌·티벳—

“자기일은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하도록 하는 현대의 풍조와 더불어 선교사들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에이·알·티벳 박사는 이것에 대해 다음의 4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향군 반공교육자료 시리즈 ④〉

国土統一院

統一研究所 李讚九

당 원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향목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으로부터 향군반공교육자료 지원 요청을 여러차례 받아 오던중, 마침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 계신 国土統一院 統一研究所 李讚九 教授의 협조를 얻게 되어 격월(隔月)로 6회에 걸쳐 교육자료를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75년 제 4호에는 이미 앞서 예고드린 바 있는 연재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현재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인도지나事態와 關聯하여 특집으로 “인도지나 사태와 남북관계”를 신기로 하였습니다. 시의를 중시한 결정이오니 헤량하심 바랍니다.

〈編輯者 白〉

◇ 緒 論 ◇

지난 4월 17일 크메르는 공산반군에 항복하였고 21일에는 티우 월남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월남의 운명도 풍전등화격이 되는데 이어 라오스 역시 월남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이 거의 명백해지므로써 인도차이나반도는 모두 赤化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1949년 中國이 공산화되자 이에 고무되어 그 다음해(50)년에 남침했던 북한의 김 일성은 지난 4월 17일 크메르가 항복하자 그 다음날(18일) 중공을 방문한 바 있다.

인도지나의 비극은 김 일성에게 새로운 오산을 범할 계기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에 인도지나의 비극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비취보고 미리 단도리를 함으로써 김 일성의 대남오산(對南誤算)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인도지나 비극의 요인 또는 패전의 원인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排他的 民族感情이다. 기원전 214년 진시황의 침략을 받은 이래 기원후 140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千六百余年동안이나 中國의 압제와 지배를 받아오다가 1407년 자주독립을 쟁취한 후 약 200년 동안은 중간에 20년동안 다시 中國의 지배를 받은 것 외에는 비교적 외세의 침략을 받음이 없이 그런대로 자주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1626년에서 1941년에 이르는 300

余年동안은 다시 프랑스의 영향하에 있었고 이 기간 중 마지막 80년은 프랑스의 본격적인 탄압과 식민통치하에 있었다. 1941년 프랑스의 인도지나에 대한 통치권이 일본에 이양되었으나 1945년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들어 올 때 프랑스가 다시 개입함으로써 反法감정을 지녀온 인도지나 주민들의 눈에는 해방군인 미군에 대해서까지도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세력의 새로운 등장일 뿐 결코 벗일 수 없다는 식으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이것은 미국과 우방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나반도의 자유세력이 패배하게 된 그 첫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원인은 自由민주주의政治「이데오로기」에 대한 理解 및 體驗의 不足에 있다고 본다. 自由民主主義政治「이데오로기」는 오랜 기간에 걸친 君主와 臣民간의 정치적 대결과 타협의 소산이며, 이는 주로 외침의 위협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지역국가에서 발달하였다. 君主와 臣民간의 대결이 대부분 臣民의 목숨을 건 치열한 대결이었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쟁취한 自由市民은 民主主義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기를 주저치 아니한다.

인도지나반도는 君主와 臣民간에 統治權의 制限과 基本權의 伸張을 爲한 정치적 대결을 벌일 만큼 对内·外的인 여유를 갖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 지역의 臣民은 外勢에 시달리는 君主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며 그들 君主政治의 扶持를 위해 외세와의 투쟁도 불사했기 때문에 1945년, 일본을 몰아내면서 들어온 美國이 가져다 준 自由民主政治「이데오로기」를 크게 반감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반감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근세에 장기간 식민통치를 자행해 온 프랑스가 역시 자유민주정치 체제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상당수는 미국의 민주주의까지도 제국주의의 다른 새로운 형태일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은 짙다. 이것은 인도지나반도의 비극의 두번째 원인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세번째 원인은 지도자의 정치적 카리스마의 결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유능한 지도자의 리더십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노르둠·시아누크는 19세에 캄보디아王國(지금의 크메르)의 王位에 오른 후 지금까지 무려 30여년 동

안이나 “임금”으로 행세해 왔고, 호 지명은 安南国(지금의 남·북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바오다이 황제가 외세 특히 프랑스의 지배하에 유린당할 때부터 젊은 나이로 강력한 反殖民족주의 투쟁을 전개해 온 경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지나반도의 주민들에게는 시아누크, 호 지명이, 론·놀이나 티우 보다는 더 위대하거나 애국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론·놀이와 티우가 이끄는 자유세력이 패배하게 되는 데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번째 원인은 그들 内政의 腐敗에 있다고 본다. 그들의 내정은 마치 부패의 온상 또는 상징인 것처럼 널리 알려져 온 바다.

体制는 弱해서도 안되지만 썩어서도 안된다. 썩으면 강해도 실은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독재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公意形成을 어렵게 만든다. 전쟁마당에서 부상당한 장병을 후송하는 데 있어서 까지도 장교는 10달러 사병은 4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선불해야만 후송 헬리콥터에 실려질 수 있었다하는 바, 이려고서야 어찌 전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다섯째 원인은 미국의 사후관리의 불철저에도 있다고 본다. 73년 1월 휴전을 성립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침을 당할 경우 다시 막아주겠다는 요지의 미월 상호방위기본조약도 체결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공산측이 휴전협정을 사실상 명백히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중부고원을 침략해 올 때 미국해군 또는 공군이 하노이를 북폭했다면 월남의 전황이 저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지도 않았을 것이요 대응보복전략체계를 일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미국측에 불리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세만회를 위한 추가원조의 지원마저도 거부한 채 티우의 사임을 요구했고 티우가 사임한 뒤에는 사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외면하면서 미국민간인의 안전한 철수에만 관심을 표시해 왔다. 미국의 이같은 무성의한 태도 역시 인도지나 패전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다섯가지 외에도 패전의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약하기로 한다.

이같은 5대패전원인 또는 비극의 요인은 그 자체로서 그들 인도지나사회의 5대모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김 일성의 對南誤算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단도리 해야할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과연 없는 것일까.

편의상 인도지나 5대모순을 항목별로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 경우와 대비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사후관리는 일단 인도지나와 구별된다. 휴전을 반대하던 우리 정부에 대해 휴전후 재침을 당할 경우 공동대처하겠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지상군이 휴전이후 지금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다. 월남의 경우처럼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 북괴의 대남유격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전휴전에 대한 사후 관리는 조건前提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정의 부패도 인도지나의 경우와 구별된다. 부패 부조리 추방운동을 대통령자신이 강력히 요구하는 체질은 건강한 체질로 일단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리더십도 그러하다.

한 마디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는 김 일성의 경우 남한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마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김 일성과 우리쪽 대통령간에는 리더십을 비교할 의미조차 없다. 6·25남침으로 살육을 감행한 김 일성을 존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세요한 보다 크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한다. 남한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북한의 김 일성 보다는 선량하다는 논리도 성립할 것이다.

자유민주정치「이데오로기」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의 부족은 인도지나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흡사하다.

인도지나가 1945년 미국의 승리로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때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정치「이데오로기」를 선물받았듯이, 한국도 1945년 미국의 승리로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때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정치「이데오로기」를 선물받았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時期와 條件 또는 狀況이 거의 같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쪽이 교육수준이 높고 6·25 경험을 통하여 반공사상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인데, 그러나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사회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고 小数 6·25경험세대중에도 소득분배문제와 관련, 체제옹호의 적극적 의지가 약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의 부족은 인도지나의 경우에서처럼 효율적인 대공투쟁과 체제수호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배타적인 민족감정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국민은 미국에 관한 限 인도지나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를 돕는 행위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분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데오로기」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의 不足, 서정쇄신작업의 成敗문제, 社会混亂과 관련되는 미군철수문제 등이 라고 볼 것이다.

金日成이 얻어 낸 中共·北傀간의 공동성명은 인도지나사태를 고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괴가 소위 對南人民革命을 추진할 경우 中共이 스스로 美軍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북괴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력안보체제의 구축과 그의 선행조건으로 되는 국론통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선교 백주년기념

1 만교회운동을 전개한 합동측 장로교회

장노교신대(합동)교수 김 득 용

동방의 적은 고요의 나라인 한국에 복음의 빛이 전파된지 1백년을 기념할 선교 백주년을 앞에 두고 있다. 그 동안 복음의 씨앗이 발아되어 성장을 거듭한 한국 장자 교회의 사명을 가진 장로교회는 크게 이땅에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성취시키었다. 그중 장로교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 합동측 총회 산하 교회 성장을 과거 10년간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 10년간의 성장과정을 논하기 전에 1955년 통계를 보면(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전) 교회수가 2061교회이고 교인수가 550, 853명 이었다.

1960년 분열당시 약 1,400개 교회로서 합동측은 출발하게 되었다. 여하간 그 때는 대략 수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교인수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통합측이 주장하는 통계가 220,000명 이었다. 그후 65년부터 74년까지의 10년간의 성장의 역사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65년에는 1,650개 교회와 375,350명의 교인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74년에 이르러서 2,250개 교회와 608,905명 교인으로 증가된 현상을 발견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성장률은 37%를 나타내었고 교인 성장률은 59%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교회의 성장률은 교인의 성장률 보다 22%나 적게 발전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동측 교회가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기 보다 자체 교회 성장에 힘을 쓴것을 엿볼 수 있다. 75년도 금년 교인 중에 세례교인 222,630명(36%) 유아세례 수세자 41,205명(7%) 학습교인 60,270명(10%)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원입교인이 291,895명(47%)이다. 이것을 볼 때 세례를 받은자 보다는

원인 교인이 11%가 더 많은 것은 전도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교회 성장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무언의 응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주일 학교 학생 분포도를 보면 어린이(유년부)가 38%를, 중 고등부 17%, 대학부 7%, 장년부 23%가 등록되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일 학교에는 15%가 불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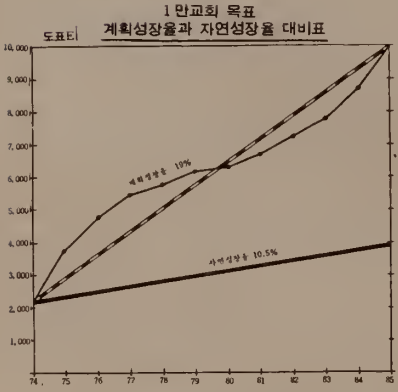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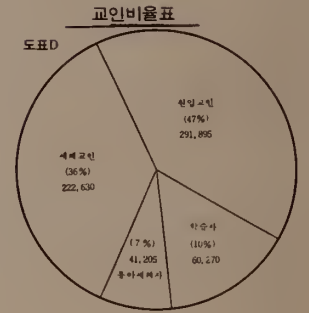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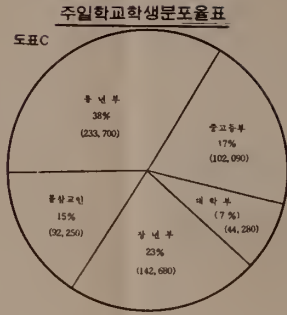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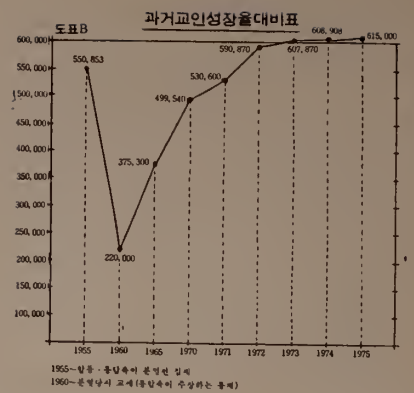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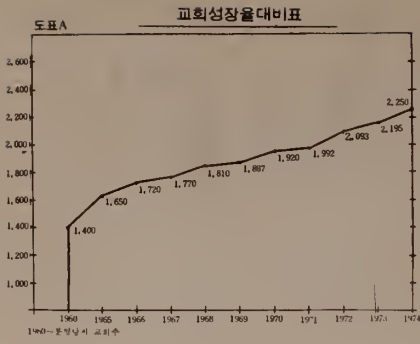
결국 이것은 교회의 성장은 주일학교 교육에 의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주교 교육은 장년보다, 십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위해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언하면 교회 성장이 주교 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요소의 하나인 주교 교육을 절대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앞으로 10년간의 교회 성장의 계획을 논해 보고저 한다.

합동측은 선교 1백주년 기념으로 1만 교회 성장 운동을 교단 자체의 자연 증가률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다음 금년부터 차분히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 교회 운동 제 1차년도인 75년도에는 700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교회와 합한 3,000교회가 된다. (도표E, 9참조)

성장의 해인 75년에는 모두가 참여 하므로 자연 성장 200, 계획 성장 200, 특수 성장 200, 현재 개척성장 100을 합하여 700교회가 된다. 이와같이 10년간을 계획적으로 전개하면 성공적으로 1만교회 운동은 이루어 질것이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인구 증가률은 연간 2.2%내지 2.9%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45년에서 2,000년대 까지 증가되는 증가률은 매 10년마다 거의 30% 내지 32%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만일 현재까지의 교회의 자연 성장률 10.3%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1985년에는 자연 성장과 계획성장 및 특수 성장계획에 의해 1만 교회 운동이 성공될 것으로 믿는다.



1.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약 2억의 인구가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보된 사상들을 찾고, 생각하며, 시험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도 이러한 사상중의 하나로 선택되어 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2. 기독교인의 책임면에서 볼 때
 우리는 “갓인자와 갓고 있지 못한자”란 옛날부터 있는 질문에 봉착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영적 축복을 나누어줄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3. 성서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을 구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및 “모든 족속에게” 대한 “지상 명령”을 “세상끝날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태 28 : 18-20)
4. 인간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명령(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 : 13-15)
 그리스도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 : 14-19)

진 흥 원 소 식

1. 한경직 목사님, 3개월에 걸쳐 해외에 다녀 오셨는데 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스, 뉴-욕, 또한 귀로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전도집회를 하시고 4월 23일 귀국 하셨습니다

2. 영화 전도반은 전북지역서 5월 7일부터 약 1개월간 상영함
3. 한경직 원장님, 5월 7일 진해의 육군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하셨습니다.
4. 4월 23일 서울 구치소에서 암송대회 실시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한 경 직
편집인: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회 발행
서울서대문구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성림인쇄사



한경직 원장

비상시와 성도의 자세

빈전 4 : 7 ~ 11
5 : 8 ~ 9

『근신하라. 깨여라. 너희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5 : 8 ~ 9]

여기 “너희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경고한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다. 마귀는 역사적으로 흔히 두가지 형태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하나는 종교적인 형태로써 또 하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세력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종 거짓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형태의 악마의 준동을 찾아본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나 사실은 그리스도 보다 자기자신을 높이며 그 사생활은 언제나 복잡한 여자관계로 불미한 추문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소위 신도들을 통하여 금전을 착취하여 치부를 일삼으며 언제나 시대에 영합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그 세력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리고 악마의 둘째 형태의 표현은 이 20세기에 있어서는 물론 공산주의 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붉은 용의 세력 그대로이다. 이들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에게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 하면서 이러한 악한 사상으로 세계정복을 꿈꾸고 있다.

그 근본이 허위임으로 그 선전 방법도 역시 기

만정책으로 일관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묘하게 좋은 말들을 사용하나 실상 그 뜻은 정반대로 이용한다. 가령 현재 이북 북괴집단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한다. 여기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수 있는가? 전혀 없다. 북한에는 오직 독재주의가 있을뿐이다. 또한 북한에 공화국이 있는가? 오직 전제국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말을 사용한다. 문자 그대로 “양두구육”으로써 대문간에는 양의 머리를 매달아놓고 속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이들도. 이 말 뿐이 아니다. 다른 말들도 그렇게 한다. 그들의 해방은 노예화를 의미하며 그들의 평화는 전쟁을 의미하며 그들의 교육은 세뇌작용을 의미하여 그들의 토지분배는 토지몰수를 의미하며 그들의 신교자유는 교회말살을 의미한다.

그들이 자유민주국가를 침략하는 전략은 먼저 침투작전이 선행된다. 각계각층에 비밀히 침투하여 불평불만을 이르키며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사회를 분열시키며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과장 선전하며 온갖 수단을 다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며 데모등 민중봉기를 획책할 뿐더러 그러한 기회를 타서 온갖 폭력행위를 감행하여 사회질서를 파괴코져 획책한다.

그리하여 소위 그들이 말하는대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일거에 대침략을 감행하고자 하는것이다.

월남 사태이후 이들은 더욱 그들의 남침야욕에 불타서 모든 병력을三八선에 집중할뿐더러 땅굴까지 파놓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냉혹한 정세하에서 우리 신도들과 또한 일반국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질것인가?

베드로전서 四장 七절로 十一절까지와 그리고 五장 八절과 九절에 사도베드로는 분명히 몇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I. “근신하라, 깨여라,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신다. 이때야 말로 자다가 마땅히 깰때이다. 자다가 도적 마른 사람들이 많다. 자다가 나라를 도적 맞아도 안되겠다. 자다가 영혼을 도적마쳐도 안되겠다.

지금은 마땅히 잠에서 깰때이다. 깨여서 믿으며 깨여서 일할때이다. 우선 모든 물욕의 잠에서 깨여

야 한다. 요사히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모 불철 기업의 사장은 딸라를 四五〇〇〇불이나 방속에 감추어 두었다느니 또 모모 회사 사장들은 외화를 여러만불 외국에 유출하였다느니 거이 매일같이 떠돌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것은 나라가 있어야 재산도 보호가 된다. 우리는 이복에서 된 일을 벌써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아끼던 재산이 어떻게 될것인가? 실업인 또는 부유층은 크게 걱정할때이다. 다 바쳐서 먼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사회상을 보면 아직도 온갖 퇴폐 풍조, 사치, 허영, 향락, 정욕 곧 죄악에 잠든 이들이 너무나 많다. 각계각층에 추문이 너무나 많이 들린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는 머리를 깎아주고 두눈알이 뿔히고 망하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는 벨사살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심지어 성전의 기명까지 내여다 술을 마시다가 나라가 하루저녁에 망하였다는 일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거리에는 파리에 서나 뉴욕에서도 보기도문 사치한 의복차림의 젊은이들이 날개를 치고 다니는가 하면 아직도 소위 빠—니 카바레나 나이트 클럽에는 술취한 남자로 넘치는 모양이다.

우리 믿는 신도들 가운데도 사치한 이들이 많다는 세평을 받고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회개하란 말이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때에 일대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 있겠는가?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분쟁, 분열등 온갖 정신적인죄를 회개할때이다.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겸손히 내생활을 반성하며 회개할때가 아닌가?

Ⅲ. “기도하라”고 하셨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할때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동반하는 기도를 반듯이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도의 사명이 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다.

우리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할것이나 우리 믿는 이들은 한가지 더 할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기도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짓는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다. 우리 국군 장병이三八선을 지키고 있거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

야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앓수르왕 산헤립의 군대 十八만五천명을 하루밤에 기적적으로 몰살시킨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야 하겠다.

Ⅳ.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신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힘쓰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첫열매는 사랑이다.

여기의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또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十三장에 설명하여 주는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다. 곧 친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빌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피차에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면 자연히 거기는 화평이 깃들인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화평이 있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나라는 그안에 또한 화평이 있다. 옛날부터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집이 화평하면 모든일이 이루어 진다. 교화만사성이다. 교회가 화평하면 일만가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국화만사성이다. 나라가 화평하면 모든일이 자연히 성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상시기야 말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안에서의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시정할때에도 가급적 조용히 피차에 충고와 성의로 해야할 것이다. 우리 신도들은 이러한 위기에 실로 국민총화의 핵심이 되어야 할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총단결하면 북괴가 감히 남침의 야욕을 시도하지 못할것이다.

Ⅴ.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권고 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시요 인간은 한 청지기뿐이다.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임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않고 언제나 주인의 뜻을 살피서 해야하고 또한 말은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청지기는 언젠가는 자기 한일에 대하여 총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성경말씀대로 곧 심판을 받을때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부터 시간과 재능과 다소를 불구하고 물질은 받은 청지기이다. 우리는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봉사해야 한다. 어느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아니하리오 마는 특별히 이러한 비상시에는 우리가 어느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받은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쳐 봉사할때가 아닌가!

옛 성현도 말하였다. 나라가 잘 되려면 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를 잘 지키려면 위정자는 위정자의 책임을 잘하고 국민은 국민의 책임을 잘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였 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때이다. 반석

양서추천

마 삼락 추천

현재의 기독교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혹은 기독교 교회의 장래 희망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가장 훌륭한 책중의 하나는 랄프·디·윈터 박사 저 "The 25Unbelievable Years"이다. 이 책은 "선교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장로교 신학대학 선교회에 의해 출판 되었다.

이 짧은 책에서 흘러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인 윈터박사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범세계적 기독교 선교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가지 놀랄만한 사실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이교주의가 세계를 휩쓸것 같이 보이는, 그리고 회의 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쇠퇴와 심지어는 그 파멸을 예언하는 시대에, 기독교 교회는 실제적으로 성장하며 전의 어느때 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숫자와 도표와 고무적인 통계자료가 풍부히 들어있어, 종국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60년 동안 비 서방세계의 신교도인의 숫자가 18배로 증가 된 것이다. 모하벳교로 거의 빠져들 것 같이 보이는 아프리카는 오히려 2,000년대 까지 아프리카인의 50%가 그리스도인이 될 듯한 추세로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서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신교도 들의 숫자는 단지 25년 동안 10배로 증가하여 1945년에 190만 이던것이 1970년에 1900만으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전세계에 퍼진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의 숫자는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중 상당한 수의 선교사는 현재 제 3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이다. 윈터 박사는 기독교는 현재 어느때 보다도, 어느 다른 종교보다도 확장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기독교는 이전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때 보다도 유럽지역 밖의 인류에게 더욱 넓은 효력을 미치고 있다.

500원 밖에 안되는 이 책이 최근 전세계의 신문들 가득 채우고 있는 실망적 뉴우스로부터 밝은 소식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철석같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한다.

공산당의 세력이 전인도지나 반도를 지배하게 될에 많은 군소 자유국가들이 큰 공포에 빠진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기억할것이 몇가지 있다. 이미 말한대로 공산주의는 허위의 사상을 기초로하여 기만술로 많은 사람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허위란 오래 가지는 못한다. 한조각 검은 구름이 일시는 청천백일을 가리울수는 있으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또 악이란 그 자체안에 파괴의 힘이 잠재하고 있다. 마치 암처럼 처음에는 두드러지나 결국은 그속이 썩어진다. 현재 중소관계의 악화도 우연이 아니다. 스스로 파괴의 징후가 아닌가! 20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자유국가에 대한 한 책적으로 쓰시는 것만은 사실인듯 하다. 그러나 책적이란 항상 쓰는것은 아니다. 다 쓰신후에는 꺾어버리신다. 제 생각에 이번 월남에서 마지막으로 쓰신것이 아닌가 한다. 반듯이 꺾어 버리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맷돌이 비록 천천히 돌아가나 매우 보드랍게 갈아낸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역사의 바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한다. 공산당의 말로는 미리 엿볼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와 사상은 반드시 망하고야 한다. 안중근의사가 처형되기 직전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다. "우리나라가 회복될때에 내유해를 조국땅에 옮겨다 물어달라" 그 유언은 우리가 아

는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때에 안의사가 어떻게 그런말을 남겼는가! 그 당시 국내정세나 국제정세로 보아 한국은 다시 독립할 희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안의사는 그러한 때에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였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곧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왔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는 필승의 신념에서 왔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모두 이러한 굳은 신앙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이다.

결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자.

1. 근신하라. 깨여라. 정신을 차리라.
2. 기도하라.
3. 서로 사랑하라.
4.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선한 청기기로 서로 봉사하라.
5.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향군 반공 교육자료 시리즈 ⑤〉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教授 李讚九

當院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항목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북사님 여러분으로부터 향군 반공교육 자료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부응하는 뜻에서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李讚九 教授의 협조로 금년 6회에 걸쳐 교육자료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사색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번 호에도 예고된 순서와 무관하게 시의에 맞도록 특집으로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과 對南威脅의 構造分析』을 다루게 되었아오니 헤랑하심 바랍니다. 〈編輯者 主〉

◇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 ◇

김 일성의 현재 정치적 입장은, 한마디로, 南韓亦化의 失敗가 자신의 破滅로 되고 亦化의 成功이 그 破滅로부터의 救濟로 되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그는 그의 생존시에 남한적화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치명적 패배에 직면하게 되고 성사시킬 경우에는 그 패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의 패배는 휴전선 이남지역에서 그를 한민족 5천년역사의 최대의 전범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돼 나가리라는 점이다. 6·25남침으로 3百萬의 동포를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고 그 보다 더 많은 수의 미망인과 전쟁고아를 만든 김 일성의 행각으로 볼 때 그를 전범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에서 우상화, 신격화되어 온 김 일성에게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번민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 속된 말로, 이대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심정일 것이다.

또 하나의 패배는 생존시에 남한적화를 성사하지 못할 경우 김 일성은 북한지역에서 마저 열렬한 공산당원에 의하여 가장 무능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받게 됨은 물론 생전의 우상화되었던 모든 권위와 위신이 무자비하게 파괴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김 일성은 6·25 남침을 통하여 북한공산집단에게 치명적인 피해만을 강요한 바 있는 것이다. 38선에 비금하는 휴전선을 그어 주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어내지 못한 반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치명적인 피해를 차조했던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원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반격복진했을 때 후퇴하지 못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원들이 많이 처형당했던 것이다.

둘째는, 인민군대가 대부분 처형 또는 전사했다는 사실이다.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그들 군사조직의 골격은 대부분 파괴되었던 것이다. 휴전직전에는 미성년자들까지 전쟁터에 동원했던 사실이 이 점을 잘 말해 준다.

셋째로, 남노당의 지하조직의 뿌리까지 뽑혔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 세력이 남아 있었다면 체계전복이 보다 더 용이했을 것으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째로, 5백만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해방직후 월남하지 못하고 북한 땅에 묶여 있던 동포들이 우리의 반격에 의해 월남의 기회를 얻은 바, 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동원될 방대한 노동력의 대규모 상실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큰 피해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국민을 철저한 반공국민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전면남침이라는 현실을 목도, 체험한 우리국민은 동족을 학살하는 그들의 잔인무도한 태도 앞에서 자유체제 사수의 결의를 조직화할 수 있었고 반공의지를 보편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金日成은 외세와의 대결이라는 명분으로 투쟁을 전개했던 호 지명파도 크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소련, 중공등 외세의 사주를 받고 동족을 살해했고 또 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족의식문제로 번민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있을 경우 김 일성을 비판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다.

여섯째, 국제사회에서 북한공산집단이 전범집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북한의 기간산업과 주요시설 및 군사기지의 파괴이다. 우리가 혜산진까지 반격해 올라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1953년 휴전이후 60년대 중반까지의 십여년간은 그들에게도 전후복구기간이었고 이것은 김 일성의 무모한 오산이 낳은 자업자득의 필연적 결과라 할 것이다.

위의 모든 피해는 김 일성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채 남침을 명령했던 결과이며 더욱이 박헌영의 “현지투쟁”의 성과(?)를 질투한 나머지 공적다툼을 위해 저지른 무모한 불장난의 결과라는 점에서, 열렬한 공산당원일 수록 이를 용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김 일성이 남한 적화에 실패하고 이같은 피해의 결과만을 북한공산집단에게 강요한 이상, 그는 1953년 7월 27일 휴

전횡정이 조인되던 날 사살로 당(黨) 앞에 숙죄였거나 탄핵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대부분의 공산당원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박 현영에게 책임을 묻고 끝내려하자 당시 북한공산세력의 人宗을 이루고있던 연안파 간부들은 김 일성의 지도노선에 반기를 들은 바 있고 중간에 이 움직임이 적발되어 연안파의 거두였던 김 두봉 씨 창익등이 宗派主義者라는 이유로 재거된 사실도 있다.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령군인 소련군이 장차중소분쟁을 의식하여 중국에서 활약한 연안파 세력을 권력의 좌에서 소외시켰으나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김 일성의 전면남침의 정치환경조건이 성숙된 이후 우리의 반격북진을 중공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연안파 간부들의 지위강화는 휴전과 함께 김 일성 지도노선에 대한 저항을 가능하게 하였다. 1956년에서 1958년까지의 기간에 연안파의 거두급과 그 동조 세력을 거세, 전제하는데 성공한 김 일성 일파는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안파의 중견이하 간부들을 출신은 좋으나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요직에 기용하지 않고 요직은 친족으로 보하는 족벌정치체제를 강화해 오므로써 연안파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공산당원과 주민들의 불만을 심화시켜 왔기 때문에, 김 일성이 대남적화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 생전의 부하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비판과 격하를 당할 것은 거의 틀림없으리라고 본다. 스탈린은 2차대전에서의 승리를 안겨 준 소련공산사회의 큰 공로자였는데도 독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후에 무자비한 비판과 격하를 당했는데, 하물며 6·25남침의 실패로 저토록 처절한 패배를 북한공산집단에게 안겨 준 金日成의 경우에 있어서랴…….

한 마디로 김 일성이 죽은 후에 등장할 새로운 집권세력은 김 일성의 죄과를 규탄하고 단죄하지 않으면 자신이 승계한 정권의 새로운 통치기반 구축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김 일성이 자기의 어린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하여 일종의 세자책봉질차를 끝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자식이야 애비의 시체에 침을 배알으려 하는 처절하리만큼 소박한 뒤틀린 父情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부자체제가 추구하는 남한적화의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할 경우 김정일까지도 지위가 흔들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김 일성 자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남침에 성공할 경우엔 상황이 뒤 바뀌게 된다. 남

한에서는 6·25남침은 민족해방전쟁이었고 미제국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의 방해로 인해 실패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들의 유물시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역사기술을 해 나가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모든 사실기록을 불태워 버린 후 이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는—이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용기있는지 성인이 몇이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지만—모조리 제기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불만을 품고있는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에게는 남한지역에서의 출세기회를 허여하므로써 북한에시의 자신이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일성 스스로 생각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남한적화의 실패가 자신의 파멸로 되고 적화의 성공이 그 파멸로부터의 구제로 되는 것이 김 일성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같은 金日成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北韓學의 總論 第一章 第一節이라 하여 무방할 줄 안다. 즉 북한의 모든 문제에 관한 연구는 김 일성의 이같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찰을 선행조건으로 삼지 않을 경우 도리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지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 對南 威脅의 構造分析 ◇

김 일성은 현재 인도지나 사태를 보고 고무되어 武力南侵 야욕을 다지고 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무력남침의 방법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全面戰이요 또 하나는 局地戰이며 마지막 하나는 遊擊戰이다.

분석해 보면 全面的은 軍事戰이요 遊擊戰은 政治이다. 全面戰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유지되는 한 공격을 가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제약을 지닌다. 북한은 민간전력까지 중무장이 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미군이 주둔해야만 민간전력의 부족을 메꾸어 남북군사역량이 同等하게 균형을 이룬다. 즉 현재는 남북군사역량이 균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遊擊戰은 힘의 균형 아래에서도 상대방 사회에 무장요원을 투입하여(이 경우 그들은 무장요원의 투입을 부인한다.) 상대방 사회를 운영하는 정부의 통치기능을 마비시켜 힘의 균형의 파괴(Unbalance of power)를 유도해 내는, 이를테면 정치역학관계를 이용한 특수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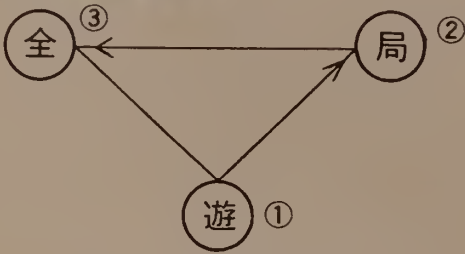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면전 보다는 유격전을 먼저 감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김 일성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짙다. 대규모의 지하「터널」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상황여하에 따라 대규모의 비정

구전까지도 가능하도록 지하 「터널」을 열 일곱개나 파고있다는 사실도 경계해야 한다.

유격전이 如意해지더라도 위험한 전면전을 감행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국지전이다.

즉 먼저 유격전을 전개하여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월남화 위기를 느끼게하여 당황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을 불안과 초조 속에 몰아 넣은 다음에, 미국의 태도 결정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서해안 5개 도서 등에 대한 국지전을 벌인 다음 이 두 개의 시도가 다 성공할 경우에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南侵公式을 세워 놓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도식 참조)

〈도식〉 對南威脅構造 圖解



6월 말 임시국회가 다룬 社会保安法 또는 保安処分法은 유격전의 경우 무장공비에 가담할 성향이 짙은 형기만료된 未轉向共產主義者 및 強力的前科者의 일부에 대한 豫備檢束對策의 一環이다.

3千5百万의 人權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爲하여 취하게 되는 극소수 위험분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것이다.

오는 공비마다 섬멸해야한다. 가급적 최단시간내에 섬멸해야한다. 오는 공비마다 최단시간내에 섬멸하면 국지전도, 전면전도 예방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 북한에 패배주의를 심어주는 결과로 될 것이다.

그 결과 6·25의 전면전도 대규모의 새로운 유격전도 실패하는 김 일성과 그 부자체제는 북한자체 내부의 비판에 부딪쳐 스스로 약화 또는 붕괴될 가능성까지 있다.

즉 계리라의 섬멸로 북한 권력구조의 변질까지를 우리가 원격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뜻이다.

인지반도와 한국의 상황은 판이하다(前号 참조)

김 일성은 오산하면 자멸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끝내 하고야 말 침략이라면, 민족 「에너지」의 더 이상의 소모를 막는 뜻에서 기왕이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빨리 남침해 보라고 김 일성에게 외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총력안보의식과 체제를 우리는 지금 다져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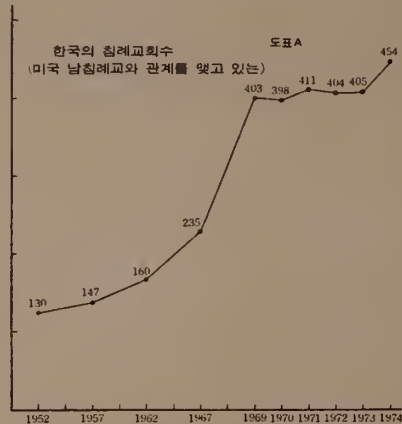
통계상으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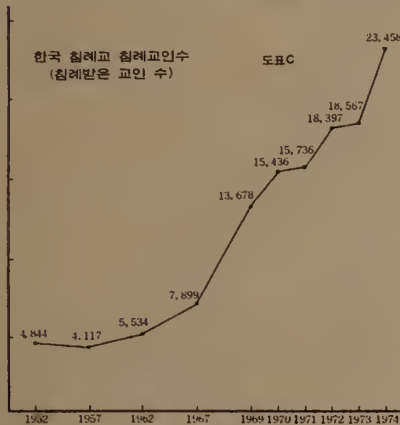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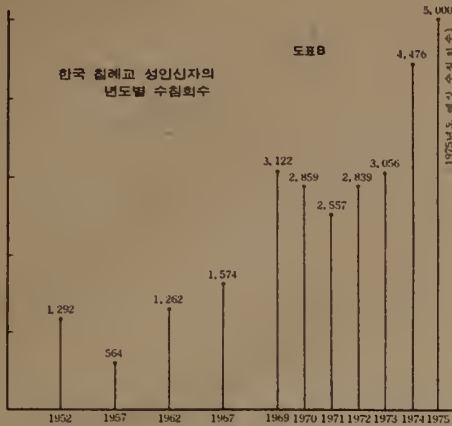
한국 침례교인 현황

한국의 침례 교인수는 적은 편에 속하지만 아주 급속히 성장하는 교파이다. 1889년에 한국에 온 엠·씨·켄워의 복음 사역을 시초로하여 1950년 이후 근래에는 남 침례 교회와의 협력으로, 한국 침례교인들과 80여명의 남 침례교 선교사들은 지역 교회의 싹과 발전을 통한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아래의 통계숫자가 참고가 될 것이다.

년도	교회수 (도표 A)	수침회수 (도표 B)	수침자수 (도표 C)	교회 현금총액
1952	130	2,292	4,844	21,000
1957	147	564	4,117	12,228
1962	160	1,262	5,534	46,767
1967	235	1,574	7,899	88,130
1969	403	3,122	13,678	259,451
1970	398	2,859	15,436	403,154 310/1
1971	411	2,557	15,736	497,589 341/1
1972	404	2,839	18,397	672,520 388/1
1973	405	3,056	18,567	653,956 396/1
1974	454	4,476	23,458	1,393,665 397/1





위의 통계 숫자가 완전하지 못하며, 또 어떤해의 기록은 교회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이 도표를 통해 한국 침례교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은 아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몇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해야겠다.

1959년에 교파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1968년 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그 사이의 통계 숫자는 한국 침례회 선교부와 관계된 교회에만 국한 시켜서 얻은 숫자이다. 성장에 기여한 몇가지 괄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1964-66까지 교회 학교 확장 운동은 교회의 성경 교수 계획에 발전을 가져왔다. 1968년 경에 시작한 청지기 훈련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1967-70년까지 4년간은 1970년대 복음 전도운동으로 알려진 해였다.

1973년은 빌리그래함 전도 대회 해였고 또한 침례교회 내의 세계복음 전도 재단의 첫 복음 전도 회의가 열렸던 해이기도 했다. 1974년에는 엑스포로 '74가 열렸고 1975년에는 미국의 각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단과 함께 약 90개의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열렸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1952-1967까지 15년의 기간 동안에는 침례를 받은 교인수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 기간동안의 대부분은 교회 내에서 1년에 수침횟수가 1,000번 이하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는 수침 횟수가 1,000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1968년에는 수침횟수 1,837의 급속한 증가(신기록)가 있었으며 1969년이 수침횟수 3,000이 넘는 첫해였다. 그후 수침횟수는 1973년까지 3,000횟수에 이르지 못하다가 1974년에 다시 4,476이라는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위에 언급한 성장이 거의 없었던 15년간의 전반기 동안 만약 1952년부터 매 해에 수침횟수의 증가가 있었다면 1968년에는 수침자수가 실제 수침자수인 10,421의 두배의 기록을 가져왔을 것이다.

1968년에 있었던 교파의 재 연합과, 1970년대의 각 4년의 복음 전도 운동을 특징짓는 모든 교회내에 있었던 확신, 그리스도인의 성장,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의 현금 액수에 관한 통계도 위의 도표에 포함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회원들의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 및 보다 나은 교회의 설비를 위해, 그리고 훈련된 목사를 후원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증가 되었나를 보여 주는 좋은 취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증가는 한국 침례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남 침례교회 건축 원조가 이제는 무상 원조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복음에 대해 오늘날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주는 한가지 사실은 교회내에 있는 원입교인(교회내에서 침례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수의 증가에서 볼 수 있다. 1970-73까지 수침을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는 평균 16,000정도 였다. 1974년 12월 현재로 그 숫자는 45,600명을 넘었다.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한국 침례교회의 정규회원수는 105,000이 넘는다.

주일학교 등록자 수도 58,358명으로 증가되었다. 여름 성경학교 참가자 수도 45,651명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 침례회 협의회와 선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인구 조밀지역-도시와 새로운 산업 개발지역-에 새 교회들을 설립하는 일이다. 그들은 함께 이 목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계획하며 지금이 바로 한국에서의 가장 좋은 수확기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와같은 시기에 전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한다.

향목 수련회 보고

세계 기독교 선명회의 후원을 얻어 실시한 향목수련회는 은혜중 계획대로 성황리에 끝났다. 멀리 외국에서 노구를 이끌고 오신 강사님들과 각 지역에서 준비하시기에 큰 수고를 해주신 회장이하 전 임원, 그리고 직접 참가하여 수련을 받으신 향목 제위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지면을 통해 보고를 드립니다.

일정 :	장소 :	인원
1975. 5. 20~23	대구 제일교회	432
1975. 5. 26~30	서울 영락교회	992
1975. 6. 2. ~ 5	광주 시민회관	1,029

전주 전도대회 성황리에 마침

여러회원들의 기도성원과 전북전도대회의 노력으로 전북전도대회는 예정대로 75. 6. 4~8 (5일간)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정에서 은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 중부지역 원목회의 실시 (회장 전재동)

본원에서는 효과적인 병원선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 1일 선명회수양관에서 서울 및 중부지역 원목회의로 모였다.

한경직 원장 호주 집회

원장님께서 8. 27일~9. 16까지 호주연합 전도대회의 초청 강사로 멜보른을 향해 출발예정이며 귀국도중 남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열리는 교역자 수양회(75. 9. 22~25)에도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기구 기증

착한어린이집 교육원에서 본원에

성서로 그린 성화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광혁 장로(체미중)님께서 본원을 위해서 사무기구를 기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본원의 수요에 따라 계속 사무기구를 기증해 주시길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감사 할뿐이며 이 장노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차 기증품

사무용 책상 4, 회의용 테이블 1, 서류함 2, 책전시판 1, 등나무 작품 1, 의자 18개.

나일선 목사님 안식년으로 귀국

본원 협동원장 나일선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오는 8월 1일 일년간 예정으로 가정동반 귀국하십니다.

이번 휴가기간 동안 나목사님께서 홀러신학교에서 교회성장에 대한 세계적 권위인 맥카부린 박사의 문하에서 학위과정 연수를 하실 것이다.

나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목 세미나 개최

시일 : 1975. 9. 29~10. 3 (4박 5일)

장소 : 서울 세계기독교 선교회 센타 수양관

인원 : 40명

등록 : 1) 각도경 경목실장의 추천을 얻고 본원의 초청장을 받으신분(본원에서 개별 초청장 발송함)

2) 과거 본원의 목회연구회나 경목 세미나에 참석지 않으셨든분

등록금 : 교재대 포함 3,000원 (기타 숙식비 일체는 본원에서 부담하며 노트와 필기구도 지급함)

서류제출 : 1) 추천서 도경목실장 1통

2) 자필 이력서 1통

※1) 구비서류후 본원에 제출(75. 9. 10까지 도착)하시면 본원에서 초청장을 발부함(이로서 예비 등록이됨)

2) 정식등록은 개회당일(75. 9. 29)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기독교선명회 센타 수양관에 직접 등록하셔야 하며 (지정된 시간외는 일체 등록접수치 않음)

3) 총 수강시간중 3시간 이상 결강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케됨(키가 조치함)

※ 각도 경목실장님은 각기 취약지구 및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경목님중 5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우편번호 120 서울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제 3호. 한국교회진흥원.

전화. 서울 63-0071~3 ☎ 39

4차원 세계란 ?

4차원이란 우리들의 세계에 겹쳐서 존재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한다. 수학상으로는 어려운 0차원(점의 세계) 1차원(선의 세계) 2차원(평면의 세계) 3차원(입체의 세계 즉 우리들의 세계)의 다음에 4차원의 세계가 공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정말로 있는것 같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한국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구우체국 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설립인쇄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경 직 목사

누가 11 : 1 ~ 13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1 : 1)

서 론 : 은혜받는 세 길

- 1) 찬송 2) 기도 3) 성경

1. 기도하라고 권면 :

- 1) 대상 16 : 1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찌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찌어다”
- 2) 마 7 :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3) 눅 18 :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
- 4) 엡 6 :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 5) 살전 5 :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2. 응답의 약속

- 1) 시편 50 : 15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리다”
- 2) 시편 91 : 15 “저가 내게 간구 하리니 내가 응답 하리라 저희 환난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 3) 사 58 :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4) 사 65 :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 3. 응답 안되는 기도 :
 - 1) 불순종 ; 신 1 : 45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 2) 죄 ; 시 66 : 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 하시리라”
 - 3) 사랑의 부족 : 잠 21 : 13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 4) 율법의 경시 · 잠 28 : 9
“사람이 귀를 도리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 5) 의심 ; 약 1 : 6, 7,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6) 욕심 ; 약 4 : 3
“구하여도 받지 못한 욕망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 7)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 고후 12 : 8, 9,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 4. 응답되는 기도 :
 - 1) 회개 ; 대하 7 :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열
କୁ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2) 전심; 렘 29 : 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3) 믿음; 막 11 :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
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4) 의; 약 5 : 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는 힘이 많으니라”

5) 순종; 요 1서 3 : 1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
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6) 합심; 마 18 :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5. 기도의 내용

1) 감사; 빌 1 : 3, 4,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
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2) 자복; 느 1 : 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
여 주야로 기도 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
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
소서”

3) 간구; 엡 3 : 14-19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
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
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
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
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
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
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
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 앙망; 시편 34 : 5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3 : 1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
하나이다”

5) 영적 교제; 시편 145 :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다”

6. 기도의 우선순위 :

1)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마 6 : 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
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

2) 아버지의 약속; 행 1 : 4, 5,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
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7. 성령의 열매 : 갈 5 : 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8. 성경의 은사 : 고전 12 : 8-10

“어떤이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 에게는 같은 성령으
로 믿음을, 어떤이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 에게는 영
들 분별함을, 다른이 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이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 기도중의 시험 :

1) 주님이 받은 시험; 눅 4 : 3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이 돌 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
라”

2) 주님의 대답; 눅 4 :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10. 올바른 기도생활 :

1) 일정한 기도시간 ; 단 6 :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 무시로 기도 ; 엡 6 :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 : 17)

3) 교회 중심으로 ; 사 56 : 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르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결 론 :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 : 계 5 :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향은 성도의 기도 들이라”

추수의 원칙

한 경직 목사

갈라디아서 6장 : 1-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 : 7)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도 스스로 속아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소위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기를 위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절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기 진실과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실 것입니다.

이 추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을이라서 농촌에서는 추수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이 가을 추수의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학생 시대에 이 원칙을 분명히 배우면 일생에 얼마나 큰 보배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자연계에서 이 원칙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또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벼를 심어야 가을에 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또는 종자보다는 언제나 많이 거둡니다. 증수(增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시기에 있어서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때가 되면 거두기는 꼭 거둡니다. 보리 같은 것은 이른 여름에 거둡니다.

그러나 벼는 늦은 가을에야 거둡니다. 또한 파실 나무 같은 것은 여러해, 어떤 것은 7~8년 후에야 거둘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추수의 원칙이 영적, 도덕적 세계에서도 꼭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봄에 받을 갈고 씨를 뿌리며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영적 농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매일의 생활은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의 수족으로 행하는 하나 하나가 다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거둢이 있습니다.

나의 매일의 사언행(思言行)을 내 성품에서 거둡니다. 차차 내 가정에서도 거둡니다.

내 교회에서 거둡니다. 내 사회에서 거둡니다. 내가 사업하는 데서도 거둡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서도 거둡니다. 매일의 우리의 사언행이 씨 뿌림이 되어서 이것을 오늘 심는 대로 내일 거둡니다. 현재에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둡니다. 젊어서 심는 것을 늙어서 거둡니다. 부모 때에 심는 것을 자손 때에 거둡니다.

니다. 금세에 심는 것을 내세에 거둡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을 조심해서 심어야 될 것입니다. 종류대로 거둘 것입니다. 곡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신령한 세계에서 볼 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압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요.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뿌리는 씨입니다.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는 정녕 썩어질 것, 곧 사망을 가져옵니다.

정욕으로 심는 자는 음란과 부패한 것으로 거둡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둡니다.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를 거둡니다. 미움을 심는 자는 미움으로 거둘 것입니다. 거짓을 심는 자는 거짓으로 거둡니다. 무자비를 심는 자는 무자비로 거둡니다. 탐심과 허영으로 심는 자는 역시 그런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더니(속여서 복을 받을 때) 그 후 여러해 후에 그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요셉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더니 자기가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전에 이세벨이 무고한 포도 동산의 주인 나봇의 피를 흘리더니 여러 해 후에 자기의 피가 이층에서 던짐을 받아서 산산이 땅에 흘러진 것입니다.

이조 역사 가운데서 당쟁사를 주의해 읽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몇 해 후에 또 역시 그들이 모함을 받아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넘어집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무고한 자기 아내를 다만 공부 못했다는 이유로 내쫓아 버리고, 알뜰이 공부한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아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돈있던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병까지 났습니다. 그런 때에 그 알뜰하게 맞아 왔던 그 아내가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천대하면 자기가 천대를 받습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 가슴이 아플 때가 옵니다. 남을 속이면 내가 속임을 당합니다. 「남잡이 제잡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출어이자 반어이자」(出於爾者 反於爾者)라고, 네게서 나온 것이 네게로 돌아 간다고 하는 옛 사람의 말이 그 뜻을 우

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선으로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덕으로 심으면 덕을 거둡니다. 의로 심으면 의를 거둡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친절로 심으면 친절로 거둡니다. 자비로 심어야 자비로 거둡니다. 화평으로 심어야 화평을 거둡니다. 전에 어떤 의사에게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심히 앓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 병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돈은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병은 중합니다. 이 부인이 돈은 없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죽을 수 밖에 없으니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의사가 불쌍히 여겨서 돈 받지 못하고 약 값 못 받고라도 그 아이를 며칠 동안 정성을 들여서 잘 고쳐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6·25가 났습니다.

그만 이 의사가 공산당에게 잡혀갔습니다. 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알지 못할 사람이 나서서 그 의사를 위해서 말을 하면서 이 의사는 이북에서 오긴 했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아이들 병을 거저 고쳐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얼마전에 자기가 돈 안 받고 병 고쳐준 그 아이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치스 독일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수백 수천 수만을 학살하던 때입니다. 어떤 비행장의 한 비행조종사가 자기 비행기 속에서 무엇을 만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상기가 되어서 다짜고짜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겠는데 어서 이 비행기를 띄워서 독일 국경 밖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뒤를 지금 비밀 경찰대가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얼른 비행기를 띄워 멀리 국경 밖으로 데려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다 잊어 버렸지요. 얼마 후에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역시 독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연합군의 공군으로 종군하면서 전쟁에 가담해 싸웠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나서 그만 자기가 탔던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뇌를 상해서 도무지 의식이 하나도 없고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수술 잘하는 이를 청해서 수술을 하고 두어 주일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고 수술해준 의사를 만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바로 여러 해 전에 자기가 독일 비

행장에서 건져준 그 유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덕으로 심어야 덕으로 거둡니다. 「유음덕이면 필유양보」(有陰德必有讓步)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숨은 덕이 있어야 양보가 있다고. 「적선지가에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余慶)이라고 하는 글귀 역시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심어야 영생을 거둡니다.

또 양에 따라서 거둡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변치 아니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조금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사언행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언제든지 종자보다는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 악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바람으로 심었더니 회오리 바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도 역시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를 심는가 항상 조심해서 바로 심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 드렸지마는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더우기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영원을 초월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미리 어떻게 꼭 되리라 언제 거두리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 생전에, 당대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경우에는 그 후대 자손에게서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온전한 추수는 내세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도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인 까닭으로 최후의 내세에 가서야 온전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요한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낮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마지막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무론 대소하고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년기, 소년기, 특별히 학생 시대는 장년기와 노년기를 위해서 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 젊은 이들 바로 심습니까? 바른 종자를 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세는 이 다음 우리 자손의 세대를 위해서 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습니까? 금생은 내생을 위해서 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습니까?

성령을 쫓아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열매가 될 때에, 많은 추수를 거둡니다.

감사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때에 많은 감사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헌금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둘 때에 그 보화로써 축복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봉사과 선행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있습니다. 더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뿌리는 것이 곧 전도 사업이옵시다. 많이 뿌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1860년 처음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올 때에 그 때에는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때에는 미국에 자동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대륙으로 건너와서 추운 겨울에 내렸습니다.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감사와 봉사와 전도로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오늘날 그 자손들이 그 추수를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여기 우리 동남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부하고 할 수 있는 나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제일 많은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오늘날 부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벌써 여러 해 전에 이 나라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 말레이시아 전 지경에 고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제가 한 번 남북으로 지나가 보았는데 연변이 전부 고무밭입니다. 여러 십 년전에 심은 고무밭입니다.

그 고무 나무에서 고무가 물 흐르듯 그냥 흘러 내

8 페이지 계속

《향군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⑥》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教授 李 讚九〉

当院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항목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으로부터 향군반공교육자료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부응하는 뜻에서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李 讚九 教授의 협조로 금년 6회에 걸쳐 교육자료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사색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編輯者 主)

◇ 对南 威脅 ◇

前(⑤)号에서 논술한 对南威脅의 構造分析 (遊擊戰→局地戰→全面戰)은 先行研究를 省略한 結果內容의 要約이었다. 이번에는 보다 具體的인 說明을 통하여 对南威脅의 構造를 보다 면밀하게 分析코자 한다. 北韓이 南北關係의 바탕 위에서 取할 수 있는 对南態度的 類型 즉 对南戰略의 모델(model) 또는 패턴(Pattern)은 크게 보아 세가지뿐이다.

첫째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일방적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武力南侵이요,

둘째는 무력남침의 감행이 남북에 공히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間接侵略이요,

셋째는 남북대결이 남한에 유리하고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될 때 取할 수 있는 平和共存이다.

武力南侵은 北>南일 때 가능하고,
間接侵略은 北=南일 때 가능하며,
平和共存은 北<南일 때 가능하다.

武力南侵은 北>南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1940年代末에 計劃된 것이고, 間接侵略은 50年代末의 戰後復旧過程을 거친 후 北=南의 관계가 계속된 1960年以後 지금까지 15年間 推進되어 왔으며, 平和共存은 北<南의 관계가 形成될 1980年代에 擡頭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平和共存路線 標榜은 우리의 반공사상무장약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心理戰工作으로서의 偽裝平和攻勢였으므로 지금 말하는 北<南의 관계에서의 平和共存과 區別된다는 점에 留意하시기 바란다.

결국 지금 문제되는 것은 間接侵略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間接侵略(indirect aggression)의 概念은 直接侵略(direct aggression)의 対가 되는 概念으로서, 直接侵略을 軍事戰(military warfare)이라한다면 間

接侵略은 政治戰(political warfare)으로 볼 수 있다.

政治戰인 間接侵略의 技術이론은 矛盾戰術이다. 모순전술은 인간사회내에 있을 수 있는 모순의 존재 형태를 3단계로 파악한다. (1) 잠재화된 모순, (2) 현재화된 모순, (3) 극대화된 모순이 그것이다.

잠재화된 모순을 현재화시키고(불평, 불만을 데모, 파업으로 유도하고), 현재화된 모순을 극대화시키라(데모, 파업 등을 극한적인 반정부 내지 반체제투쟁으로 확대시키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순의 성격구조를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으로 가른다.

계급적 모순은 한마디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 유산계급이 경제적으로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입장에 있고 (2) 유산계급과 정치세력이 결탁하여 무산계급을 제도적으로 유린하며 (3) 따라서 착취계급과 무산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민족적 모순은 (1) 자본주의 강대국가가 약소국가를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유린 내지 착취하는 입장에 있고 (2) 약소국가의 정권담당세력이 자본주의 강대국가의 정치적 압압이로 전략해 있으며, (3) 따라서 이들 두 민족간의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技術이론에 의하면 이같은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포개져 있는 사회의 잠재화된 모순을 현재화 내지 극대화시키므로써 그 지역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전술을 구사하는 그들 공산사회야말로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다.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를 표방하는 공산사회에는 오늘날 자유사회의 중산계층에 해당되는 전문가그룹(technocrat group) 또는 관리자계급(managerial class)으로 불리우는 소위 새로운 계급(new class)이 등장해 있고, 그 위에는 공산특권계급이 군림하며, 그 밑에는 하층노동계급이 종속하고 있다. 이들 온갖 권력과 특혜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극소수 공산특권계급과 노동의 기계로 전략한 절대다수 하층노동계급간에는 그들 공산사회의 조직성 격상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국경없는 사회를 표방하는 공산진영내부에서 빛어지는 민족간의 갈등과 대립이 여지없이 만천下到 노출되어 왔음은 보아 온 바와 같다.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의 反薪鬭爭, 소련의 헝가리 체코에 대한 무력탄압, 중·소분쟁 등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자체내에 쓸어 안고 있으면서도 자본사회의 모순문제를 들고 나와 체제전복까지를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는 극히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 2차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을 때 북한측 대표 윤 기복이 “골고루 잘 사는 공산주의사회”를 운운한 것은 계급적 모순을 현재화 내지 극대화시킨다는 의식에서 나온 태도로 볼 수 있고, 작년 문 세광을 사주하여 대통령을 저격케 한 것은 한·일간의 민족적 모순을 자극시킨다는 의식에서 취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이 모두는 내부의 총화를 와해하고 한·일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저하는 전술의 일부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하겠다.

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저들의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간접침략의 투쟁방법은 (1) 合法鬭爭 (2) 半合法鬭爭 (3) 非合法鬭爭으로 나타난다.

合法鬭爭은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 등을 통하여 전개하는 노사분규 형식의 공산주의투쟁으로서,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의 노사분규를 조장하여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저항의 체질을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투쟁이다.

최종목적인 극한투쟁은 유보하기 때문에 주동자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미묘하고 까다롭다.

半合法鬭爭은 친목계나 동창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정부의 주요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은근한 비방을 하는 등의 투쟁방법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주권재민의 원리로 보면 不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하나의 투쟁방법이라고 볼 때에는 合法이랄 수도 없는 까닭에, 半合法鬭爭으로 규정되고 있다.

간접의 주민포섭의 대부분은 이러한 半合法鬭爭의 방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를 요한다.

非合法鬭爭은 글자 그대로 비합법 또는 불법의 투쟁으로서, 전단살포 벽보부착 유언비어날조유포 민심을 흥흥케 하는 흥악범죄자행, 등이 이에 속한다. 문화국가로서는 취할 수 없는 저속하고 악랄한 수

법으로 이는 김 일성 자신의 요구라는 점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당대회에서 김 일성은 직접 요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 바 있다.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 투쟁 등 모든 투쟁의 방법과 형태를 울케 결합시켜 남한적화를 완성하는 것 뿐이다.”

투쟁형태도 세가지이다. (1) 心理戰工作 (2) 地下黨工作 (3) 遊擊戰工作이 그것이다.

심리전공작은 한국민의 반공사상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으로서 평화공세 남북대화 등이 그 방법으로 되어 왔고, 지하당공작은 심리전공작의 바탕 위에서 추진하는 지하세력 조직활동으로서 6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간첩체포사건이 그 증거이다.

유격전공작은 지하당공작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1·21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지구공비침투사건 등이 그 실례이다.

이 세가지 투쟁형태는 段階性과 遊擊性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段階性을 무시하여 심리전, 지하당의 공작없이 유격전을 감행했다가 실패할 경우엔 극좌 모험주의노선으로 비판되고, 遊擊性을 무시하여 유격전단계에서 심리전, 지하당의 공작을 중단했다가 실패할 경우엔 안일 무사주의적 과오로 비판된다.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던 1960년 8월에서 평화통일 3대원칙을 주장한 1965년 1월 5일까지는 우리의 반공사상무장해제를 위한 心理戰工作을 주로 전개해 온 기간으로서 이는 대남간접침략의 기초설정단계에 해당된다.

3대혁명역량강화원칙을 발표한 1965년 4월 15일에서 대규모지하「터널」이 발견된 75년현재에 이르는 10년간은 남북대화에 응해 나오는 등의 고차적인 心理戰, 간첩계속납과 등의 地下黨, 김 신조 이후로도 계속된 무장공비사건 등이 말해 주는 遊擊戰을 전개해 온 기간으로서 이는 대남간접침략의 본격전개단계에 해당된다.

금후 5년내에 방위산업이 완성되면 1980년 이후인 방위산업은 북한과 같거나 더 강하고 평화산업은 지금보다도 북한을 더욱 압도하게 되므로써 그때 가서는 대남간접침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1976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기간은 대남간접침략의 최후발악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접침략의 최후발악단계로 예상되는 금후 5년(1976~1980)동안에는 우리가 저들에게 빈틈을

8페이지 계속

5 페이지부터 계속

리니까 그 조상의 덕으로 자손들이 지금 거두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바로 심어야 다른 세대가 바로 삽니다. 지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입니다.

여러 해 전 일제 당시에 학생의 의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래 전 이 학생이 뿌린 의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은 여러분을 압박하는 일본 사람 없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신령한 농부들 을씨다. 우리 매일의 생활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생각도 씨를 뿌리는 것, 말도 씨를 뿌리는 것, 행동 여하가 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에는 두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 씨가 있고, 육체를 쫓는 씨가 있습니다.

진흥원 소식

1. 본원에서는 9월29일~10월3일까지 선명회 수양관에서 경목세미나를 개최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1주간) 선명회 수양관에서 원목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성경 통신 학교에서는 9월25일 오후 2시에 영등포 교도소에서 성경암송대회를 개최 하였읍니다.
3. 진흥원에 8~9(月)중에 영화 전도반을 의뢰하신 교회가 많았으나, 본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선착순으로 실시 하겠읍니다.

7 페이지부터

출 경우 모순전술의 제 3 단계 즉 모순의 極大化, 투쟁방법의 제 3 단계 즉 非合法鬭爭, 투쟁형태의 제 3 단계 즉 遊擊戰工作 등을 一時에 동원 전개하는 이른바 人民解放戰爭이 감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前(⑤)号에서 대남위협외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遊擊戰→局地戰→全面戰의 3 각위협구조를 말할 때, 그 첫째인 遊擊戰이 바로 이 人民解放戰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 일부의 공비에의 가담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社會安全法이요, 주민절대다수를 공비토벌에 적극동원하는 것이 民防衛基本法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금후 5년내에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민방위체제와 방위의식의 강화뿐이다.

비극이 발생했을 때 당할 고통의 백분의 일 또는 천분의 일을 감수하여 비극의 도래를 예방하자는 것이 安保의 論理인 것이다.

성령의 씨를 뿌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 시간에 청산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는 성령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개인이 나의 당대에도 옳게 바로 살고 축복을 받고 내 후손도 축복을 받고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원과 한국교회 진흥원과의 통합 축하예배

아세아 연합신학원과 한국교회 진흥원은 지난 5월 28일에 양기관 대표들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두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10월 1일에는 영락교회에서 그 통합 축하 예배를 내빈 다수 참석하에 거행하였다. 이번 통합으로 “한국교회 진흥원은 아세아 연합신학원 부설 아세아 교회 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이 통합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초창기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원은 크게 강화되고, 반면에 한국교회 진흥원은 이제 법인으로 구성될 아세아 연합신학원 내의 한 기관으로서 그 존립의 항구적 기초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외적 의의를 넘어서 신학 고등교육 기관인 아세아 연합신학원은 그 아세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며 아세아 교회를 진흥시켜야 할 새 임무를 지니게 되며, 또 “한국교회 진흥원”도 그 한계를 한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세아 전역의 교회를 진흥케 해야 할 임무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신학과 교회진흥은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원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감리교 신학대학장 홍현설 박사는 축사를 통하여 사람의 두뇌와 몸이 서로 연합해서 완전하게 되는 데 비하였다.

오늘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 아세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이다. 반면에 아세아 대륙 세계의 반쪽이며 인류의 태반 인구를 차지하는 이 대륙은 가장 덜 복음화 되었고, 교회는 가장 미약하다. 아세아 연합신학원은 이제 아세아교회 진흥원을 그 부설기관으로 가짐으로서 이 모순 즉 한국교회 진흥과 아세아 교회의 불진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세아의 복음화”를 성취하는데는 크게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끝.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아세아 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대배우과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성립인쇄사



예수 나심의 뜻

홍현설 박사

성경 누가복음 2 : 1~14

즐거운 성탄절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한 해가 저
무는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한 배려로 된 은총입니다. 이 계절에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던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쓸쓸하고 무미하
였겠습니까?

그런데 근년에 와서 성탄절은 너무 오락화하고 상
업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자는 눈치빠른 장사꾼들입니다. 어떤 상
인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세일로서 일년간의 이익을
보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
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를 빼어놓고
사람들 끼리만 즐기고 예물을 주고받는 폐풍이 해마다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어느 귀족의
생일이 되어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에 모여
온 손님들은 그날의 주인공인 그 귀족이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린것도 모르고 자기들 끼리만 그 파티를
즐거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거나 않나 염려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을 도루 찾아서 그
참 뜻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크리스마스의 의의를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1.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의 초점시오, 중

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西紀)를 주후와
주전(B.C.와 A.D.)으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
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시오, 사건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예수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
을 무인하려는 여러가지의 이단설(異端說)이 있었
읍니다.

예수가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신것이 아
니라 다만 그의 환영(幻影)이 사람들의 눈에 잘못
보였던 것 뿐이라는 그런 이단설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의 말처럼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성구를 가서 고고학(考古學)적으로 예수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해
집니다.

물론 예수는 1900여년전에 나셨다고 할지라도,
그는 전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계
시록에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그리
스도의 선재(先在)설을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읍니
다. (Pre-Existence of Christ) 이것은 예수 그
리스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 박았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인간 예수가 선재했었다는 뜻
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의 선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이러한 영원자로서의 로고스가 예
수라는 인격에서 인간성과 합해서 본질적인 연합
을 이뤘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하간 예수 그리스
도는 기원전에서 보나 기원후에서 보나 또는 미래
에서 볼지라도 그는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역사의
초점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실 우리
의 구주이십니다.

2. 크리스마스는 인간들이 것처럼 보고 싶어하던 하
나님의 얼굴을 본 날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은 감히 영광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
는 것으로 믿어 왔읍니다. 그러기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나가실때 그의 뒷 모양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나니라”(요한 1 : 18) 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히브리 1 : 3)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보여 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자기와 아버지는 일체라고 분명히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의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성경에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후에 교회의 신학자들이 성서에 토대하여 만들어 낸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얼굴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여러가지의 우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성당안에 있는 씨스틴 채플의 천정에 그린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중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되도록 인자하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리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는 그 단적인 표현입니다.

어두운 밤에 방에서 혼자 자던 어린소녀가 무서운 꿈에서 놀라 깨어나서 열방에 있는 어머니를 부를때 그 아이는 어머니의 음성만으로는 만족지 않고 그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아야 비로서 안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라든가 제일 원인이라든가 궁극적인 실체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기독교의 교리와 거의 같은 것을 많이 발견했으나 단 한가지 기독교에만 있고 플라톤 철학에 없는 것은 예수의 성육신(成肉身)의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3.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날입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을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같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국제간에 어떤 조약에 의해서 혹은 상호 불가침 협정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는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이고 다음에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악의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평화의 명절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포화로 교전하던 적국간이라도 크리스마스날만은 휴전을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레마르크의 원작 “서부전선 이상없다”중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감명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 1차대전때에 된 일입니다. 불과 몇백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연합군이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포성은 멎고, 모두가 참호속에서 멀리 고향을 그리기하며 깊은 향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휘바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얼마후에 그 휘바람은 노래로서 응답되었습니다. 독일군 진지와 연합군 진지에서 우렁찬 크리스마스 캐롤의 합창이 들려 왔습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선물교환을 할것을 제의 했습니다. 우선 연합군 측에서 캔디와 과자들을 모아서 한 군인을 시켜서 독일군 진지에 전달했습니다.

독일군 측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담배등을 모아서 연합군측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선물 교환하던 군인이 상사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이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난 다음에 성난 음성으로 책망하기를 “야 이놈들아, 싸움싸워야 할 너희 군인들이 싸우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전쟁이 성립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인들은 다 자기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두고온, 그리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서 죽지않고 살아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순진한 청년들입니다. 이때에 그 군인

행복

편집실 제공

들은 맹세하기를 우리가 죽지않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를 이런 전쟁에 내 보낸 그 나쁜 자들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중에는 싸움을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선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이 평화의 정신을 새롭게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인간들 사이에 선의(善義)를 불러 일으키는 날입니다. 어떤 성경번역에는 누가복음 2:14의 천사의 찬송을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인간들 사이에는 호의가 있을 지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인색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크리스마스 날만은 남에게 선물도 주고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려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딕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스크루지도 크리스마스 날에 자기의 전 고용인의 망령에게 이끌려 그의 조카들의 가난하나 그러나 행복스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의 인생관이 변해서 관대하고 선량한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것이 이른바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께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값진 예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붉은 마음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는 교훈을 따라 간접적으로 우리보다 불행한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베가지의 정신에서 예수께서 나신의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5년 성탄절에.



1. 행복의 의미

가. 행복의 어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행복은 인류의 염원이요, 개인주의의 목표이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인가?

먼저 행복이란 말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행복이란 용어 속에는 많은 뜻을 포괄하고 있는데 곧 안녕, 안태, 복리, 번영, 행운, 요행, 호운, 쾌락, 열락, 지복, 유쾌, 축복, 강성, 성공, 출생, 만족, 승리감, 부귀, 공명, 장수등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외적 조건으로 오는 행복을 welfare으로 표현했고 내적 조건으로 오는 행복을 happy 혹은 happiness로 표현했다. Welfare와

Happiness 혹은 Happy는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결과로 오는 행복을 의미하지만 인위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운명에서 오는 행복을 Luck(운, 요행)과 Fortune(행운)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운에 속한것을 신의에 속한 것으로 믿고 Blessedness 혹은 Blessing(축복)로 표현했다. 행복이란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인류의 통속적 행복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 통속적인 행복관속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곧 행복은 인위적인 조건과 신의적인 행운이 일치하는 곳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동양인의 행복관

동양인들도 사람인 이상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행복에 대한 개념이 서양인과 다르다.

동양인들은 5복(부, 귀, 수, 강, 녕)을 행복이라 하였다. 그러나 행복을 구함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인위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은 하지않고 천운에 맡기고 인심입명에 살면서 안빈락도를 일삼았다. 동양인들은 5복을 행복이라 하였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하지않고 청빈과 금욕과 체념등 소극적 방법을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인의 행복은 현실도피적이며 은둔적이다. 동양인은 극기의 생활을 통하여 고요한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노력과 근로를 천시하고 무사태평, 무위 도식, 안일과 게으름을 행복의 대명사 처럼 존중했다. 동양인들은 내면적인 은이완성에 행복의 기준을 두어 윤리적 인격과 고귀한 명망을 숭상하였다. 희노애락에 대한 무감각한 부동심의 인격을 행복의 절정으로 여겼다.

남에게 욕을 먹지않고 사는 생활 곧 체면을 유지해 나가는 생활을 행복한 생활로 규정할 만큼 형식적 행복관이 되고 말았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양반에다 두었다. 양반이 되는 것은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으로 희망했다. 행복은 양반들의 독점물ियो, 상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체념으로 행복을 외면했다. 양반이란 말은 행복의 대명사 구실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곧 지배계급(양반)만이 5복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상인들이나 천인들은 평생 노력해 보아도 부귀를 얻을 수 없으니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내세에 대한 행복을 강하게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발원하였고 동양인의 행복관은 내세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다. 서양인의 행복관

서양인의 행복관은 적극적이고 현세적이며 따라서 물질적이었다. 그들은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과학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었다. 그들은 지리적 발견을 하였고 물질적 부를 얻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세적 귀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모험을 하였고 남의 나라를 정복했다.

그들은 정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그들의 행복의 공식은 행복=소유/욕망이었다. 서양인들은 성공을 행복의 척경으로 여겼다. 그들은 성공과 번영을 행복으로 삼았다. 동양인들이 노력보다 요행을 바람에 반해 서양인들은 요행을 바라지않고 인위적으로 행복을 쟁취하려 하였다. 그들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였다. 동양인들은 명성을 위해서는 근신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명성을 위해서는 격투를 하였다.

그들은 모험과 전진과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쾌락주의적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Enjoy(육감적 쾌락)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관을 배격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윤리적인 행복관을 배격하고 본능의 충동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므로 만족을 얻는 것으로 행복한 생활이라고 여겼다. 서양인들은 육육적 쾌락을 위해서 성을 개방하고 사회적 윤리를 배제하고 광란과 테러와 스피드를 일삼는다. 그들은 번영과 물질적 부를 얻은 후에 기본적 욕구 충족(탐욕, 성욕, 소유욕)이 되니 이제는 걸잡을 수 없는 견해를 해소시킬 길이 없게되었다. 서양인들은 행복의 외적 조건은 이루었지만 내적 조건의 결여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라. 종교의 행복관

불교의 행복관은 인간의 제욕을 해탈하여 무욕상태 곧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지복이라고 하였다. 욕계를 윤회전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극락 열반에 들어간 자라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상을 주장하므로 현세를 부정하고 따라서 현세적 행복을 부정하는 극단의 내면적 행복관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속세를 떠가 가출했다.

유교의 행복관은 부귀 공명을 이상으로 삼는 행복관이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는 운둔적 태도를 취했다. 입신 양명을 이상으로 삼고 군자지도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 그래서 공자 자신이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도교의 행복관은 무에서 생하였다가 무로 돌아가는 무위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였다. 무의 경지에 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행복관은 내적으로 영적 평화와 희열을 가지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번영과 형통하는 것이 행복이라 한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의 은총을 받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행복관은 현실적 번영과 형통과 현세에 있어서 영적 평화와 기쁨을 말하는 동시에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면을 말하는 동시에 그 모든 인위적 노력도 신의와 인도가 일치할 때(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혹은 지킬 때)에 형통과 번영과 기쁨이와서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행복관은 포괄적인 참된 행복관이라 할 수 있다.

2. 행복의 조건

가. 외적조건

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마는

머리 위에

항시 푸른하늘

우러렸으며 이렇듯 마음 행복 하노라.

(유 치환의 시 “행복”의 일부)

이 시인은 행복된 마음의 상태를 노래했다. 이러한 행복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행복감을 갖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객관적으로 행복의 상태를 이루려면 행복에 대한 외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절인이 마음속으로 행복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행복하려면 먼저 Welfare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번영되고 안녕 질서가 잘 유지되고 복리민복을 이루고 부가 고루 분배되고 권리가 평등한 균형된 복지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생물적인 몸을 가진 인간 사회의 행복을 금욕과 청빈만으로 얻을 수 없다. 물질적 부가 풍성하며 그 부가 고루 분배되어 빈부의 차가 없는 풍요한 사회가 되고 인간을 멸시하고 억눌리는 일이 없는 권리가 평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복지 사회이다. 이러한 복지사회가 한 나라에만 이루어 졌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없는 나라 있는 나라가 생기면 거기에 투쟁이 생긴다. 그러므로 한 국가안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없애는 근린부광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도 행복의 외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사천년의 빈곤을 타파하고 풍요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생산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풍요한 사회를 구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행복에 대한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 그 사회적 조건이 개개인에게 혜택을 입히고 또한 개인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에 배치되는 사회적 조건을 개개인이 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개개인 전체의 행복에 맞는 사회적 조건(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개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개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니 개인적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개인적 조건으로는 건전한 몸과 건전한 사상을 가진 고상한 인격과 교양있는 태도, 창의적 활동과 기능적 노력을 가지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혹은 연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외적조건을 구비하는데 헌신하는 개인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내적 조건

아무리 행복에 대한 외적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해

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고로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다. 행복감은 심리적으로 즐거움, 유쾌함, 기쁨으로 나타나는 만족감 혹은 충족감을 의미한다. 욕구불만의 해소만으로 행복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행복감은 욕구불만의 해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보람있는 생활(혹은 행위)을 했을 적에 오는 충족감이다. 행복에 대한 내적 조건은 소극적으로는 불만의 해소요 적극적으로는 충족감이나 불만의 해소는 해방감이요. 충족감은 성취감이다.

행복의 내적 조건과 추구에 대하여 유달영 선생은 “참다운 행복은 자기 자신의 생에 대한 보람을 찾아 내는데 있는 것이고 참다운 자유는 인간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승리에서 찾아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의 생에 대한 보람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심리적, 육체적인 것보다 윤리적, 종교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용서와 사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방감을 주며 믿음, 소망, 사랑, 봉사, 희생, 긍휼, 자비, 위로, 인내 등은 인격의 내실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내적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감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늘 좌우된다. 늘 슬퍼하면 슬픈 일만 생긴다. 그러나 늘 기뻐하면 기쁜 일만 생긴다. 운명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행운이나 호운(Good Chance) 혹은(Good Luck)은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요행을 바라고 무위도식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을 섭취시키는 자에게 찾아 온다. ……행복의 성…… 산넘어 저쪽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아! 남따라 찾아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 왔음네. 산넘어 저쪽 더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하건만…….

(카알부세(1872~1918)의 산넘어 저쪽)

성탄과 새해에 회원여러분께
은혜가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원장 한 경 직

한국감리교회의 역사와 성장

손 종세 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 : 8)하신 이 말씀이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심어진지도 9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 복음의 씨는 가시밭, 돌짜밭, 혹은 옥토에 떨어져 이 거친 땅에서도 30배도 되고 백배도 되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씨는 자라 현재 감리교회 교회수는 1,672교회와 1,700여명의 교역자와 360,123명의 신도(1974년도 통계)를 가진 한국에서 제 2의 대 교파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1882년에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맺고 정식으로 국교(國交)가 시작된지 2년후인 1884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의사(Dr. Allen)가 한국에 들어오고 1년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이땅에 처음으로 인천항에 발을 디딘분이 미국 북감리교의 아펜셀라(Rev. Appenzeller)와 장로교회의 언더우드(Rev. Underwood)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각각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거의 같은 해에 이 땅에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보다 약 100년 앞서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는 국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감리교는 천주교같이 많은 박해를 받지않고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장로교는 의사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당시 황태자를 치료하여준 인연으로 왕과 왕후의 특혜를 받아서 선교하는데 아무 난관이 없었으나 감리교는 국가에 아무 인연없이 독립적으로 선교하게 되었다.

감리교는 복음전도의 방법을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노력하여 왔다.

최초에는 북감리교회가 한국교회에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1895년에는 미국 남감리교에서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1930년 양 감리교가 통합될때까지 이 두 선교부가 별다른 마찰이 없이 각각 선교를 하게 되었다.

감리교회의 역사와 교회성장

[1] 한국 감리교회 연혁에 대하여.

감리교의 성장하여 온 역사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선교시작부터 한일합방시기까지(1885~1910) 둘째는 한일합방부터 두 선교부가 통합되기까지(1910

~1930), 셋째는 선교부 통합시기까지 해방까지(1930~1945), 그리고 넷째는 해방이후(1945~)의 시기이다.

제 2차 대전시의 일본으로부터의 압박과 한국전쟁시의 공산당으로부터의 박해등 수난기가 있었고, 몇차례의 분열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통합되었고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감리교회의 과거 선교방법.

감리교와 장로교는 거의 동년에 선교를 시작하였고 아무 마찰없이 서로 선교지역을 정하여 선교하여왔다. 그러나 장로교는 그 교세가 급진적으로 성장했으나 감리교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하여왔다.

감리교는 이 사실을 가리켜 우리는 양적으로 성장한 대신에 질적으로 성장하여 왔다고 말하지만 통계적으로 장로교보다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선교방법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1) 감리교는 최초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전도사업 자체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를 불문하고 선교의 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교육사업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교는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장로교보다 훨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는 전도사업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은 신도들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선교사업에 있어서 교육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개척교회의 전도사업에 더욱 중점을 둔 장로교가 양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장로교는 처음부터 네비우스(Nevius method)식 방법의 선교양식을 취했다. 그들은 평신도나 주일학교까지 전도인이 되어 배가운동에 힘을 써 왔다.

2) 다음에는 감리교가 파송제도로 인하여 일관적인 선교를 하지 못했던 데에도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장로교는 개회교 주의로서 각 목회자는 자기가 맡은 교회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감리교는 제도상 한 교역자가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된 듯 하다.

3) 다음에는 신학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와의 조화문제이다. 교역자 양성과정, 평신도 훈련과정, 교회 분위기등의 문제에서 감리교는 이지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로교는 보수적이요. 신비적이라는 평을 듣게 된다. 과거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인이 장로교로 전입한 수는 많아도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온 신자는 극히 적다는 것이 나와 있다.

아직까지 한국풍토는 지적인 것보다는 농적인, 자유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더욱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4) 감리교는 타 교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진보주의적이다. 여자목사가 있는가 하면 여자 장로도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 감리교보다도 앞선 것이다.

이와같이 감리교에서는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여성활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유관순, 김활란 같은 국가적인 인물도 감리교가 배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적한 바는 한국 감리교가 이렇게 여자에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교의 급진적 성장을 방해했다고 한다. 한국과 같은 대가족 주의의 가족제도에 있어서 여자의 위치는 비교적 약하고 그러므로 여자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여자 전도사가 무당과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게 된 때가 있어서 감리교회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위의 여러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감리교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선교활동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3] 통계상이로 본 한국 감리교 교세 증가 현황. 1930년 이후에 있어서 한국 감리교회 성장을 살피면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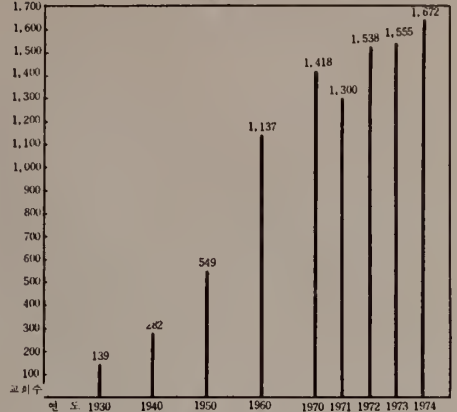
연도별 교회수와 교인수는 아래와 같다.

연 도 별	교회수 (도표 1) <i>Churches</i>	교인수 (도표 2) <i>Membership (total)</i>
1930	139	26,999
1940	282	45,716
1950	549	67,850
1960	1,137	124,678
1970	1,418	300,388
1971	1,300	305,847
1972	1,538	338,143
1973	1,555	355,091
1974	1,672	360,123

위의 통계로서 감리교 성장에 관해 명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도표 1)에서 보듯이 1940년~1950년 사이는 감리교의 수난기(일제에 의한)와 조국 광복기간등의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수가 282교회에서 549교회로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1950년~1960년 사이는 한국전쟁등 국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수는 549교회에서 1,137교회로 약 2배 성장 하였다.

(도표 1) 연도별 한국감리교 교회 성장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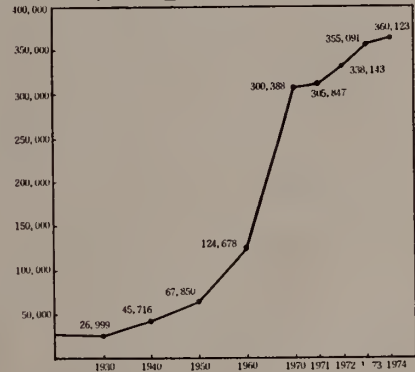
Methodist Churches

또한 도표 1 과 2 를 비교해 보면 1960년도에 있어서 교회수는 1,137개였던 것이 1970년도에는 1,418개로 약 25% 가량 성장했는데 비하여 교인수는 124,678명에게 300,388로 141% 성장률을 보인 것은 괄목할만 하다.

1970년도에는 교회수가 1,418개였던 것이 1971년에 1,300개로 준 것은 감리교의 일부세력이 경기 연회란 명목으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 수는 오히려 다소 증가되었다. (표 2. 참조)

1970년대 부터는 성장률이 비교적 둔화되고 있어서 선교활동의 강화가 요망된다.

(도표 2) 연도별 한국감리교 교인 성장표



Methodist Church Growth Membership

[4] 10년후 한국 감리교회의 교세.

10년후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5,000의 교회와 100만 성도를 목표로 하는 감리교회는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효과적인 선교방법과 평신도 전체의 복음화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주제일 감리교회 목사 나원용 목사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0년후 5,000교회가 되자면 3,400교회가 더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100만 감리교 신도가 되려면 65만명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각 지방별로 맡아 전 신도의 참여로 이룩한다면 다음과 같은 배정이 된다.

< 7 페이지로부터 계속 >

한 지방이 1년에 개척해야 할 교회 수	그런 지방이 몇 지방인가?	전국적으로 1년에 세워질 교회 수	10년 후에 세워질 교회 수
8	12	96	960
7	12	84	840
6	14	84	840
5	12	60	600
4	4	16	100

65만명을 더 증가하여 100만 신도를 이룩하려면 1975년 현재 교인수가 36만명이므로 모든 현존 교회가 배가운동을 한다면 10년후 72만명이 증가된다.

앞으로 10년후 교회가 3,400교회가 교회 평균 100명이 된다면 34만이 된다.

이와같이하면 10년후에는 106만의 신도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현 감리교회가 1974년 10월 총회후 과거부터 내려오던 씨클로 인한 분쟁으로 갱신파, 중립, 범통측등 분열이 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교회성장은 분열에서 오는 효과적인 교회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열로 인하여서 감리교회의 1975년도에 교세통계를 자료로 삼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요약 설교

한 경직 목사

“새해에 새 사람” 령 4 : 17~32

본문을 보면 세가지 권면이 있다. 하나는 소극적
방면의 권면이요, 다른 둘은 적극적 방면의 권면입니다.

1. 소극적 방면의 권면

- (1) 유혹의 욕심을 쫓는 자
- (2) 썩어져가는 옛 사람.
- (3) 구습을 쫓는 옛 사람.

※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옛 생활 양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2. 적극적 방면의 권면

- (1)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 구역에는 “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롬12 : 2)

(2)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캐나다 토론토의 군중 교회(People's Church)의 목사 스미드박사는 1927년에 그의 제38회 생일을 당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1) 주님의 마음과 꼭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2)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3)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나 내 노력은 분산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백 퍼센트 하나님만 위하여 충성되게 하여 주소서.

(그 교회는 현재 집회 4, 5천명, 외지 선교사 300명 파송)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과 간격없는 생활로 365일 그와 동행 하십시다. 령 4 : 22~24

진흥원 소식

1. 10월 29일 한 경직 원장님께서는 중국(대만)과 홍콩에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강사로 수고하시고 11월 14일 건강히 귀국하셨습니다.
2. 지난 10월 30일~11월 3일 미국의 루드(Dr. Don B. Rood)목사님께서 내한 하시어 보성여고, 영락상고, 영등포교도소에서 전도 강연을 하셨습니다.
3. 11월 7일 청주 교도소에서 30명이 출전하여 성경 암송 대회를 실시했음.
4. 11월 15~16일 (1박 2일) 미 8군 수양관에서 육사생도(기독교인 50명)를 위한 세미나를 한 경직 원장님께서 주재 하셨습니다.

다. 교 회 사 (초대교회사~한국교회사)
라. 교 리 (창조론~말세론)

●입 학 금 : 1,000원 교재 (전 5권) : 무료
송료 : 본교 부담

성경 강좌

내 용 : 제 1 권 (요한복음 공부)

제 2 권 (그리스도인의 생활 I)

제 3 권 (그리스도인의 생활 II)

대 상 : 일반인, 군인, 전국 교도소 수감자

●입학금 : 300원 (군인, 200원)

●교재대 : 무료, 송료 : 본교 부담

주제별 암송

●내 용 : 1 권, 2 권 : 안내서

2 권~4 권 : 안내서와 카드

5 권 : 독자적으로 암송하는 법

●대 상 : 누구든지 (성구 암송대회용)

●입학금 : 300 (군인, 200원)

●교재대 : 무료 송료 : 본교 부담

통신 강좌 안내

신학과정

가. 구약신학 (창세기~말라기)

나. 신약신학 (마태복음~요한계시록)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한 경 직
편집인: 나 일 선
아세아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구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성림인쇄사



부활절 메시지

한경직 목사

누가복음 24 : 1 ~ 12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 : 5 ~ 6

이 민족 위에도 부활절의 서광은 비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1,900여년 전 예루살렘 교외의 동산울 해매면서 빈 무덤, 빛나는 천사, 그의 명랑한 음성이 연상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어졌느니라. 흑암의 세력은 무너졌느니라.”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절은 이처럼 과거에 있어서는 1,900여년전 겟세마네의 근방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곧 고린도 전서 15 : 3의 말씀과 같이 “이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부활절은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고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써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었고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날부터 기

독교는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고 모든 불의의 세력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패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부활절은 현재의 의미로서 우리 신앙 생활의 한 상징입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사실로 믿을 뿐더러 현재의 체험으로 삼아야 할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런고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골 3 : 1]

이 모든 교훈은 우리 신자는 현재에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에 죽고 영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에 장사하고 의에 다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 : 10]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은 주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은 이미 그 사망에서 나와 생명과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 3 : 3] 아직도 흑암과 죄악과 사망가운데서 헤메는 동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이 과연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부활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부활절은 과거의 예수 부활의 사실의 증거일 뿐더러 또는 현재의 우리 신앙 생활의 상징일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래에 될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부활하셨음과 같이 미래에 모든 인간에 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 : 20~22].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요 5 : 28~2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 : 39~40]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의 우리 신자

의 부활과 이미 얻은 생명이 길이 계속될 곧 불멸의 생에 대한 예표이며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든 잠자는 성도의 장래 부활과 또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의심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한국의 신도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죄악의 권세를 타파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서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앞에는 일찌기 적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무릎을 꿇고 복구의 만 족도 항복하고야 말았읍니다. 오늘의 로마 제국, 오늘의 만 족이 제아무리 강한 듯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는 1976년 부활주일 을 기하여 모든 신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제히 일어나 이 부활의 종교를 담대히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한국 신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끝

임상심리학 특강 개요

원호택 선생

一、임상심리학의 정의

한 개인이 그 個人的 社会的 職業的 成熟的 장애나 適應失敗를 이르지 않도록 돕고, 장애를 이 르켰을 경우 효과적으로 再適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心理學的 原理, 方法으로 診斷하고 교정하고 再教育하는 業務分野를 포함하는 응용심리학이다.

二、臨床心理學的 歷史的 背景

1. 科學的 心理學的 대두

○Wilhelm Wundt가 1879년 Leipzig에 실험심 리연구실을 개설.

○Alfred Binet가 1904년 아동지능검사 제작.

○Witmer 교수가 1876년 펜실바니아 대학에 심 리치료소 개설.

2. 정신위생운동

정신병환자였던 Beer가 Amind that foundi- tself란 책을 써서 정신병환자 치료환경의 개선 과 정신질환자 예방을 역설함(1908).

William Healy가 1909 시카고에 아동상담소 를 개설함으로써 정신위생운동을 펴.

3. 精神醫學에서 精神力動學이 發展됨.

Freud의 精神分析學의 形成으로 精神病理學

의 心因論이 이루어짐.

科學的 心理學과 精神分析學이 臨床心理學的 理論的 基礎가 됨.

三、臨床心理學者의 機能 및 資質

1. 機能

臨床心理學者의 機能은 그의 教育과 實習배경 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을 바탕으로 심리진 단을 수행한다.

② 심리치료: 역동심리학, 학습심리학의 바탕을 갖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교정하고 해결 해서 보다 건전하게 적응하고 돕는 활동.

③ 연구: 個人的 적응문제, 성격의 장애, 정신 병리에 수반되는 제 문제의 연구를 수행한다.

2. 資質

① 學問的 能力

② 독창성

③ 人間에 대한 깊은 관심

④ 自身의 性格에 대한 理解

⑤ 따뜻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⑥ 책임감 윤리의식 ⑦ 긴장을 견디는 힘

四、患者와의 相談

1. 相談이나 治療的 面談

日常的 대화와는 달리 生活의 問題나 괴로움 을 갖고 있는 來談者와 상담의 전문가가 面對面 의 意思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적

대화 관계이다.

患者와의 相談이 一般的 相談과 別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患者의 理解가 人間의 理解와 別개것은 아니다.

相談의 核心은 患者의 理解이다.

患者의 理解를 위해서는 相談者 自身을 理解해야 한다.

相談者 自身の 經驗, 欲求, 긴장요소들이 患者 理解를 저해한다.

2. 相談에서 患者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 相談者의 要因으로 두가지로 区分된다.

① 相談者의 成長배경, 經驗을 통해서 이루어진 습성, 性格 특성.

② 現 生活에서 相談者의 問題 安定感, 지위 등.

1. 相談者의 成長배경, 經驗요소.

○人間이 출생해서 基本的 欲求가 어떻게 充足되고 좌절되느냐에 따라 基本性格이 形成됨.

○基本欲求

- ㄱ) 의존욕구,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 ㄴ) 성숙의욕구, 사랑을 주려는 욕구
- ㄷ) 좌절, 갈등으로 인한 수치심 열등의식
- ㄹ) 성적인 욕구
- ㅁ) 공격욕구와 퇴행
- ㅂ) 유아기 조건하의 영향

○基本욕구의 해결과 관련하여 자아방어 기제의 발달

- 미숙한 방어 방식.
- 투사, 자폐적 공상, 정신건강염려경향, 퇴행, 신경증적 방어.
- 지능화, 억압, 전위(轉位) 반동형성.
- 성숙된 방어
- 박애정신, 억제, 승화

2. 現 生活에서의 相談者의 問題

○滿足感……性的만족, 충분한 수면, 경제적 안정감.

○安定感……專門的 職業人으로서의 安定感, 소속감, 지위 등.

3. 相談者의 態度

知的인 態度

來談者의 成熟을 위한 주된 動機

責任意識, 獨立的인 思考와 行動.

來談者의 現實을 중시함 (독단이나 교조적 전위에서 벗어날것.)

情緒的 態度

成熟되고 自然스럽고 친근감을 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成人의 一對一의 關係를 유지할 수 있고 성실해야 함.

五、患者와의 對話

1. 대화요령

○시간이 길수록 좋다.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대화하라

○성실한 관심을 보이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잘 들으라

○혼자만 말하지 말라. 患者가 이야기 하도록 하라.

○서두르지 말라

○충고나 설명을 하는데 사로잡히지 말라

○환자의 감정—숨은것이든 나타난 것이든—을 말로 표현시키라.

2. 患者의 유형(문제별)

화를 내는 환자. (겉으로 화를 나타내는것. 숨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분노)

불안한 환자

우울한 환자

신체증상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

두려움에 싸인 환자.

끝

이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번 못박을 수야 있나하고 로마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한다. A.D. 64 or 67

2. 야고보 :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순교했다. (연대 미상)

3. 요한 : 예루살렘 멸망 후(주후 70년)에 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끌려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와 박해자들이 놀라서 밧모섬에 귀양보냈는데 그곳에서 계시를받고 수명대로

12제자의 최후

(편집부)

1. 베드로 :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했을때 베드로는 성도들의 권면에 따라 로마성에서 도망쳐 나가다가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는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로 가서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려하노라”

살았다고 한다.

4. 빌 립 :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전도중 박해로 기둥에 매달린바 되어 순교했다고 함.
5. 바돌로메 : 소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전도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6. 도 마 :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 함.
7. 마 태 :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북베임을 당함.
8.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

워져 순교했다고 함.

9. 유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 파사에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함.
10. 시 문 : 애굽에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했다 함.
11. 맛디아 : 가롯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인데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12. 안드레 : 소아시아, 스쿠티아, 그리이스에서 전도하다가 안드레의 십자가 (X형)에 달려 순교했다. 끝

第二輯

福音化를 為한 總動員傳道

韓國福音化運動本部

傳道者 李 權 燦

緒論 : —

第一輯으로 “福音代를 為한 實踐傳道”라는 광물렛을 내여 傳道의 關心을 가진 國內·國外 여러분들에게 紹介하였든바 意外에도 好評을 받아 第二輯으로 “福音化를 為한 總動員傳道”라는 第二 광물렛을 내게 되었습니다. 總動員傳道는 最近 日本에서 많이 盛行되고 있지만은 필자는 韓國的인 狀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한사람이라도 더 福音化가 되게 할까! 하는데 中點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이나라 이 民族은 福音化가 되지 아니하면 살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南侵을 피하는 北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防衛하며 安保策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면, 이 福音으로 이 나라 이 民族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第一章 總動員傳道の 意義

1. 總動員傳道란 무엇?

- ① 總動員傳道란 平信徒 全体를 傳道者로 訓練시켜 傳道하는 일에 總動員케 하는 일이다.
- ② 傳道者는 訓練을 받은 平信徒는 時間과 技能과 物質로서 傳道하는 일에 總力을 다 바쳐야 한다.
- ③ 訓練을 받은 傳道者는 기회를 얻든지 못얻든지 말씀 傳하는 일에 恒常 힘써야 한다. (딤후 4 : 2)

2. 總動員傳道에는 先行되어야 할 二大條件이 있다.

① 合心祈禱運動 행 1 : 14

② 聖靈充滿運動 행 2 : 4

第二章 總動員傳道の 原則

1. 總動員傳道에는

- ① 祈禱로 바탕을 삼고 聖靈의 役事로 原動力을 삼아야 한다.
- ② 祈禱를 통하여 聖靈의 權能을 받고
- ③ 聖靈의 權能을 통하여 傳道의 能力을 받아야 한다.

2. 總動員傳道에는 五大原則이 있다.

- ① 總動員傳道에 對한 關心
- ② 總動員傳道에 對한 熱意
- ③ 總動員傳道에 對한 決斷
- ④ 總動員傳道에 對한 實踐
- ⑤ 總動員傳道에 對한 強行

3. 總動員傳道에는 播種의 原理를 適用한다.

- ① 심어야 거둔다.
- ②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 ③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 ④ 씨앗도 좋고 땅도 좋고 기술도 좋으나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第三章 總動員傳道の 必要性

1. 하나님의 附託을 實踐하려면 (살전 2 : 4)
2. 그리스도의 命을 實踐하려면 (막 16 : 15)
3. 바울의 強勸을 實踐하려면 (딤후 4 : 2)
4. 福音의 빛을 갖기 為하여 (골 1 : 14)
5. 禍를 免하기 為하여 (고전 9 : 16)
6. 主의 再臨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마 24 : 14)
7. 그리스도의 證人이 되었으므로 (행 1 : 8)

第四章 總動員伝道者の 資格

1. 一般의 資格

- 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 ②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2. 特殊한 資格

- ① 自信救援觀의 確信을 가진 者
- ② 全人類의 靈魂을 내 靈魂처럼 사랑할 수 있는 者.
- ③ 祈禱者의 靈力과 聖靈의 權能을 받아 召命感에 불타는 者
- ④ 合心團結에 總力을 다할 수 있는 者

第五章 總動員伝道의 效果的인 方法

1. 效果的인 方法의 方向設定

- ① 새 時代에는 새로운 方法이 必要하다.
- ② 假想的인 伝道가 아니라 實踐的인 伝道라야 한다.
- ③ 制限된 伝道者가 아니라 平信徒 全体를 伝道者로 訓練시켜 總動員케 한다.

2. 效果的인 方法의 重要課題

- ① 어떻게 教会内로 들어오게 하느냐
- ② 어떻게 教会内에서 오래 머물게 하느냐
- ③ 어떻게 그들에게 訓練과 育成을 시켜 完全한 教人을 만드느냐

3. 效果的인 方法中에서 求道者를 찾는 法

- ① 내 家族中에서부터 찾아본다.
- ② 내 近親中에서 찾아본다.
- ③ 내 親友中에서 찾아본다.
- ④ 내 이웃中에서 찾아본다.
- ⑤ 내 職場中에서 찾아본다.
- ⑥ 場屬 및 分野別로 찾아본다.

4. 求道者를 만나 對話를 始作하는 法

- ① 人事를 親切하게 한다.
- ②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 ③ 겸손한 態度와 부드러운 말씨로 시작한다.
- ④ 相對者의 同意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한다.
- ⑤ 무엇을 물을 때에는 “예”라고 回答할 수 있는 말로 묻는다.
- ⑥ 對話時에는 論爭이나 對決式은 禁物이다.
- ⑦ 人間의 弱點과 依賴心이 發見될 때에는 宗教의 必要性和 하나님 의 偉大性을 紹介한다.
- ⑧ 可能性이 보일 때에는 준비했던 “카드”에 姓名과 住所를 記入하고 다시 찾아올 것을 約束한다.

5. 效果的인 方法中에서 現代式方法

- ① 누구를 引導할까 祈禱中에 指示를 받으라.
- ② 親切과 사랑과 奉仕와 協助로 親交를 맺으라.
- ③ 自發的인 要請에 따라 教会로 引導하라.
- ④ 1年間 責任지고 教会로 引導하며 指導育成하라.
- ⑤ 信仰生活이 確立되거든 堂會에 맡기고 또 一人을 選擇하라.

6. 效果的인 方法中에서 多樣式伝道

- ① 主님께서 하신 對話式 伝道 요 4 : 7-19.
- ② 近親을 찾아간 안드레式 伝道 요 1 : 41
- ③ “와 보라”는 빌립式 伝道 요 1 : 45-46.
- ④ 門徒들이 한 그룹式 伝道 눅 10 : 1-2.
- ⑤ 大伝道者 바울의 多樣式 伝道 고전 9 : 19.
- ⑥ 平信徒를 통한 개미式 伝道
- ⑦ 미끼를 주는 漁末式 伝道
- ⑧ 토끼몰이, 김매기, 이잡이式 伝道
- ⑨ 産業戰士를 中心한 侵投式 伝道
- ⑩ 學生을 中心한 學園 伝道
- ⑪ 實踐強行의 軍隊式 伝道
- ⑫ 매스콤 伝道

第六章 總動員伝道의 訓練

1. 訓練의 原理

- 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證人이다.
- ② 教会는 全世界에 福音을 傳하기 爲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 ③ 教会의 復興은 教人들에게 伝道訓練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 決定된다.

2. 訓練의 目的

- ① 伝道者 自身부터가 救援觀의 確信을 갖도록 訓練받아야 한다.
- ② 새 信者에게도 믿음으로 救援의 確信을 갖도록 訓練하여야 한다.
- ③ 祈禱와 聖書를 通하여 聖靈의 能力을 받아 生動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④ 教会奉仕의 最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命令을 따라 全民族을 福音化 하는데 있다.

3. 訓練의 方法

- ① 使徒時代式 訓練
 1. 合心祈禱 運動
 2. 聖靈充滿 運動
 3. 合心會集 運動
 4. 有無相通 運動
 5. 福音傳播 運動

② 伝道戰略의 訓練

- 1. 伝道の 새로운 方向의 戰略
- 2. 効果的인 伝道 戰略
- 3. 實踐伝道の 戰略
- 4. 十字型 運動의 戰略
- 5. 불씨運動의 戰略

③ 自主的 伝道 原則의 訓練(Nevius 方法)

- 1. 自給 Self Support
- 2. 自治 Self Government
- 3. 自伝 Self Propagation

第七章 總動員伝道の

새信者 育成(Follow-up)

1. 育成의 原理(고전 3 : 6 - 7)

- ① 심는이(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
- ② 물 주는이(育成을 잘하면 잘 자라고)
- ③ 자라나게 하는이(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 ④ 父母가 子女를 키우듯이(살전 2 : 7 - 11)
- ⑤ 하나님의 摂理, 聖靈의 役事, 그리스도의 손길이 같이하셔야

2. 育成의 目的

- ① 完全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育成한다.
- ② 献身奉仕함으로 그리스도의 生活에 同參하도록 한다.
- ③ 伝道者를 만드는 伝道者가 되도록 한다.

3. 育成을 為한 組織

- ① 새 信者를 中心한 育成班을 組織한다.
- ② 새 信者를 組織에 参加하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 ③ 새 信者의 스폰서를 定한다.
- ④ 区域制를 만들어 区域長을 두고 보살피게 한다.
- ⑤ 10人組를 만들어 組長(勸察)을 두고 새 信者의 育成 現況을 報告케 한다.
- ⑥ 새 信者의 出席圖表를 만들어 每主日 스폰서가 点檢한다.
- ⑦ 欠席케 되는 때에는 順位別로 同時에 尋訪調査하여 解決한다.

4. 育成의 方法

- ① 信仰生活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 1. 教会參席으로 禮拜하는 法
 - 2. 祈禱하는 法과 奉仕하는 生活을
 - 3. 聖書 읽는 生活과 伝道하는 法을
- ② 親切과 사랑과 協助로서 親交를 맺어 教会에 就味를 갖도록
- ③ 本人의 가진 技術로 教会를 奉仕하도록

④ 새 信者를 中心한 育成班을 組織하고 새 信者에게 必要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⑤ 새 信者에게도 伝道할 수 있는 方法을 가르쳐 伝道者가 되게 한다.

⑥ 信仰生活에서 모든 試練을 克服할 수 있는 信仰을 갖도록 한다.

結論：—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證人이다.”

“모든 教会는 全 世界에 福音을 伝하기 為한 그리스도의 몸이나”라고 한 말을 그리스도인과 몸된 教会는 福音 伝하는 일에 全力을 다함은 勿論 總動員 伝道에도 가장 重要한 核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總動員 伝道에서 必要性이나 方法論이나 訓練 또는 育成等은 가장 重要한 部分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읽고 또 實踐으로 옮겨서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全世界 人類가 다 같이 福音化가 되어 福音의 나라, 平和의 世界가 하루 速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끝

진 흥 원 소 식

1. 한경직 원장님께서 미국, 싱가포르, 타이페이에서 전도 강연을 하시기 위해 1월 15일(약 5개월 예정) 출국하셨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고 건강히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흥원에서는 수원교도소(1월 27일), 인천교도소(1월 28일)에서 영화 전도를 실시했음.

3. 영월 전도집회(1월 20-24일)
영월 장노교회에서 전도자 수련회 및 부흥사경회를 개최했음.

전도대장 : 김 지 락 집사(영락교회)

대 원 : 9명(영락교회 성서학원 학생)

강 사 : 소 규 천, 김 군 택 목사

새벽예배는 교인만 대상

낮 : 공부예배는 전도자 수련회, 오후에는 축호전도(전도대원)

밤 : 부흥회 및 영화상영을 했으며 결심자는 253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 영화 전도 광고
3월 22-28일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영화 전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7월이후 금년 12월까지의 영화 전도 신청을 받겠습니다. (10-15교회 이상으로 계획작성 신청바람. 신착순 상영하겠음)

1. 서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자본과 밀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 하나로 건강이라는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

최소한 자기 직책을 감당할만한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본이다. 둘째로 우리는 어느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직업을 갖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자본이다.

이 자본이 없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직업이 없으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세째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용이라는 자본이다. 신용은 인간의 도덕적 자본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도덕적 자본의 중요성을 잊어 버리거나 경시하기 쉽다. 신용이라는 도덕적 자본도 건강이나 지식이나 기술 이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밀천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신용이라는 도덕적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상인을 믿지 못할때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선생을 믿지 못할때 어떻게 그의 가르침을 마음놓고 받을 수 있으며 의사를 믿지 못할때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우리가 지휘관을 믿지 못할때 어떻게 그의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겠는가? 인간의 사회생활은 반드시 신의의 원리위에 입각하고 대인관계의 기본질서인 신의는 정직이라는 토대 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이 없으면 신의는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민족과 국가의 경우에도 그렇다. 어떤 민족이 국제 사회에서 거짓말하는 민족, 부정직하고 불신한 민족이라고 낙인 찍혀 국제적 공신력을 상실할때 그 민족은 외국인과의 거래는 고사하고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의 신체적 자본이며 재산이 경제적 자본이요, 지식이 정신적 자본이라면 신의와 정직은 인간의 도덕적 자본이라 하겠다. 다른 모든 자본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의와 정직이라는 도덕적 자본이 결여돼 있다면 그는 사회에서 제대로 발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본론

가. 정직이란 말의 뜻과 그 중요성

정직이란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이요, 말에 거짓이 없으며 언과행이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 정직은 모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반적 원칙의 첫째이며 당연히 주어야할 타인의 이익을 그에게 주며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영국 격언에“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어떤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 합니다. 남을 속이는 수단을 쓰는일도 있고 거짓말의 방법을 택하는 이도 있다. 또 돈으로 매수하고 힘으로 누르는 자가 있는가하면 감언이설로 꾀이거나 회유와 위압의 방법을 쓰는 자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과 수단으로 일시적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할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거짓말과 속임수와 감언이설은 오래가지 못하고 거짓은 결국 들어나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정직만이 최고의 정책이요 가장좋은 방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움직일 수 없는 경험적 진리이다. 미 육군에서 부정직으로 오는 많은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1년에 천질백만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도덕적 원리를 중요시하는 군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1974년 7월 저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합중국 '닉슨 대통령이 미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으며 안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직은 군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여러가지 보고나 판단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원칙인 것이다. 전투에 있어서 정찰의 불확실 혹은 정보의 진실성 결여로 수많은 장병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패전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수가 흔히 있는 것이다. 승리는 오직 정직과 참에서 오는 것이다. 한사람의 부정직에서 오는 불합리는 우리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속임수는 일시적 성공의 수단이요 정직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거짓과 속임수가 얼마동안은 통할지 모르나 얼마 못가서 들어나고 만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만큼의 사람을 늘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늘 속일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진리는 인

생의 명백한 잔리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서두르는 나머지 또는 목적을 빨리 달성하려는 조바심에서 정직의 태도를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의 수단을 쓴다.

그러나 그러한 수단은 결국 실패와 파멸의 구렁텅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수면으로 물결이 일듯이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퍼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무개의 거짓말을 다시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 거짓말장이야 말로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이 늘 불안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어 콩으로 메주를 쏘는데도 남이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은 도덕적 자살행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과 밑천을 잃어 버리게 됨으로 진실과 정직은 성공과 번영과 행복의 길이요 허위와 사기는 실패와 파멸의 걸림을 명심하자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며 이 원칙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생활신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직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귀한것은 정성과 용기와 노력으로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온갖 가치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아 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피땀으로 쟁취 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정직이라는 인생의 보배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도덕적 수련을 통하여 쌓아올려야 하는 정신의 탑이다. 내게 이로울 때만 정직하고 불리할 때는 부정직 해서는 아니된다. 내게 이롭진 불리하진 한결같이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성격의 형성은 결코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져서 성격을 이루려면 오랜동안의 정성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 까닭은 인간성은 반드시 선의 원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의 싹과 동시에 악의 싹이 있다. 우리 마음의 발을 같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여러가지 악의 독초가 무성해진다. 우리는 마음의 발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악의 독초를 꾸준히 뽑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경작 여하에 따라서 악의 화원도 선의 화원도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왕 양명은 “산중의 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속의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질투, 시기, 나태, 거짓, 이기심, 증오, 교만등 악의 종자와 마음의 도둑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들이 선한 인간 올바른 성격 참된 자아를 형성하려면 이러한 악의 원리 마음의 도둑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도덕적 싸움이 없이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정직은 도덕적 훈련으로 우리가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과 거짓 정직과 허위를 준엄하게 가르고 언제나 참의 편에서 서서 말하고 정직한 편에서 서서 살아가려면 강력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주는 원천은 신앙이다.

종교적 신앙이 아니고서는 끊임없는 도덕적 용기를 공급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것은 손해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것이 옳은줄 아는 망국적 사고방식이 통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과 행동원칙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거하여 불신사회를 신의의 사회로 변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이 통하지 않고 거짓말장이가 발 붙이고 살수 없는 정직한 사회를 하루 빨리 건설해야 하겠다. 이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

3. 결 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도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허와 위로 기초하지 말고 진과 정으로 기초합시다. 허와 위는 구름이요, 진과 정은 반석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속임을 버리고 각 개인의 가슴가운데 진실과 정직을 간직하여야 하겠습니까?” 도산에 의하면 거짓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원수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우리의 원수인 속임과 허위를 제거하는것이 새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강조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일을 허위와 거짓위에 세우지 말고 정직과 진실의 기초위에 세워야 하겠다. 국민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응크리고 있는 거짓의 도둑을 몰아내고 정직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각 개인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길인 동시에 우리 민족사회를 자립과 번영의 반석위에 확립하는 길이 될것이다. 끝

“원 고 모 집”

목회자 원고 자료로써 200자 원고지

12~13매 정도 원고 모집함.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한 경 직

편집인: 나 일 선

아세아교회진흥원 발행
서울서대문구우체국사서함 3호
대체구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성림인쇄사



신앙 생활 과 용서

본문 : 마 18 : 21 - 35

한 경직목사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잘 들었으면 그 뜻을 이미 깨달으신 줄 생각한다. 한번은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까”하고 물었다.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흔히 세번까지 용서하여 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곱번까지 생각한 것은 당시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넓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일곱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였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면 사백구십번이다. 그러나 그 뜻은 수의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비유를 한가지 말씀하셨다. 어떤 임금의 한 종이 빛일만 달란트를 졌다. 한 달란트가 미화로 약 천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미화로 일천만원의 큰 빚을 졌었다.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사정을 하니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큰 부채를 그저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 백 데나리온 곧 미화로 말하면 이십불을 빚진 자기 동판 하나를 만났다. 이 동판이 장차 갚을 테니 좀 참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받고야 말았다. 다른 동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것과 같이 너도 네 동판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에게 부켰다” 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

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경고 하셨다.

I.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다. 일천만 달러의 빚을 졌다. 곧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성경은 “의인을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하였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다. 우리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도 사람이 하루에도 죽을 죄 세번을 짓는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듣건대 한번은 M. Luther 가 꿈 가운데 악한 마귀가 나타나 그가 일생에 범한 죄의 목록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자세히 보니 모누루터 자기 손으로 쓴 것이었다고 한다. 이 목록을 보이면서 마귀의 하는 말이 네가 이 모든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나. 그 말을 듣고 루터는 잠간 마음이 아득 하였으나 즉시 요한일서 1 : 7이 생각나서 그 절을 곧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 두루마기에 기록하니 그 모든 죄의 목록이 살아져 없어졌다고 한다.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탕감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므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일천만원의 큰 죄의 탕감을 받은 것이다.

II. 둘째로 깨달을 것은 형제가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던지 그 죄는 백 데나리온 곧 미화로 이십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탕감 받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우리에게 무슨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서로 용서하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래 원망이나 분한 마음이나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이 비유에 나타나는 불의한 종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이미 탕감 받은 죄가 취소될 당할까 염려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종종 엄중히 경고 하셨다 “너희가 각각 중심
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
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마태 6:14에도 “너희가 사
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
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
니 하시리라” 마가 11:35 “서서 기도 할 때에 아무에
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러므로 주기도 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
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기도 하라고 가르치셨다.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내 죄의 용서함을 받
는 필수 조건이 됨을 기억 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약
40년전 제가 신의주 제 2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에 한번은 그때 께산 교회의 원로 목사로 계시던 김
진근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여 주셨다.
자기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어
떤 다른 신학 졸업생과 같이 노회에서 시취를 받은
이야기다. 그때는 노회에 시취 위원이 따로 없고 시
취 받는 목사 후보생을 노회 가운데 내다 세우고 노
회원은 누구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김 목
사님과 다른 형제 한 분이 이렇게 시취를 받는 중에
대답을 무던히 하여 잘 통과가 될 분위기 였다고 한
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때 선전에 있던 한 선교사
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시취는 무던히 된것 같으나
자기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점으로 아직 목사 되기
에는 부족하니 한 노회 기간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노회
의 공기가 돌변하면서 한 노회 기간 연기 하자고 가
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 시험에 낙제를
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할리 없었다. 그 선교사에 대하여 분한 마음이 일
어나서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다시 생각하기를 그 선교사가 자기와
무슨 사협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것은 아무
래도 자기에게 결함이 있고 또 교회에 덕을 생각하
여 그렇게 말한 이유일 것이라 양해가 되었다고 한
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
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한 후에 그
날 저녁 평안히 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오
후에 같이 시험을 치다가 낙제한 친구를 거리에서 만
났다고 한다. 그친구는 그때까지 성이 나서 그 선교
사를 욕을 하더라고 한다. 그럴것 없다고 했지만 듣
지 않더라고 한다. 그 후 6개월 후에 다시 시취를
하고 두 분이 다 목사 장립을 받고 교회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다른 친구는 목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선교사를 욕하더라고 한다. 길게 이야기 할것 없
이 그 다른 친구는 수년 후에 목회하는 일에서 아주
떠났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때 젊은 교역자
로서 깊이 들었다. 교역자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나
사실 이었던지 오해였던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
니하고 분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자신은 은
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
물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
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를 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Ⅲ. 세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야 말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 주
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 하였다. 간음한 젊은 여
자의 죄도 용서 하였다. 살인 강도의 죄도 용서 하
였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도 용서 하
였다. 용서는 가장 고귀한 인격의 표현이다. 옛날서
바나 속담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며 선
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라 곧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
지 사랑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스테반도 자
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 하
였다. 그러므로 한국이 낳은 성자 손 양원목사도 자
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여 주고 그를 자기
아들로 대신 하였다고 한다. 19세기에 토이기에서
알매니아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고 학살 할때에 토이
기 한 군인이 잘 믿는 알매니아 사람 남매를 쫓아
가서 그 오빠를 쳐 죽였다고 한다. 그후 그 어린 누
이 동생이 커서 어떤 병원에 간호원이 되었는데 하
루는 한 토이기 군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하였다. 자
세히 보니 그 군인은 몇해전에 자기 오빠를 쳐 죽인
군인이었다. 중상을 입었으므로 그저 간호만 좀 게
을리 하여도 그 군인은 살기 어려운 상태이었다. 이
여자는 일시 복수심이 일어났으나 그는 곧 자기는
그리스도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용서
하고 정성껏 그를 간호 하였다고 한다. 얼마후에 그
가 점점 나아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원을 자세히 쳐
다보니 그는 몇해전에 자기가 쳐 죽인 그 알매니아
사람의 여 동생 임에 틀림 없었다. 그는 놀라서 그
사실을 물어 보니 그렇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는 한번 더 놀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원수인데 어
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간호하였는가”하고 물었다

고 한다. 그 간호원도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 한다고 대답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 군인은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면 나는 회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 용서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길이다.

하늘 나라는 용서를 받은 이들만 모인 곳이다. 또 용서를 하는 이들만 가는 곳이다. 하늘 나라에는 용서라는 말이 가장 귀한 말이다. 이 말을 모르면 천당에 들어 갈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악마의 마음이다.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누구나 피차에 용서를 해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Spurgeon은 일찍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아주 잊어 버리라. 미친개를 파물을 때에 그 꼬리를 내놓

지 말라”고 하였다. 아주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고 하였다. 중상을 당하거나 무슨 재산의 손해를 당했거나 무슨 모략을 당한후에 그것을 용서하고 분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결코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천만분의 큰 죄의 빛을 하나님께로 부터 탕감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형제간에 적은 과실과 죄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이것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자.

요 약 설 교

바쁘신 설교자를 돕기 위해 간추렸습니다.
임의로 활용하십시오.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도들의 권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 나라” (고전 15:18)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명령한다.

- I. 그리스찬의 신앙(믿음)에 있어서 견고하라.
- II. 그리스찬의 성품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
- III. 그리스찬 서비스에 있어서 열심을 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 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방문하신 가정들

- I.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 (요 2 : 1 - 11)
- II. 시몬과 안드레의 가정 (막 1 : 29 - 35)
- III. 마태의 가정 (막 2 : 14 - 28)
- IV. 야이로의 가정 (막 5 : 22 - 24, 35 - 42)
- V. 바리새인 시몬의 가정 (눅 7 : 36 - 50)
- VI.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눅 10 : 38 - 42)
- VII. 삭개오의 가정 (눅 19 : 1 - 10)
- VIII. 큰 다락방이 있는 가정 (눅 22 : 11 - 14)
- IX. 엠마오에 있는 한 가정 (눅 24 : 13 - 35)

크리스찬의 기쁨의 원천

(살전 5 : 16 - 18)

- I. 믿음의 기쁨 (벧전 1 : 8)
- II. 거하는 기쁨 (요 15 : 11, 12)
- III. 간구하는 기쁨 (요 16 : 24)
- IV. 듣는 기쁨 (요 17 : 13)
- V. 순종의 기쁨 (요 13 : 17)
- VI. 책임 완수하는 기쁨 (행 20 : 24)

참된 겸손 (요 13 : 1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V. 15)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환경에서만 겸손하다. 링컨 대통령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I. 참된 겸손은 깊은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 II. 참된 겸손에는 패배감이 있을수 없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 III. 참된 겸손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 IV. 참된 겸손은 형제의 발을 씻기 위해 허리를 굽힐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상처들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福音化를 위한 實踐傳道

전후에 복음화를 위한 총진도(제2집)을
실고 이번호에 그 1집을 냅니다.

福音化를 위한 實踐傳道の 目次

緒論：—

第一章：福音化와 實踐傳道の 意義.

第二章：實踐傳道の 原理.

第三章：實踐傳道の 必要性.

第四章：實踐傳道者의 資格.

第五章：實踐傳道の 方法.

第六章：實踐傳道者의 訓練.

第七章：實踐傳道の 새 信者 育成法.

結論：—

福音化를 위한 實踐傳道

緒論：—

이 나라 이 民族의 生死 관가름은 이 民族 全体가 福音化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있다. 호시탐탐 南侵을 꾀하고 있는 北傀들을 무엇으로 対決 勝利할 것인가? 오직, 이 民族이 福音化가 되어 福音으로 살게 되는 때에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民族이 하루 速히 福音化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그 전략을 세운 것이 바로 “福音化를 위한 實踐傳道”이다. 그 內容을 七章으로 나누어 그 骨子만을 간추려 본다면：—

第一章 福音化와 實踐傳道の 意義

1. 福音化란 1961년에 李基赫 牧師께서 總會 副會長 當時 總會 席上에서 提言하여 62年度에 會長이 되시면서 總會에서 推進할 것을 決議함으로써 福音化運動이 始作되었다. 이로 인하여 各 教團은 勿論 個體教會에서까지 福音化 運動의 火가 일어나 全國적으로 波及이 되었다. 이로서 福音化 運動을 中心으로 한 伝道大集會가 培材 運動場에서 約 5万名, 서울 運動場에서 約 10万名, 民族廣場에서 約 110万名이 모였던 바는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福音化란 全國을 福音으로 살린다는 뜻에서 “全國福音化”도 있고 全 民族을 살린다는 뜻에서 “民族福音化”도 있고 또 한 韓國을 살린다는 뜻에서 “韓國福音化”도 있다. 어찌했든 “福音化”란 살린다는 뜻은 틀림없다. 무엇으로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福音으로 生活化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信念의 폭발이기도 한 것이다.

2. 實踐傳道란 聖靈의 役事를 통하여 實踐生活로 그리스도를 傳하는 것이다.

(1) 實踐傳道에는 先行되어야 할 二大運動이 있다.

① 祈禱運動 행 1：14.

② 聖靈運動 행 1：8, 고전 2：4.

(2) 實踐傳道에는 지녀야 할 五大 基本 原則이 있다.

① 伝道에 對한 関心.

② 伝道에 對한 熱意.

③ 伝道에 對한 決斷.

④ 伝道에 對한 實踐.

⑤ 伝道에 對한 強行.

(3) 實踐傳道에는 重要課題가 있다.

①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②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하느냐?

③ 어떻게 興味를 갖게 하느냐?

④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⑤ 어떻게 訓練을 시키느냐?

第二章 實踐傳道の 原理

1. 播種의 原理 마 13：3-9, 18-22.

2. 秋收의 原理 마 13：24-30.

3. 漁夫의 原理 마 4：19, 13：47-48.

4. 報償의 原理 마 20：1-16.

5. 하나의 原理 눅 15：3-10.

第三章 實踐傳道の 必要性

1. 聖書에 나타난 必要性

(1) 하나님의 附託 살전 2：4.

(2) 그리스도의 至上命令 막 16：15.

(3) 바울의 強勸 딤후 4：2.

(4) 빛을 갖기 爲하여 롬 1：14.

(5) 禍를 免키 爲하여 고전 9：16.

(6) 末世聖徒의 責任이 됨으로 마 24：4.

(7) 伝道の 門이 열렸음으로 골 4：2-3.

(8) “내 집을 채우라”命하였으므로 눅 14：23.

(9) 그리스도의 証人이 되었으므로 행 1：8.

(10)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기 爲하여 요 15：8.

2. 教會가 要求하는 必要性

(1) 現實教會가 復興 發展하려면 무엇보다도 伝道가 필요.

(2) 伝道하는 教會는 復興하고 伝道않는 教會는 自滅한다(빌리그레함).

(3) 天下보다 貴한 生命을 救援하려면 무엇보다도 伝道가 必要.

(4) 오늘의 伝道는 口呼의 伝道보다 實踐生活의 伝道가 더욱 必要.

(5) 伝道는 믿는 者에게 주어지는 特權.

(6) 伝道는 自身의 信仰 育成을 爲해서도 더욱 必要

第四章 實踐伝道者の資格

1. 自身の救援觀이 確實한 者.
2. 남의 靈魂을 내 靈魂처럼 사랑하는 者.
3. 聖靈의 權能을 받은 者(행 1:8).
4. 祈禱의 靈力과 聖書의 靈糧을 가져 召命感에 불타는 者.
5. 伝道의 觀心과 熱意와 決断力을 가져 實踐強行하는 者.
6. 實踐生活로 本을 보여 그리스도를 證據하는 者.
7. 實踐伝道者는 犠牲과 奉仕의 精神으로 殉教의 覺悟를 가진 者.

第五章 實踐伝道의 方法

五千万 全 民族을 福音化 하기 爲하여는 여러가지 戰略과 方法이 必要할 줄 안다.

1. 戰略에 있어서는 一般의 戰略과 特殊의 戰略으로 分해 본다.
 - (1) 一般의 戰略이란 福音化를 目的으로 한 모든 機關 團體는 勿論 全國적으로 個人伝道나 大衆伝道, 一般伝道나 特殊伝道 等 各 分野別로 組織된 모든 伝道團體까지 한데 묶는 作業에서 橫적으로 連結을, 縱적으로 統一性을 가져 十型의 運動을 展開케 한다. 이 運動을 一名 “十型戰略運動”이라고도 한다.
 - (2) 特殊戰略이란 福音化를 어떻게 보다 더 効果의으로 速한 期間內에 成就할 수 있느냐?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福音化란 民族을 살리고 나라를 復興케 하는 運動이 되기 때문이다. 이 戰略에는 무엇보다도 使徒行伝時代로 돌아가서 當時에 일어났던 놀라운 役事의 祈禱運動과 聖靈運動이 일어나야 한다. 이 運動을 一名 “불씨運動”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祈禱運動의 불씨, 聖靈運動의 불씨, 伝道運動의 불씨다. 使徒行伝時代에 3千名에게 洗禮 베푼 일, 5千名에게 伝道運動을 展開한 일 等은 祈禱運動을 통하여 聖靈運動의 暴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伝道學校”라는 책 첫 페이지를 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韓景職 牧師님의 祈禱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는 “實踐伝道는 祈禱로부터”라는 文句가 쓰여져 있다. 福音化는 언제나 祈禱로부터 始作하여 聖靈의 運動으로 暴發되어야 한다. 全國 福音化運動 委員長인 李基赫 牧師님의 提意로 全國 福音化를 爲한 十萬名 祈禱運動을 展開케 한 것도 그 理由中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福音化運動의 一般의 戰略으로는 “十型運動”이요 特殊의 戰略으로는 “불씨運動”이다. 불씨란 떨어지는 곳마다 번지고 태워서 淨化를 한다. 그 뒤에는 새싹이

나와 “奇花妖草” 萬發하게 된다. 바로 이 “奇花妖草”가 福音化의 生命運動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 8:1 -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飢饉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 敎인들이 이미 불씨를 받은지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 使徒行伝時代 “불씨運動”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2. 方法에 있어서는 國內外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모든 方法을 간추려보면 約 45種이나 된다. 其中에서 韓國의 적성에 맞는 몇 가지 種目만 紹介한다.

- (1) 主님께서 하신 相談式 伝道(요 4:7-19).
- (2) 使徒들이 한 안드레식 伝道(요 1:41).
- (3) 70門徒들이 한 그룹式 伝道(눅 10:1-2).
- (4) 바울의 特異한 伝道方法(고전 9:19-23).
- (5) 하나의 運動(눅 15:3-10).
- (6) 過去 先輩들의 復興集會를 통한 伝道.
- (7) 平信徒 運動을 통한 개미式 伝道方法.
- (8) 實利主義의 現代式 伝道.
- (9) 産業 伝道를 爲한 浸透式 伝道.
- (10) 實踐主義 生活를 통한 實踐伝道.
- (11) 農村 敎會를 爲한 植資伝道.
- (12) 實踐強行의 軍隊式 伝道.
- (13) 敎理學術의 學園伝道.
- (14) 미끼를 주는 漁夫式 伝道.
- (15) 매스메디아를 통한 매스 伝道.

第六章 實踐伝道者의 訓練

1. 訓練의 原理

- (1)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証人이다.
- (2) 敎會는 全 世界에 福音을 傳하기 爲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 (3) 敎役者는 勿論 平信徒들도 伝道訓練을 받아야 한다.
- (4) 한 靈魂을 救하기 보다 伝道者를 訓練시키는 것이 더욱 重하다.
- (5) 우리는 어떻게 그들로 伝道하게 할 것이냐가 더욱 重하다.
- (6) 敎會 成功의 秘訣은 伝道運動을 爲하여 平信徒들에게 얼마나 무장을 시켰느냐가 보다 더 重하다.

2. 訓練의 基礎

- (1) 福音으로 유도하는 方法.
- (2) 個人의 靈의 狀態를 측정하는 方法.
- (3) 福音 自体를 傳達하는 方法.

- (4) 그리스도의 至上命令을 實踐케 하는 方法.
- (5) 안드레式 傳道를 適用하는 方法(요 1 : 41).
- (6) 福音을 가지고 世上으로 뛰어 들어가는 方法.
- (7) 五官을 通하여 傳道하는 方法.
- (8) 매스콤을 通하여 傳道하는 方法.

3. 訓練의 目的

- (1) 그리스도로 因하여 自身救援의 確信을 갖도록 한다.
- (2)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罪 씻는 方法을 分明히 알도록 한다.
- (3) 聖靈充滿함을 받고 聖靈 안에서 生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方法을 배우도록 한다.
- (4) 聖靈 안에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引導하는 方法을 배우고 계속 育成하는 方法을 배워 實踐케 한다.
- (5) 教會 生活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命令을 따라 全民族을 福音化 하는데 그 目的을 둔다.

4. 訓練하는 方法

- (1) 使徒時代式 訓練.
- (2) 傳道戰略.
- (3) 불씨 運動.
- (4) 自主的 傳道原則.
- (5) 總動員 原則.
- (6) 教會領域의 擴大原則.

第七章 實踐傳道の 새 信者 育成法(Follow-up)

1. 育成的 基本哲學

- (1) 熱心히 福音의 씨앗을 뿌린다.
- (2) 決信者를 組織에 參加케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 (3) 獻身 奉仕함으로 그리스도의 生活에 參與하도록 한다.
- (4) 傳道者를 만드는 傳道者가 되도록 한다.
- (5) 더하기 法의 繁殖이 아니라 곱하기 法의 繁殖을 強調한다.
- (6) 聖靈의 役事와 引導를 따라 動員하도록 한다.
- (7) 熱意있는 信者와 새 信者가 서로 사킴으로써 가진 熱意를 傳熱케 한다.
- (8) 傳道の 訓練과 訓練의 育成을 繁殖시킴으로 世界를 福音化 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役事한다.

2. 育成的 原理

- (1) 育成이란 어머니가 子女를 키우듯이 새 信者가 自立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聖經 真理로 무장시켜 일어서게 하는것이다(살전2 : 7)
- (2) 育成的 原理는 딘후 2 : 2 - 4에 있다.
- (3) 育成은 主님의 가르쳐 주신 播種의 原理를 適用

하여야 한다(막 4 : 3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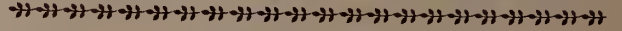
- (4) 育成은 하나님의 攝理와 聖靈의 役事와 그리스도의 손길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原理를 가져야 한다.

3. 育成을 爲한 組織

- (1) 새 信者의 스폰사를 定한다.
- (2) 區域制를 만들어 區域長을 定하고 보살피게 한다.
- (3) 10人組를 만들어 새 信者의 育成現況을 相互報告케 한다.

韓國福音化運動本部

傳道者 李 權 燦



청 령

청령이란/

편집실 제공

- 1. 부정과 부패에 반대되는 깨끗함이란 뜻.
- 2. 물질적 경제적으로 결백함.
- 3. 다른 사물과의 혼잡으로부터 자유하게되는 것.
- 4. 도덕적으로 무결한것.
- 5. 종교적으로 무죄한것 등을 의미한다. 위에서 밝힌 말뜻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고 관찰할때 청령이란 대체로
 - 1. 물질과의 관계
 - 2. 정신과의 관계
 - 3. 윤리적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물질을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

정신을 어떻게 가다듬고 대하느냐

사람과 사회와 어떻게 교섭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절실히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것이 청령이다.

어느 대학에서 청렴하고 결백하여 원리 원칙만을 주장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뜻밖에도 교수에게 학생들은 교과서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은즉 현실은 깨끗한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몇해전 한국일보에 현직 어느 검사가 늘어날 공무원 경제 범죄란 제목하에 실린 기사를 보니 개발 도상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화 하는 범죄 양상은 사회발전을 내부적으로 침식 저해하는 최대의 암적 존재라고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불안정과 불균형, 사회환경적 요인과 또한 정치적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그 요소를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검사는 정치적 부패는 경제범죄의 온상이 되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생리화 고질화된 상태 아래서 경제적 범죄는 증가한다고 한다. 경제 범죄론에서 경제 환경과 범죄는 물과 불고

기와 같은 관계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은 자신을 억누르기 어려운 처지에서 그를 박차고만 것이다. 여기에 일생을 정말로 청렴하고 내뺀 생활을 하여 사회의 등불이 되어있는 실례는 들어보겠다. 일생을 옷 한벌 변변히 해입지 않고 모은돈 일천만원이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기금이 된 것이다. 알몸으로 6.25때 월남해서 리어카를 끌며 부산 남포동과 서울의 청계천을 맴돌기 25년 그는 회갑날 이복에 두고온 어린 것들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 하룻밤을 꼬박 뜬눈으로 새끼에 돈없는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게 인생인데 내딛는 힘은 곧 용기와 지혜의 힘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재하고 있는 것은 청렴한 마음의 자세이다. 몇해전에 어떤 대령 한 사람이 동네 청년들에게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이유인즉은 짬뽕도 없이 걸어다니는 셋방살이 대령은 필경 가짜일것이라는 생각에서 순박하면서도 잘못된 판단이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관이 인도에 불일이 있어 다녀온 뒤에 인도의 공무원들 이란 수필을 쓴것을 읽은 일이 있다. 그는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인도 철도공무원의 생활이 궁금해서 승무원 한사람을 옆으로 불러 몇 가지 물었다는 것이다. 십삼년간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승무원은 2남 8여의 가장으로서 월봉 110루피(우리나 돈으로 환산하면 3천 7백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적은 봉급으로 그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부수입이 있을텐데 그것으로 생활의 보탬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 승무원은 대답하기를 지금 인도에는 끼니를 이으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철도승무원으로 삼십년간이나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을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부에 대해 불평을 하겠는가 물론 봉급가지고 생활이 되지않기 때문에 부인과 가족들이 전불과 기타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부정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많은 봉급자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 부정을 퇴치하는 가장 절대적인 전제는 봉급의 인상이 아니라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건실하고 알뜰한 내뺀하는 생활자세인 것이다. 이내뺀하는 생활태도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은 청렴해질 수 있는 것이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청렴할때 깨끗한 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깨끗한 정신은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물질에 대한 청렴한태도 그것만으로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나 종교생활을 무죄한 상태로 지양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부정이 존속하는 한 윤리적인

로나 종교적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나라 한 사회의 관리의 부패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법관의 부패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무섭고 가장 위대한 때는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사법부가 부패했을 때가 아니라 군대가 부패 했을 때인 것이다. 세계사를 들추어보면 한나라의 흥망은 군대의 생활자세에 의해 그 운명은 결정되었든 것을 알 수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는 부패한 군에 의해 도리어 적은공산당에게 넘어가 그 광대한 나라를 1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공산당 지배하에 넘겨버리고 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이 잘 정돈된 사람이다. 일천만원을 선뜻 내놓은 이씨의 차림새는 부자답지 않게 초라하다. 찌그러진 중절모자와 낡은 바지 차림 그것이다. 지난해 이씨의 회갑잔치는 쓸쓸했다.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고향땅에 두고온 자녀들 그리고 고생만 시키다 헤어진 두살 위의 아내의 모습이 어느때보다도 그리웠다. 가정사정으로 중학만을 겨우 나온 이씨는 십칠세에 결혼, 9남매를 낳으면서도 줄곧 떠돌이 생활을 했었다. 사십고개를 바라보며 늦철이 들었을때 6.25가 터진 것이다. 그는 장남 하나만을 데리고 고향땅을 떠났다. 부산 남포동의 피난생활은 차라리 거지생활이었다. 오징어장사, 땅콩장사 리어카를 끌며 부자는 폐도 많이 울었다 한다. 단 하나의 혈육을 아침찬기 먹이지 못하고 군대에 보내던날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이를 악물었다. 그 녀석이 제대하든날을 목표로 잡아서 부두가의 짐꾼으로부터 해삼장사까지 닦치는 대로 일했다. 수복이 되자 청계천에서 조그마한 포목장사를 시작했다. 돈이 모이는데로 땅을 샀다. 그리고 십년전에는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아내도 맞아들였다. 제대한 장남까지 뛰어들자 돈은 쉽게 쌓였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남포동 피난시절의 생활과 다를바 없는 내뺀생활이었다. 점심은 꼬박 오십원짜리 우동 한그릇으로 때웠다. 주위에서는 자가용을 전세내어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 빚돈을 얻으러오는 사람들을 대할때마다 그이의 청렴한생활은 하나의 생활신념이 되었다.

북녘땅의 어린 자녀들을 업고안은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던 조강지처의 초라한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고향에 두고온 자식들을 생각하며 불우한 젊은이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그는 회갑날 쓰여질 돈을 한푼도 쓰지않고 입학금을 마련못해 돈을 빌려온 친구들의 자녀들 십오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주었다. 그후 어느학생은 성적표를 가지고와 자랑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남못할 고생과 내뺀

으로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주고나니 인생의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끼어 영구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부동산을 처리하여 일천만원을 만들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뒤 장학회를 차리었다. 성격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이 불우한 학생에게 대학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에 새삼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조그마한 마음의 정표를 세상에 드러내는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겸손해 하였다. 이상은 어느 한 인간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오늘날 돈줄 있으면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인양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다. 반면에 정말 우리의 살길은 온 국민이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부결과 타협하지 말고 금전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되겠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고래로 인욕행이란 말이있다. 이뜻은 두말할 나위없이 내가 참고 견디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피어 자신을 아는 정신이 청렴의 상태이다.



목회자료

환자를 위한 찬송과 성경

- ◎일반환자 : 290 424 464 297 309 시50:15 야 5:13-18 마9:20-22 요5:1-9 막10:46-52 마8:1-4 행3:1-10
- ◎응급환자 : 시121:1-8 시91:1-6, 14, 16시 46:1-3 마7:7-11
- ◎장기환자 : 440 297 335 352 501 롬8:35-39 약1:2-4 벰전1:6-7 시61:1-8 사46:4 빌4:4-7, 13, 19 고후4:7-11 고후 12:7-10
- ◎수술직전 : 343 440 340 336 사41:10 사43:1-3 시139:1-12
- ◎불신환자 : 284 503 487 446 271 292 마11:28 막11:22-24 마8:5-13 막2:3-12 요 3:16-17 요5:24 눅15:1-10
- ◎실망환자 : 279 168 411 425 288 36 시62:5-8 시41:3 막9:23-27 사49:14-15 마15:21-27 렘29:11-13 고후10:13
- ◎운명환자 : 502 126 324 253 260 496 시23:1-6 요14:1-6 롬8:35-39 벰전1:3-9 사53:4-6
- ◎어린이환자 : 549 67 438 557 560 막10:13-16 마15:21-28 시128:1-6 사40:11

진흥원소식

1. 영화 전도 광고
7월-12월까지 영화전도 신청을 받겠습니다. (10-15교회 이상으로 계획작성 신청바람. 선착순 상영하겠음)
2. 진흥회보를 74년 12월부터 75년 6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회비 기간이 지났사오니 76년도 진흥회비를 우표 10장이나 대체구좌 523290번으로 200원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척교회 교역자 목회 연구회 (5월 3일 - 6월 4일)가 있사오니 참가 희망자는 청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교역자는 총회 전도부로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양서 소개

찬 송 가 사 전

지은이 조 의 수

특징 개편, 합동, 새 찬송가, 청년찬송가, 성공회 성가집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각종 찬송가를 가나다순으로 찾아 볼 수 있게 편집 되었다.

◎ 저자가 미국 호놀룰루 도서관에 있는 맥커친 자료집에서 수집 해 왔다.

◎ 유래와 해설이 찬송가 학적근거를 토대로 했다.

◎ 가사 색인, 곡조 색인, 희랍 찬송가에서 유래된 찬송가 색인, 영문을 중심한 가사 찾아보기

◎ 한국찬송가 발전사

◎ 한국 작사, 작곡자에 관한 주석 총 600페이지 사전판 값 2,500원 Jean W. Underwood (원 진 회) 조의수 공저

주문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84-8

한국찬송가 위원회

직 장 : 전화 72-7809, 74-1906

주 소 : 우편번호 133-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매 239-15호 22통 5반

자 택 : 전화 56-1084 간사 조 의 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절찬 판매중





교회진흥회보

THE CHURCH GROWTH NEWS

발행인 : 한 경 직
편집인 : 나 일 선
아세아교회진흥회 발행
서울시대문우체국사서함 3호
대우회 서울 523290
전화 63-0071~3
인쇄 성립인쇄사



억지의 십자가

본문 : 막15 : 21 - 32

한 경직목사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막15:21)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한 정죄를 받고 군사들에게 끌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한 장면이다. 요한 복음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홀로 지고 언덕길을 걸어 올라 가기를 시작하였으나 여러번 쓰러 지셨다. 오래 지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많은 육체적 심리적 고난을 받은 까닭인줄 생각한다. 이렇게 군사들이 주님께 십자가를 메우고 골고다로 올라 갈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길 좌우편에 몰려왔다. 그 가운데는 주님을 아는 이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알지 못하는 무리인줄 생각된다. 그 무리 가운데 멀리 아프리카 북방 구레네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 시몬 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다. 아마 이 분은 비록 멀리 외지에 살지만 경건한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 아마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여관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잠깐 멈추어 예수님 행렬 가까이 왔던 모양이다. 그때에 로마 군인 하나가 갑자기 그를 붙들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가기를 명령 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군인들이 언제나 마음대로 강제 부역을 시키던 때이다. 그리하여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까지 올라 갔다. 이렇게 억지로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시몬의 심정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는 속으로 매우 불평 하였

을 것이다.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다” 탄식 하였을 것이다. 수고도 수고려니와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실로 패역 무도한 죄수들만 지는 것으로서 부끄럽기가 한량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땀을 흘리며 지고 골고다에 까지 올라 갔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기록 한대로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하였다. 이렇게 쓴 것을 보니 당시 교회 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던 모양이다. 그리고 로마서 16:13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할 때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하였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보면 그의 이 루포는 그 때 로마에 살았으며 잘 믿은 분 더러 그 어머니는 바울을 잘 도운 여인이나. 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여 전도하러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었는데 그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 둘째로 ‘여진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이 시므온은 시몬과 같은 이름이요 니게르라 하는 뜻은 점다는 뜻인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방이므로 열대 지방이어서 시몬은 그 열굴이 다른 이들보다 좀 검은듯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시몬은 곧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며 또한 믿을만한 전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은 잘 믿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는 주님의 모습을 자연히 좀 살렸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주의 음성도 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이들이 아지 못하여 이런 일을 하오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회개하는 같이 못 박힌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같이 해가 어두워 지며 바위가 터지는 큰 징조도 목도 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였다. 믿은 후에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 하였을까? 한 마디로 감사히 생각 하였을 것이다. 주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도 주님을 도와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감격히 생각 되었을 것인가! 그 때에는 실로 굴욕이었으나 그 후에는 얼마나 큰 영광 이었던가. 사실 구레네 시몬은 한 무명의 순례자 이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으므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그는 불멸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억지와 굴욕의 십자가는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한 것이다.

I. 성경을 읽노라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들은 구레네 시몬만은 아니다. 구약에서도 더러 찾아 본다. 가령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 그는 행복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평안한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갑자기 큰 말하자면 억지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영소에 종으로 팔려서 멀리 애굽으로 어린 북이 끌려가게 되었다.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던 소년은 갑자기 남의 집의 종이 되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로 고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도 불로 처음에는 마음에 큰 불꽃을 분노를 가졌을 줄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온전히 주께 맡기고 버려진 바에서 주를 노릇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수년 후에는 수인의 시기를 받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가정 호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후사다마라고 그 때의 보디바의 노예를 통하여 받은 요셉에게는 온 집안의 시기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남대할 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음탕과 음모로 가득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까지 던짐을 받았다. 말하자면 두번째 억지의 십자가를 진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삼으며 최후로서 가장 착한 죄수가 되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찌 세 갈아 주실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이다. 요셉도 역시 억지의 십자가를 두번씩이나 졌으나 그는 믿음으로 굴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축복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었다. 요셉만이 아니다. 우리는 동방의 의인 욥의 이야기를 잘 안다. 그는 실로 다복한 분 이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십 남매나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인초에 큰 환난을 당하여 재산도 사라졌고 그 아들답던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다. 보통 십자가가 아

니라 실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많은 번민과 오뇌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탐구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다른 방면의 축복도 갑절이나 받았다. 욥이 진 억지의 십자가도 결국은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였다.

II. 여러분 인생행로에는 종종 억지의 십자가를 짊어 매가 있다. 어떤이는 평소에 건강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만나 가령 자동차 사고등을 만나 크게 부상하여 그만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이는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혹 일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를 잃고 일생을 고아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젊은 자매들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늙어 기력은 쇠약하여 졌는데 부양할 자녀가 없다. 어떤 이들은 남달리 고독의 십자가, 어떤 이들은 남달리 빈곤의 십자가, 어떤 이들은 큰 슬픔의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남달리 억지의 십자가를 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남달리 38선의 무거운, 진실로 억지의 십자가를 모두 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 38선의 십자가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을 젖었는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다. 이 억지의 십자가는 개인은 물론 반민족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우리 민족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중동전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류 피로와 통고와 거기에 따르는 노동 불거우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다. 실로 이것도 억지의 십자가이다. 중동전이 사실 우리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나 세계는 이미 좁아 졌다. 지구 한 모퉁이에서 되는 일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인류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국가적으로 모두 이 억지의 십자가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III.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하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 억지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어떤 태도로 짊어 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미도 말하였지만 욥의 가정에 그러한 큰 환난의 십자가가 미칠 때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수선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라” 하였다. 여기 십자가를 지는데 대한 욥의 아내의 태도가 있다. 곧 아

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시 말하면 욕의 아내는 낙심 하였다, 분노 하였다, 그리하여 반항 하였다. 사실 억지의 십자가가 누를때에 이렇게 대하는 이들이 있다. 불평하며 낙방하여 자포자기 하고 반항 한다. 그리하여 사실 어떤 이들은 자살까지 한다. 이런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실로 양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민망히 여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 결국은 내 자신이 파멸을 당할것 뿐이다. 이것은 개인도 그러하고 한 민족도 그러하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다. 그러면 이 억지의 십자가를 옮겨 지는 길이 무엇인가? 욕의 아내의 말에 욕이 대답한 말을 분명히 들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 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 하였다. 욕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이다. 곧 우리가

다 어찌하여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그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이 신앙으로 오는 힘으로 그 십자가를 꾸준히 지고 가야 한다. 곧 신앙과 인내와 용기로서 꾸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욕 뿐만 아니고 과거 모든 성도들과 성자들과 순교자들이 가진 태도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은 성도들에게 금생에 그렇지 않으면 내생에 반드시 이 고통의 십자가가 변하여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남 달리 무거운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계신줄 안다. 낙심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뿐더러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인내와 용기로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꾸준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주님도 같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복음화를 위한 실천전도

회보제9 호에 다 실리지 못한것 10호에 계속 냅니다.

(4) 새 信者의 出席 図表를 만들어 每週 点檢한다.

4. 育成의 實踐課題

(1) 信仰生活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 ① 教会 出席으로 禮拜하는 法을.
- ② 祈禱하는 生活과 奉仕하는 生活을.
- ③ 聖經읽는 生活과 伝道하는 生活을.

(2) 基督教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 ① 하나님의 사랑과 그 攝理를.
- ② 人間은 罪人인고로 살길이 없다는 것을.
- ③ 그리스도는 贖罪主이신 것을.
- ④ 聖靈의 役事로 悔改하고 그리스도를 迎接하면 永生의 길이 있다는 것을.

(3) 바울의 育成方法(살전 2:2-11, 3:2-10).

- ① 福音傳播의 도전 2:2.
- ② 附託의 實踐 2:4.
- ③ 生命까지 分讓 2:8.
- ④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2:9.
- ⑤ 거룩하고, 옮겨, 흠없이 살아왔다. 2:10.
- ⑥ 아버지가 子女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로 했다. 2:11.
- ⑦ 디모테를 통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慰勞하며 모든 苦難을 克服하도록 했다. 3:2-3.
- ⑧ 信仰生活을 点檢하고 3:5.
- ⑨ 信仰成長을 爲하여 祈禱했다. 3:10.

(4) 教会를 中心으로 한 育成方法.

- ① 教会에서는 새 信者 育成班을 組織하고 特別 指導 訓練한다.

② 親切과 奉仕와 사랑으로 親交를 맺어 教会에 就味를 갖게 한다.

③ 本人의 技術을 通하여 教会를 奉仕케 한다.

④ 새 信者에게도 伝導할 수 있는 意慾을 가지게 하여 救援받은 내가 救援받지 못한 者를 救援하도록 訓練한다.

⑤ 信仰生活中에서 試驗과 苦難이 닥칠 때에 信仰으로 克服할 수 있는 訓練을 준다.

5. 育成의 結果(살전 1:3-8).

(1) 믿음, 所望, 사랑이 表現된다. 1:3.

(2)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1:5.

(3) 바울의 生活을 본받는다. 1:6.

(4) 다른 信者에게 본이 된다. 1:7.

(5) 믿음의 所聞이 各處에서 증거가 된다. 1:8.

結論: -

結論의으로 福音化를 爲한 實踐伝道에 있어서 세 가지 重要한 課題를 다시한번 해석해 본다. (첫째로)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教会 밖의 사람을 教会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方法은 45種이나 있다고 했고 그中에서 15種目만 列擧했다. 그 中에서도 가장 效果的이며 누구나 容易히 할 수 있는 “現代式伝道”를 具體的으로 紹介한다. (1)누구를 引導할까 祈禱中에 指示를 받으라. (2)親切과 奉仕와 사랑으로써 親交를 맺으라. (3)要請에 依하여 教会로 引導하라. (4)一年間 責任지고 教会로 引導하며 指導 育成하라. (5)信仰이 確立되거든 堂會에 맡기고 또 一人을 挾하라.

(둘째로)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하느냐?” 여러가지 方法으로 教会에 들어오기까지는 했으나 계속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最善

의 迎接으로 教會의 関心을 갖도록 한다. (2) 教會 出席은 信仰生活의 表現이요, 救援觀의 確證임을 알게 한다. (3) 禮拜는 信者의 第一 義務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4)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教會에 興味를 갖도록 한다.

(세째로) “어떻게 興味를 갖게 하느냐?” 教會로 들어온 새 信者에게 教會를 向한 興味를 갖게 하려면 (1) 教會內 卍클 組織에 한 멤버로 加入케 한다. (2)

己의 技術을 通해 教會를 奉仕케 한다. (3) 내 教會로 認識케 하고 教會를 위한 責任을 지운다. (4) 傳導者의 한 멤버로 새 信者 한분을 引導케 한다. 이상.

이 글을 읽고 實踐하는 教會마다 復興發展이 되어 全 民族이 하루 速히 福音化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懇切하여 淸州地區 敎役者 여러분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1974년 5월

北傀의 對南戰略

《향군반공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敎授 李 讚九〉

當院은 주의 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향목의 직분까지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으로부터 향군반공교육자료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부응하는 뜻에서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李 讚九 敎授의 협조로 수회에 걸쳐 (북괴의 대남 전략) 교육자료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사색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編輯者 白〉

1. 序 論

統一問題는 南北關係가 改善된 狀況下에서는 接近政策을 強調하는 側面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惡化된 狀況下에서는 安保政策을 強調하는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兩面性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對南戰略은 우리로 하여금 統一問題를 安保政策의 次元에서 보게 만드는 北傀의 現實的인 對南 威脅에 關한 問題이다.

이에 對南戰略의 問題는 現在 統一問題의 主要한 一部로서 우리의 安保政策을 平行誘導하고 接近政策을 逆行抑止하는 變數로 機能한다고 보아 無妨하다.

한 國家 또는 그에 準하는 政治集團이 지니는 意思 곧 政治的 意志(Political Will)는 國家目標(National goal) 또는 그 具體的 表現인 政策(Policy)으로 發展되며 이것은 다시 實踐을 爲한 方法論으로서 立法措置(legislation)와 보다 細分化된 方法論으로서의 施行細則(Detailed regulation)까지를 要求하게 된다. 軍事學的 表現에 있어서는 政策推進의 方法으로서의 이 立法措置는 戰略(Strategic)에 보다 細分化된 方法으로서의 施行細則은 戰術(tactics)에 該當되는 概念이다. 이를 北傀의 立場에 適用시켜 아래에서는 北傀의 對南關係에 있어서는 政治的 意志 또는 政策을 크게 「對南意思」의 問題로, 戰略 戰術을 「對南態度」의 問題로 보고 演繹的으로 一慣性있게 分析코자 한다. 各種의 戰略 戰術을 驅使하는 北

傀의 現實的인 對南威脅이 그들의 對南政治的 意志 또는 政策에 있어서 어떤 比重과 意味 또는 關聯을 지니는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다는 判斷에서이다.

2. 對南政策(對南意思)

北傀의 對南意思是 標榜과 留保(對外發表가 留保가 경우라는 意味 以下 같은 뜻으로 使用함)의 兩側面에서 相反하는 內容을 보여 주고 있다. 標榜된 意思是 平和指向의 내지 對南友好的임에 友誼, 留保된 意思是 平和否定的 내지 吸收統合의이다.

가. 標榜된 意思

지금까지 機會있을 때마다 平和指向的인 것으로 나타난 對南意思에 關한 資料는 一一히 枚舉할 수 없을 程度로 많으나 그 중 代表的인 것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資料1〉: 1965年 1月 5日 字「워싱턴」所在 朝鮮問題研究所長 金龍中에게 보낸 金日成의 回答書翰—“...周知하는 바와같이 우리는 恒常 祖國의 內部問題인 統一問題를...自主原則에서 民主主義的으로 그리고 平和的 方法에 依해서 解決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다. ...”——여기서 言及된 自主, 民主, 平和는 그후 至今까지 宣傳의 次元에서 所謂 平和統一三大原則으로서 크게 強調되어 왔다.

〈資料2〉: 1972年 7月 4日 字에 發表된 이른바 7·4 北南共同聲明—“...自主, 平和, 民族大團結...”—7·4 南北共同聲明은 우리側 主導下에 成立된 것이기는 하나 北傀側도 同聲明內容作成에 우리側과 同參, 合議 發表케 된 것인 以上, 同聲明에 나타난 意思는 一應 標榜에 不過하나마 北傀側의 意思로도 된다고 아 니할 수 없다.

여기서는 앞의 自主, 民主, 平和라는 所謂 平和統一三大原則中에서 民主 代身에 民族大 團結이라는 表現이 採択되고 있어서 自主라는 概念과 重複되는 感이 없지 않다.

그러나 民主라는 말의 意味는 南北間에 相互 解釈上의 衝突可能性을 지니는 關係로 論爭可能性이 明白한 이 같은 語句를 可及의 迴避하기 爲하여 取한 態度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7·4 南北共同声明이 말하는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도 北傀側 立場에서는 金日成이 主唱한 平和統一 三大原則을 南北韓의 高位會談實務者들이 確認·受諾한 것을 意味한다고 強調할 수 있을 것이다. 實際로도 그렇게 宣傳해 왔음은 勿論이다.

〈資料3〉: 1972年 12月27日字에 制定公布된 이른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新憲法 第5條, 第149條—

◇第5條: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爲하여...”

◇第149條: “...首都는 平壤이다. “一北傀의 憲法이 “平和統一” 또는 “平和的 統一”이라는 表現을 採擧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그들의 舊憲法은 北傀의 首都를 “서울”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었는데 此際에 “평양”으로 規定하므로써 從來의 對南赤化統一路線을 憲法의 明文으로 禁止시킨 것은 적어도 文面上으로는, 그들의 對南意思가 平和指向的인 乃至는 對南友好的인 形式을 取한 證據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나. 留保된 意思

위와는 달리 北傀의 對南意思가 極히 對南敵對的인 것으로 나타난 境遇도 많이 있다. 그 중 代表的인 것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資料1〉: 1961年 9月18日 第四次 黨大會에서 修正 採擧된 朝鮮勞動黨 規約 前文—“朝鮮勞動黨의 當面目標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는데 있고, 最終目標은 全韓半島 위에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 ……”—그들이 自身의 이같은 最終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平和의 破壞가 不可避하게 되리라는 것은 自明한 理致이다.

〈資料2〉: 1965年 4月15日字 인도네시아의 社會科學院 「알리·아르함」에서 行한 金日成 자신의 演說—“……朝鮮革命의 終局的 勝利는 結局 三大革命力量의 準備, 強化에 있다.

첫째로 共和國 北半部를 革命基地로 強化하고, 둘째로 南半部人民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며, 셋째로 南北朝鮮人民의 革命人力量과 國際革命力量間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이다.

이것은 對南暴力革命意志를 露骨의으로 表現한 것이라는 점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宣言한 朝鮮勞動黨 規約 前文의 精神과 直通하는 것으로, 有名한 三大革命力量 強化原則이 바로 이것이다. 每年 4月15日은 北傀에서 金日成의 生日을 記念하는 最大의 “國慶日”이다. 이 날 全體住民을 祝祭「무드」속에 몰아넣은 채 멀리 外地에 나가 政策演說을 行하고 이것이 電波를 타고 各種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北韓住民에게 傳播되게 한 金日成의 「쇼맨십」과 北韓住民에 대한 이 演說의 心理效果,

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資料3〉: 1968年 9月9日 이른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創建 스무돌 記念 慶祝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報告演說—위의 三大革命力量 強化原則을 보다 強力하게 그리고 보다 具體的으로 再闡明하였다. 1976年 1月1日 零時에 所謂 金日成 新年辭를 통해서 三大革命力量 強化原則이 또 다시 強調되었다.

一般的으로 國家創建 記念式典에서 行하는 國家元首의 演說은 그 自体가 國家 主要政策의 方向設定으로 되며 特히 그것이 十週年 二十週年 또는 四半世紀의 記念日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傾向이 짙게 나타난다. 北傀의 境遇 魁首 金日成이 “共和國” 創建 스무돌 記念慶祝大會에서 三大革命力量 強化原則을 再確認 闡明했다는 事實도 같은 視點에서 解釋할 수 있다.

다. 真意判斷

지금까지 北傀의 對南意思가 마치 「야누스(Yanus)의 머리」와도 같이 標榜과 留保의 兩側面에서 相反하는 內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러면 北傀의 真意는 과연 어느 쪽에 所在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視點에서 后者 即 留保된 側面에 所在한다고 본다.

첫째는 黨規約의 憲法規定에 對한 優越的 性格이다.

一般的으로 法治國家의 境遇 規範秩序의 憲法→法律→規則→命令의 順으로 되어 있다. 즉 命令은 規則에 制約되고 規則은 法律에 制約되며 法律은 最終的으로 憲法에 制約되게 마련이다. 結局 憲法은 規範體系의 最高秩序인 까닭에 憲法을 制約할 다른 制度의 裝置의 存在는 源泉의으로 不可能하다.

따라서 規範을 違反하는 行爲에 對해 加해 지는 制裁(Sanction)의 強度도 위로 올라 갈 수록 嚴하고 強하도록 되어 있다.

大韓民國 現行憲法(1972年 12月27日 制定 公布)은 그 前文과 本文 第35條 및 第43條 規定에서 平和의 統一의 理想과 이를 위한 義務를 明示함과 同時에 舊憲法(1963年 12月17日 制定 公布) 附則 第8條가 代表하던 “國土收復”의 條項을 排除하므로써 名實相符한 平和統一憲法으로 轉換되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로써 北傀의 對南 先制攻擊이 없는 限 우리는 武力을 對北關係에서 問題解決의 手段으로 使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4 南北共同声明(72. 7. 4) 精神에 依據, 우리와 같은 날자(72. 12. 27)에 制定 公布된 北傀의 現行憲法이 前述한 바처럼 平和統一의 理想을 明示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憲法態도와 對此較量해 볼 때바람직한 態度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境遇에—勿論 다른 共產國家들에서도 마찬가지로 問題되고 있는 것이지만—內閣과 軍隊위에 君臨하는 黨規約이 憲法까지도 制約할수 있는 優越的 地位를 占하고 있어서 비록 憲法이 平和統一 理想을 標榜하더라도 黨規約이 저처럼 赤化革命意志를 留保하고 있는 以上 아무런 意味도 없다고 하는 바로 이 點이 問題인 것이다. 滂滂滂滂滂

그러므로 北傀가 지금까지 標榜하여온 一聯의 平和指向的이고 對南友好的인 意思의 表示는 그들의 留保된 對南赤化野慾을 塗裝하기 爲한 政治心理戰的 次元에서의 偽裝平和攻勢였다하여 마땅할 것이다.

둘째는 現在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이다.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은 한마디로 南韓赤化의 失敗가 自己 自身の 破滅로 되고 赤化의 成功이 그 破滅로부터의 救濟로 되는 立場 따라서 成·敗間에 最後 兇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立場인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南韓赤化를 成事시키지 못하고 죽을 境遇, 다음과 같은 두개의 致命的인 敗北에 直面하게 된다.

그 하나는 休戰線 以南에서는 金日成을 “韓民族 史上 最大의 戰犯者”로서 永遠히 歷史에 記錄해 나가리라는 點이요, 또 하나는 休戰線 以北에서도 生前的 偶像化되었던 모든 權威가 無慈悲하게 破壞될 것은 勿論, 實際로 熱誠 黨員이었던 者들에 依해서 “朝鮮勞動黨史上 가장 惡毒하고 無能한 共產主義者”라는 烙印을 여지없이 받게 되리라는 點이다.

지금까지의 그의 行跡으로 볼 때, 前者에 대해서는 勿論, 後者に 對해서도 긴 說明이 必要없다.

그는 于先 6·25南侵失敗 結果 北傀共產集團에게도 참을 수 없는 七大被害를 自招하였다. ① 共產黨의 潰滅, ② 人民軍의 破壞, ③ 南勞黨의 崩壞, ④ 南韓의 反共思想 強化, ⑤ 在北同胞 南下로 因한 共產主義經濟建設의 勞動力 喪失, ⑥ 國際社會에서 戰犯集團으로 烙印, ⑦ 北韓主要施設의 破壞등이다. 그는 또한 古典的이고 前近代인 「스탈린」主義者로서 無數히 黨員과 良民을 肅清 虐殺한 獨裁者로 君臨해 왔을 뿐만아니라, 奢侈品은 勿論 住民이 要求하는 一定 水準과 範圍內的 便宜品 生産마저도 外面한 채 最底線의 生必品 供給으로 滿足할 것을 強要해 왔다.

이러한 그가 死 후에 生前的 權威를 維持할수 없으리라는 것은 自明하다. 即 그의 死 후에 登場할 새로운 權力的 承繼者는 그의 生前的 偶像化된 權威를 假借없이 破壞해 버리지 않고서는 多數 黨員과 住民의 不平 不滿을 解消할 수 없게 됨은 勿論이요 自身の 새로운 統治基盤 構築에도 失敗하게 되리라는 判斷에서 金日成의 神格化된 生前的 權威를 破壞해 버릴 公算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蘇聯共產社會의 境遇 二次大戰의 勝利를 안겨 준 英雄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死 후에 새로운 權力承繼者(生前的 忠直한 部下) 들로부터 無慈悲한 批判과 格下를 當하고 끝내는 「레닌」 옆에 물었던 死 體까지 과해쳐 졌다는 事實을 金日成自身이 누구보다도 觀心있게 認識하고 있으리라는 假說도 成立할 수 있다.

거꾸로 南韓赤化에 成功할 境遇 南韓에서는 自身の 唯物論的 歷史觀에 依據, 歷史를 새로이 記述 編纂하므로써 戰犯者의 烙印을 지우고 解放者의 名札로 代置할 수 있게 되며 北傀에서는 民族解放과 祖國統一의 偉大한 英雄으로 추겨세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 自身이 스스로 生覺하고 있을 可能性이 매우 짙다고 判斷된다. 여기서 그의 選擇이 南韓赤化를 推進하는 方向으로 기우러졌으리라는 點은 再言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저들의 黨規約이 「全韓半島의 共產化」라는 原則을 끝내 固守하고 있는 것도 金日成의 이같은 政治的 立場이 要求하는 對南赤化의 現實的 必要때문이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그가 革命遺子女學校 出身으로 好戰的 生理를 지닌 아들 金正一을 自己生存時에는 南韓赤化의 促進劑로 使用하고 南韓赤化에 失敗할 境遇에는 死後の 權威維持의 防腐劑로 利用코자, 自身の 後繼者로 登場시키기 爲하여 온갖 無理를 저지른 事實은 같은 背景과 觀點에서 解釋될 수 있다.

세째로 間諜南派 武力挑發 地下活動 等 間接侵略의 繼續이다.

至今까지 間諜이 侵透途中 또는 地下活動中에 射殺 또는 生捕된 境遇 그들은 거의 例外없이 高性能 自動火器 및 莫大한 工作金을 持參하였고 또 實際로 1·21青瓦台 奇襲事件, 울진·三陟地區 武裝共匪 侵透事件, 地下터널構築事件 等を 통하여 體制顛覆을 企圖해 온 것은 天下共知의 事實로서, 이는 北傀의 對南意思가 體制顛覆에 依한 赤化統一에 있음을 如實히 말해 주는 좋은 事例라고 본다.

따라서 前述한 黨規約의 態度는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이 要求하는 그 原則의 側面이요, 繼續되는 間接侵略은 그 實踐의 側面이라 하여 마땅할 것이다. 또한 저들이 지금까지 外交 및 宣傳的 次元에서 또는 憲法的 態度에서 까지 標榜하여 온 一聯의 平和指向的 言辭들은 其實 對外的으로는 그들의 平和「이미지」를 浮刻시켜 國際輿論을 自己들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하고 對南面에서는 和解「제스처」로 對共意識을 瓦解시켜 侵透와 赤化의 與件을 造成코자 하는 이른바 政治·心理戰(Political Psy-War)의 戰

略 戰術에 不過한 것이었다는 判斷이 나온다.

저들이 이같은 對南 및 對外 心理戰과 閔聯하여, 北韓社會內部에서도 對南緊張高潮 또는 革命思想教育 強化 等の 이른바 對內心理戰까지를 展開하고 있

음은 注目을 要한다고 하겠다.

結局 北傀의 對南真意는 留保된 意思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即 北傀의 對南政策의 基本目標는 赤化 統一實現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 약 설 교

1. 생명의 길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11)

I. 생명의 길

만일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치려는 적들에게 포위 당했다 생각해 보자. 이 때에 그에게 빠져나갈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 서슴치 않고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사실 우리 인간 모두들은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분쟁, 의심, 불신, 부패와 부조리, 전쟁등의 위협속에 공포를 피부로 느끼면서 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와 같이 암흑과 혼돈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신앙의 외침이 이 시인을 통하여 들려온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II. 기쁨의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즐겁고,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III.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순간적이고, 지나가고, 불만족스러운 어떤것과도 비교가 안될 것이다.

세상은 보잘것 없고 가치없는 순간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생의 길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높은 길, 즉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

2. 우리의 신뢰

(본문) 시편27편

- I. 폭풍 속에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 II. 혼란 속에서 확실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 III.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인간에게 참 길 되신 그리스도
- IV. 복잡한 철학으로 혼란한 인간에게 진리 되신 그리스도
- V. 불가피한 죽음을 지닌 인간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3. 영적인 능력 (한설교로 또는 시리즈로)

- I. 믿음의 능력 (The Power of faith)
- II.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 III. 성경의 능력 (The Power of the Scriptures)
- IV. 성령의 능력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V. 그리스도의 능력 (The Power of Christ)

4.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단6:20)

옛날 다리오왕이 사자의 굴 속에 든 다니엘에게 질문한 이 물음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여진다.

오늘 우리가 승리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자들의 입이 묶여져야 되겠다.

- 첫째로 실망의 사자
- 둘째로 실패의 사자
- 셋째로 죽음의 사자

5. 전도의 기교 (技巧)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6)

I. 전도에 대한 자극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4:20)

II. 전도의 종류

- 1.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전도한다.
- 2.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 전도한다.
- 3. 우리가 실행함으로 전도한다.

III. 결 론

- 1. 존재는 숨길 수 없다. 크리스찬 성품을 개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 2.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크리스찬의 생활을 해야 한다.
- 3.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말하는 것 만은 부족하다. 전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있는 전도란 무엇보다도 먼저 잘 갖추어진 크리스찬이 되는데 있다.

신 간 소 개

홍 연 호 지음

“한말의 기독교청년 운동사 연구”

① 강 신명 목사의 서문 중에서
 기독교청년운동사는 아직까지 책자로 나오지 못해 유감이었던바, 홍 연호 목사가 남달리 이점에 착안하고 여러해 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하여서 1차로 “한말기의 기독교청년운동사연구”를 내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② 한 경직 목사의 서평 중에서
 이 적은 책자는 모든 교우들이 읽으면 특별히 사학도들과 종교교육 담당자및 기독교청년들이 이책을 통하여 현대에 있어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연락처 : 명지대학교회 홍 연 호 목사
 (서대문구 용암동 250-43) 전화 39-2501

성경통신강좌안내

1. 신학통신강좌(전 5 권)

- 가. 구약신학(창세기~말라기)
 - 나. 신약신학(마태복음~요한계시록)
 - 다. 교 회 사(초대교회사~한국교회사)
 - 라. 교 리(창조론~말세론)
- 입학금 : 1,200원

2. 성경강좌

- 내용 전 1 권(요한복음공부)
 - 제 2 권(그리스도인의 생활)
 - 제 3 권(그리스도인의 생활)
- 입학금 : 300원(군인 200)

3. 주제별 암송

- 내용 1~2 권 : 안내서
 - 3~5 권 : 안내서와 카-드
 - 6 권 : 독자적으로 암송하는 法
- 입 학 금 : 300원(군인 200)

※ 입학금 송금 방법
 우표나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 주십시오.

진흥원 소식

1. 진흥원에서는 5월19~23일까지 제주도에서 부흥전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도과 서귀포 교회의 극진한 사랑의 대접과 일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흥전도회

장 소 : 제주성안교회
 인원수 : 1만명(제주도 4번, 서귀포 1번집회)
 결심자 : 300명
 교역자 수련회 : 등록 85명(남녀교역자
 초교과)

평신도 수련회 : 등록자 1,120명

장소 : 제주영락교회

제주교도소 : 인원수 400명 결심자 : 120명

2. 진흥회보를 74년 12월부터 75년 6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회비 기간이 지났사오니 76년도 회비를 우표 10장이나 대체구좌 523290번으로 200원을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목회 세미나를 7월 5일~9일까지 선명회 수양관에서 개최 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인원40명. 선착순).
 제출서류:이력서 1통, 교단장 추천서1통(노회장급)
 등록금 및 교재대 3,000원
4. 영화 전도 광고
 7월-12월까지 영화전도 신청을 받습니다.
 (10-15교회 이상으로 계획 작성하여 신청바람 선착순 상영하겠습니다)
5. 영락교회 교인 과 진흥원 총무이신 김 군택 목사님께서 4월26~27일에 일선 전도 위문 및 전도 강연을 하셨습니다.
6. 부흥시경회 강사 지원
 76년 11월부터 77년 4월까지 농촌교회 자비부흥사 경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예산이 없어 부흥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는 진흥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강사 숙식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